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 책임연구원 :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여진(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김연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연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31-0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31-03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선영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희진 부연구위원 박현준 교수(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협력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마경희 연구위원 김여진 연구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은기수 교수	권영인 박사(연세대학교) 박건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수남 박사(고려대학교)

발 간 사 ■ ■ ■

전 세계적으로 성인기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방식으로 성인기 이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성인기 이행을 수행하는 시기와 방식 전반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심화나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지는 현상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인기 이행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인기 이행 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축적된 경험과 준비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인기 이행 양상은 사회적 상황과 제도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범위는 광범위 할 수밖에 없다. 아동정책,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고용정책, 주거정책, 가족정책 등이 성인기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협동연구 방식으로 수행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 내용은 성인기 이행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 분석과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을 하는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성인기 이행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대 간 가치관을 비교하였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고찰을 모두 취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어 청년들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가 수행된 2010년과 2011년에 협동연구의 파트너로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호주멜버른대학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들에게 감사 드린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의 세부과제로 수행되었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연구 목적 하에서 이 연구는 성인기 이행 양상에 나타난 남녀 간 차이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의 젠더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두 39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각각 2시간가량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0대 총 33명(2차 면접 포함)과 부모세대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변환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극도로 유연화 된 노동 시장은 취업 과정에서 남녀 모두 겪게 되는 현실이며, 기존의 성별 분업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된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직업에 특정한 성이 선호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체계는 노동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유연해지는 현재 해체되거나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들은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군과 문화 산업에서 선호되며 이러한 영역에서 성별 분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노동 유연화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오래 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고, 그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여성은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여전히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열정을 갖고 도전하기 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취업 이후에도 일을 오래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스펙 쌓기’와 같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이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여성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커리어 단절의 문제

느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협상력을 갖을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남성들은 커리어와 가정이 평행선을 유지하며 이를 협상의 문제로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기업의 이윤에 손해를 입히는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닌 이를 ‘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나아가 남성들을 돌봄 영역으로 포섭하고자하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가장 중요한 성인기 이행의 과제로 보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보다 유리한 취업 조건을 마련하기위해 휴학, 졸업 연기,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지연하고 있다.

취업과정에 있는 여성면접자들은 기업의 여성 인력 기피 경향으로 인해 취업 할당에 있어서의 남녀 불균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나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취업과정에서 여성들은 용모중심주의적 담론의 영향을 남성들보다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여성면접자들 중에는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미용성형과 다이어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외모 관리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불리한 위치는 여성면접자들의 결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사노동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면접자 대부분은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면접자들에게는 가정과 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혼과 여성의 커리어 개발 욕망이 합치되지 않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비롯된다. 또한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높은 학력과 높은 지위에 대한 저평가는 여성들의 친밀성 형성 욕구와 커리어 욕망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낸다.

주제어: 성인기 이행,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성불평등, 성인기 이행 지원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남녀 간 차이를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의 젠더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대 33명과 부모세대 8명 등 총 41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각각 2시간가량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주요결과

1) 특징적 개념

- 성인기 접어들
‘성인’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법적 규정은 청소년과 성인을 경계 짓는 일차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활용하여 성인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 부모의 영향:
파트타임 노동을 하며 임시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연구 대상자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성인 인식에 있어서 장애요인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의존, 주거 독립 미수행과 같은 물적인 사실들과 함께 물적 조건의 불완전한 상태는 정서적인 불안을 형성하고 이러한 감정 상태는 성인으로서 인식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대의 정서적 불안은 주로 ‘우울’ ‘상대적 박탈감’ ‘폐배감’ ‘무기력’ 등으로 채워진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성인됨을 묻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성인기로의 이행이 수월하지 못함’을 개인의 신념과 의지로 연결 짓기 보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체계 내의 청년세대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성인으로서 역할 수행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며 ‘성인됨’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 사회적 영향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연결망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제도적 영향도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스펙 쌓기를 해야 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군대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유형분석

○ 성인으로서의 이행시도형

성인으로서의 이행시도형의 특징은 휴학과 진로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은 제한된 범위에서 받아들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 혼란적 이행형

성인이 되어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한 의식과 무의식의 교차, 인정과 부정을 반복하는 것이 혼란적 이행형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졸업과 취업준비와 진학과 결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뒤엉켜서 본인에게 성인이 되는 과정은 ‘다른 길을 걷다가 돌아오는’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된다.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도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면서 취업을 원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 복잡한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 이행지체형

성인으로서의 이행지체형은 자신이 성장해오면서 겪어왔던 과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상실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도 혼란형과 이행지체형이 느끼는 무기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계속적인 무기력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인으로서의 이행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성인기 이행전략의 젠더 차이

○ 취업전략 :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성별 전략

여성은 남성을 더 선호하는 취업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나 나이와 같은 능력 외의 요소들까지도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나이에 있어서도 남성면접자들에게 나이 들어감이 취업에서 큰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었던 반면 여성면접자들은 나이가 취업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여전히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은 취업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모 관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 독립 전략 : 부모의 통제 욕망과 성별 전략 차이

주거 독립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의 주거독립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딸의 주거독립은 반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보다는 딸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상황에 대한 염려 외에도 딸과 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 때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 결혼 전략의 성별 차이 : 가사노동 공동화와 결혼 지연

남성은 대체적으로 취업 이후 결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결혼이 본인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 정도로 여기며 결혼 이후의 가사 분담에 대해 전적으로 아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역할보다는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는데, 가족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에서 기인한 임금노동 중단은 여성의 커리어, 수입,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상에서의 위치 모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성은 가족으로 인해 힘을 얻는(empowered)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소진된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참여자들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가장 중요한 성인기 이행의 과제로 보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보다 유리한 취업 조건을 마련하기위해 휴학, 졸업 연기,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지연하고 있다.
- 취업과정에 있는 여성면접자들은 기업의 여성 인력 기피 경향으로 인해 취업 할당에 있어서의 남녀 불균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나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취업과정에서 여성들은 용모중심주의적 담론의 영향을 남성들보다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여성면접자들 중에는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미용성형과 다이어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외모 관리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불리한 위치는 여성면접자들의 결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사노동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면접자 대부분은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면접자들에게는 가정과 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혼과 여성의 커리어 개발 욕망이 합치되지 않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비롯된다. 또한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높은 학력과 높은 지위에 대한 저평가는 여성들의 친밀성 형성 욕구와 커리어 욕망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낸다.
- 경제적 독립은 청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고 청년 실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부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 여성들은 결혼 후 가족생활 유지의 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최대한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성의 결혼 지연이나 비혼 전략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출산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지원 능력 여부에 따라 자녀의 성인기 이행의 시기에 많은 차이를 보여
계급 재생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예측은 정서적 의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성인기 이행으로의 의욕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 즉, 학업과 구직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주거비는 상승함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은 자녀세대가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성인기 이행을 더욱 지연시키고 청년세대의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게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주거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기피와
밀접히 관련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9
1. 성인기 이행시기와 특성의 변화	11
2.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	14
제 3 장 연구방법	17
1. 연구 설계	19
1) 조사목적	19
2) 조사내용	20
3) 심층면접 조사지	21
2. 심층 면접	24
1) 자료수집	24
2) 개념추출과 범주화	24
3) 연구대상자 선정과 특징	25
제 4 장 연구결과	31
1. 특징적 개념	33
1) 성인기 접어들	33
2) 부모의 영향	44
3) 성인 인식에 있어서 장애요인	57
4) 사회적 영향	67
2. 유형분석	79
1) 성인으로서의 이행 시도형	80
2) 혼란적 이행형	80

3) 이행지체형	85
3. 성인기 이행전략의 젠더차이	86
1) 취업전략 :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성별 전략	87
2) 독립 전략 : 부모의 통제 욕망과 성별 전략 차이	114
3) 결혼 전략의 성별 차이 : 가사노동 공동화와 결혼 지연	123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1. 결론	157
2. 정책제언	158
1) 청년고용정책 활성화 및 여성 취업지원 강화	159
2) 성별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64
3) 성인기 이행 중 부모에 대한 경제적 예측 탈피 지원	166
4)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추진	169
 참고문헌	171

표 목 차

〈표Ⅲ-1〉 조사영역 및 내용	20
〈표Ⅲ-2〉 심층면접 조사지	21
〈표Ⅲ-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대 연구대상자	25
〈표Ⅲ-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세대 연구대상자	28
〈표Ⅳ-1〉 성인기 접어들	33
〈표Ⅳ-2〉 부모의 영향	44
〈표Ⅳ-3〉 성인 인식에 있어 장애요인	57
〈표Ⅳ-4〉 사회적 영향	67
〈표Ⅳ-5〉 유형분석	79
〈표Ⅳ-6〉 성인기 이행전략	86

그림 목 차

【그림 Ⅲ-1】 인터뷰 질문지 설계도	29
【그림 V-1】 경력단절과 여성의 생애 이해 프로그램	163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의 세부과제로 수행되었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연구 목적하에서 이 연구는 성인기 이행 양상에 나타난 남녀 간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만 19-29세 청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20대’에 대한 담론과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정치적 무관심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부각되면서 기성세대의 비판을 받아 온 20대에 대한 담론은 소위 ‘88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며 이들 세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편 20대의 암울한 상황이 과장되고 있다는 반발 속에서 20대에 대한 ‘G세대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G세대론은 우리 사회 20대가 국제사회에 나가도 꿀릴 것이 없는 세대라고 주장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준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라 부모 세대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아 디지털 능력으로 중무장한 세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는 세대라는 것이다(추성호, 2010). 그런데 이와 같은 상반된 두 논의 속에 공통된 점은 20대가 단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는 전제이다. 실제로 20대 내부에는 매우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기준은 ‘성’과 ‘계층’일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이 성인기 이행 양상을 규명하는 총괄과제의 하위 과제로서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와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이 구성된 이유일 것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성인기 이행 양상의 유형 분석 결과, 성인기 이행 양상의 다양화는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외, 2010). 남성의 경우는 6가지 상태(학교 재학, 군복무, 취업, 혼인, 취업+혼인, NEET) 간에 변동의 유형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주된 유형(dominant pattern)을 파악할 수 없었다. 성인기 이행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60년대와 70년대

코호트 모두 재학-취업-혼인의 생애사건순서를 거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에서 곧장 혼인상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아직 남아 있었다. 성인기 이행에 있어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바에 차이가 있으며, 성인기 이행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차년도 세부 연구과제를 통하여 남녀 간 성인기 이행양상의 다양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고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주요하게 등장한 우리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100세 시대’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의 성인됨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개인이 한 사회의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 다른 말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권, 사회권, 부모권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노동권의 경우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이후 일자리를 규정한다는 논리가 확산됨에 따라 생애 첫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청년들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리스크 회피의 일환으로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가족형성을 연기 또는 포기하고 자기투자를 통해 교육연한을 늘림으로써 생애 첫 취업에 주력하는 청년들의 행태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 양식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의 생애과정 구성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 관점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은 어른됨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며 의존적인 존재로 생애전략을 짚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른됨의 유형, 어른됨의 재구성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적합한 정책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행 중인 청년들의 남녀 간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우리는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현상이 이처럼 삶의 영역 전반에 나타난다는 사실, 특히 전통적인 성별분업 체계에 따라 이분화 되어 공적, 사적 영역에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성별화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인기 이행과 인식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접근은 오늘날 청년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맥락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함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여성과 남성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자신을 성인기에 접어든 ‘성인’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다양한 사회적 인정체계, 부모와 가족체계, 동년배의 문화와 같은 사회·제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취업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의 종류, 남성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입대의 의무와 같은 요인들이 성인기의 이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적인 요인을 보면,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의존, 주거 독립 미수행과 같은 물적인 사실들과 함께 물적 조건의 불완전한 상태는 정서적인 불안을 형성하고 이러한 감정상태는 성인으로서 인식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트타임 노동을 하며 임시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20대의 정서적 불안은 주로 ‘우울’, ‘상대적 박탈감’, ‘폐배감’, ‘무기력’ 등으로 표출된다.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성인됨을 묻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인으로의 이행은 단선적인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휴학과 진로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은 제한된 범위에서 받아들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유형을 이행시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혼란적 이행형은 성인이 되어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해 의식과 무의식의 교차, 인정과 부정을 반복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유형의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졸업, 취업준비, 진학과 결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뒤영켜서, 성인이 되는 과정은 ‘다른 길을 걷다가 돌아오는’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된다.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도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 하면서 취업을 원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 복잡한 성인으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이행지체형은 자신이 성장해오면서 겪어왔던 과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상실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도 혼란형과 이행지체형이 느끼는 무기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계속적인 무기력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인으로의 이행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인으로의 성인기 이행유형의 차이는 이행전략의 젠더 차이로 귀착되게 되는데 먼저 취업전략 면에서 보면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성별 전략이 나타나 여성은 남성을 더 선호하는 취업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나 나이와 같은 능력 외의 요소들까지도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나이에 있어서도 남성면접자들에게 나이 들어감이 취업에서 큰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었던 반면 여성면접자들은 나이가 취업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여전히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은 취업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모 관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녀의 성인으로서의 이행에 부모의 통제 욕망과 성별 전략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거 독립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의 주거독립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딸의 주거독립은 반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보다는 딸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상황에 대한 염려 외에도 딸과 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독립전략의 젠더차이로 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결혼은 가장 중요한 생애사적 사건이 되는데, 남성은 대체적으로 취업 이후 결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결혼이 본인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 정도로 여기며 결혼 이후의 가사 분담에 대해 전적으로 아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역할보다는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는데, 가족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에서 기인한 임금노동 중단은 여성의 커리어, 수입,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상에서의 위치 모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성은 가족으로 인해 힘을 얻는(empowered)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소진된다. 성인기로의 이행의 성별 차이는 가사노동 공동화와 결혼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체되는 이유를 남성과 여성의 차이란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한국사회의 여성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성별화된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별화된 이행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균등한 문제를 드러내어 보다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성인에 대한 전제조건을 책임감으로 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책임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는 것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취업을 성취해 낸 이후에 결혼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성인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이어지는 출산과 육아 및 가사일에 대한 부담과 그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성보다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원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여성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및 가사일에 대한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인기 이행 과정 중에 원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그에 따른 정서적 의존이 도리어 성인기 이행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러한 측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성인기 이행에 어떤 양상으로 장애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원가족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정서적 의존성이 강한 남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진로를 설정할 때 부모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로부터 벗어나 성인기 이행과정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젠더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그에 걸맞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1. 성인기 이행시기와 특성의 변화
2.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1. 성인기 이행시기와 특성의 변화

출생이후 죽음에 이르는 일생 중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시기는 개인의 인생 여정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애과정 중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Arnett, 2001).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시기는 성장해가면서 나이를 먹고 육체가 변화해가는 생물학적인 변화 과정인 동시에 개인에게는 자신만의 경험으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졸업·취업·결혼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순서나 이행시기, 그리고 어떤 사건이 중요시되는가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으로 보이는 성장과정, 학생의 신분을 지나 취업하고 결혼하여 부모가 되어가면서(parenthood)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은 사회적으로 나이에 걸맞게 요구되는 일련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몇 살쯤 되었을 때를 어른으로 보는가, 혹은 혼인에 적합한 연령, 이른바 결혼적령기는 언제인가, 아니면 몇 살쯤이면 학교교육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는가는 사회나 문화 혹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서 알 수 있듯이 ‘어른됨’을 규정하는데는 문화적 규범나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는 연령과 같이 국가가 규정한 법률적·제도적 규정도 성인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또 다른 토대가 된다. 우리가 생애과정을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개인의 일대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연령기대와 역할(Elder and Shanahan, 2005)”로 정의하는 이유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개인적인 과정과 사회적 과정의 이중적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이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던 부모로부터의 분가, 취업, 결혼, 부모됨 등과 같이 과거 성인기 이행의 상징적 징표로(marker)로 인식되었던 생애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의 발생순서에 있어 단선적으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서가 뒤바뀌면서 다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이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 청년기를 보내는 시기가 길어지거나, 진학을 통해서 교육기간을 연장시키고, 결혼이나 부모됨의 역할이 지연되거나 결혼 이후에도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아네트는 ‘과도적 성인기(emerging adulthood)’ 라는 새로운 발달단계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rnett, 2000; Arnett, 2001).

이처럼 성인기로의 이행을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산업구조의 전지구화가 진행되고, 세계경제의 불황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이 평생동안 안정된 직장과 승진과 계층상승의 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서구사회에서 실업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같이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제도도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그 이전 세대처럼 이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출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은 후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해가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성인이 되는 단선적 역할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 힘들게 되었다. 이전에는 졸업-취업-결혼-부모됨이라는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어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단선적 경로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취업을 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남성 혼자만의 벌이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지만, 반대로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딜레마에 봉착해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경로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연장되었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아네트는 사회적 역할과 규범적 기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일과 사랑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등이 구성되어지면서 향후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시기로서 ‘과도적 성인기(emerging adulthood)’ 라고 부르고 있다(Arnett, 2000; Arnett, 2001). 과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나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이 자녀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의 획득이 성인기로의 이행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독립과 의사결정의 자율성,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역할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Arnett, 2000; Arnett, 2001).

아네트의 논의를 발전시켜 학자들은 이러한 과도적 성인기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졸업에서 취업, 취업에서 결혼과 같은 성인기의 주요 사건들이 발생하는 시간적 간격이 길어지고, 둘째,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듯이 이전에 분리된 단계에 있었던 사회적 역할들이 동시에 수행되거나,

셋째, 취업이후에도 다시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함으로써 학생이나 직장인과 같이 이전에는 한번 규정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함으로써 역할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넷째 부모로부터의 분가해도 결혼한 뒤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와 결합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혼이 필수가 아닌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과 같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할 것으로 예상되던 사회적 역할이 해체되게 되었다(Macmilan, 2005).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성인기로의 사회적 경로가 다차원적으로 변화하면서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되었으며(Bruckner and Mayer, 2005), 이에 따라 더 이상 “보편적” 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생애단계나 사건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주장한다(Billari and Liefbroer, 2010).

새로운 성인기 이행의 경로가 등장했다고 보는 이러한 견해는 청년들이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기 보다는 자유로운 탐색과 선택을 거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다양한 경로들을 밟아가는 과정을 부각시켰다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성인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Cote and Bynner, 2008; Sabrina, 2010). 많은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학교에 더 오랫동안 다니면서 학력을 높이고 취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한 취업난과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택한 원하지 않은 강요된 선택이라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볼 때 성인으로의 이행시기가 지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이행의 근본이 되는 과정 자체가 해체되거나 새로운 경로가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기간, 결혼, 출산, 취업 등 성인기의 징표로 간주되었던 역할이행 시기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생애과정을 전반을 볼 때 진행되는 사건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발견하기 힘들다(Bruckner and Mayer, 2004; Wiemer and Ritschard, 2009). 실제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기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탈표준화 과정이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검증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전히 사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분가해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가는 과정과 공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을 마치면서 취업하여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가는 과정은 성인기 이행에 있어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인이 되어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아네트의 주장은 타당하나, 성인기로의 이행을 새롭게 정의할 만한 이행과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과도기의 성인기’ 내지는 성인기 이행과정의 경로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론들은 청소년 전체의 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노동시장의 불완전함이 심화되면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계층 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의 전지구화와 이로 인해 심화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인종, 계급들 간의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산되었다고 본다(Cote 와 Bynner, 2008). 사회적 불안정성과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직 독립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미래를 탐색하고 학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성인기로의 이행기간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중상층 계급의 자녀들일 뿐이며, 하층계급의 자녀들은 오히려 일찍 졸업하여 저숙련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전통적인 성인기의 경로를 따른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중상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중하층은 비정규직의 악순환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박기남, 2009).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도 중상층 출신 청년층들은 진학을 하거나 여행이나 어학연수와 같은 전문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하층계급 출신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벌고 졸업과 함께 불안정하고 저소득의 일자리에라도 우선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모든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경로가 다양화되거나 길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한국의 중상층 청소년들의 성인기의 이행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 연구결과를 한국사회 전체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의 특성으로 확대시키기는 힘들다.

2. 성인기 이행의 성별 차이

성인기로의 이행을 둘러싼 최근의 이론적 논의들에서는 이행기간이 연장되어가고 있으며, 이행과정 이 다선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론적 쟁점이 되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목해야할 사실은 성인기로의 이행과정과 경로에 있어서 젠더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자녀양육에 대한 모성의 책임이 부성의 책임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아울러 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전업주부인 여성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볼 때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생애를 거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건들로 구성되는 생애과정도 젠더간에 차이로 귀결되게 된다. 이처럼 출산, 취업, 결혼, 자녀의 출산과 부모됨, 결혼, 죽음등 다양한 사건으로 구성된 생애과정의 젠더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처음으로 주목한 모옌은 이를 ‘성별화된 생애과정(gendered life course)’ 이라고 개념화하였다 (Moen, 2010). 이러한 개념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이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사회 조직과 제도가 생애과정의 성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을 통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에 놓는 남성들이 취업을 중심으로 생애과정을 구성해간다면 여성의 생애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노동자 역할이라는 두 축을 오가면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남성들이 “졸업-취업-은퇴” 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생애주기를 갖게 된 반면 여성들의 생애는 “결혼-출산-양육-취업” 이 단절과 지속되는 다양하면서 복잡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배은경, 2009). 그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갖추어야 하며, 결혼에 앞서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된다(안선영 외, 2010).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결혼 이후에 출산과 양육을 병행해야 되는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며, 취업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동시에 완수해야할 사건으로 생애과정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미루거나 취업, 결혼이후 취업을 중단하거나 출산이후 재취업하는 것과 같이 남성들이 좀처럼 선택하지 않는 복잡한 경로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도 한국사회의 비혼 여성들은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한 취업, 단기간의 불안정한 고용,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같은 미래의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결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기남, 2009).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들은 군입대가 사회적 의무로 부과되는데, 상대적으로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진출해야 되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보다 어린 나이에 사회적으로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회구조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여성의 이른 사회 진출은 보다 빠른 ‘결혼 적령기’, ‘취업시기’ 를 규정하는 연령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젠더차이로 이어진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연령규범의 차이는 동일한 나이에 취업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에게 동년배의 남성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내에 성인이 되어야 하는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서른이란 나이도 여성에게는 성인이 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로 간주되는 반면에 남성에게는 ‘아직은 괜찮은’ 나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를 둘러싼 사회적 용인수준과 기대에 있어서 젠더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을 미룬다거나 스펙쌓기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보다 나은 인적자본으로

서 스스로를 만들 다양한 개인의 선택과 대처방식은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변화된 구조적 상황과정과의 상호작용속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젠더화된 성인기 이행과정은 학업의 지속과 취업사이에서 그리고 사랑과 연애와 결혼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고 결혼 이후에는 아이를 낳을 적절한 시점을 결정해내는 끊임없는 개인의 선택과정과 성역할에 대한 규범, 양육의 사회적 책임과 제도화, 생계부양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와 같은 사회구조의 압력을 통해 구성되는 이중적 구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심층면접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연구의 목표는 성인기 이행에 대한 젠더의 분화와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20대 청년에게 나타나는 생애경로의 특징을 문화기술지적인 접근으로 조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크게 1) 20대 청년세대와 2) 20대 자녀의 부모세대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의 방식을 취하였다. 성인기의 진입, 부모 및 사회의 영향, 성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질적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세대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유형들을 추출하였고 특히 젠더별 상이한 경로로 나타나는 성인기 이행전략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편,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성인기 인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성인기 이행으로부터 잠재될 수 있는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갈등에 주목하였고, 젠더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세대갈등이 특히 성역할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의 마찰로 나타날 가능성들을 기술하였다.

1) 조사목적

20대 청년세대 조사의 목적은 20대들의 어른됨에 대한 정의, 취업, 결혼, 출산, 성평등에 대한 태도 등의 측면에서 청년세대 내부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어른됨의 정의와 생애경로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사회적·개인적 요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차이가 향후 우리 사회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조사에서는 성인기로의 이행중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행과정에 대한 생각, 2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지원의 성별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내용

20대 청년세대의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표 III-1>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 III-1 조사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I. 개인 및 가족 배경	1-1. 개인적 특징 1-2. 가족 배경의 특징
II. 어른됨에 대한 개인적 정의와 태도	2. 어른됨의 조건 3. 교육이수에 대한 태도 4. 취업에 대한 태도 5. 결혼에 대한 태도 6. 출산에 대한 태도 12.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
III. 어른됨에 대한 개인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개인적 요인: 삶의 가치 8. 성차별적 구조: 성역할에 대한 태도 9. 가족배경: 어린시절 부모의 양육방식 10. 사회구조: 경쟁과 자기개발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성찰
IV. 정책수요	11. 국가와 정책에 대한 기대

첫째, 개인 및 가족 배경이다. 피면접자에 대한 배경적 이해를 위한 것으로 성별, 연령, 출신대학 등 개인적 특징과 가족관계 및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비롯한 가족적 배경을 조사한다.

둘째, 어른됨에 대한 개인적 정의와 태도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교육, 취업, 결혼, 출산,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등 개인적 측면에서의 어른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셋째, 어른됨에 대한 청년 개개인의 정의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삶의 가치관), 성차별적 구조(성역할에 대한 태도), 가족배경(어린시절 부모의 양육방식), 사회구조(경쟁과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정책이 청년세대의 어른됨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질문한다.

부모세대의 연구는 조사내용의 기본 골격이 청년세대와 유사하면서 해석의 중심은 특히 부모세대가 인식하는 성인기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20대 청년층과의 세대간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20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면접지에 포함시켰다. 특히 부모세대의 성인기 인식에 있어 자녀의 성별에 따른 기대의 차이를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었다.

3) 심층면접조사지

심층면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시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들이 포함된다. 먼저, 피면접자의 개인 및 가족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성인’ 과 ‘성인기’에 대한 피면접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교육이수,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사의 중요한 이행단계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피면접자의 삶의 가치와 어린시절 부모의 양육방식,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여 개인 및 젠더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환경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자기능력개발을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견해를 물었고 자녀의 미래 및 국가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았다. <표 III-2>는 심층면접에서 다루었던 주요 질문사항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2 심층면접 조사지

1. 개인 및 가족 배경	
1) 개인적 특징	
○ 성별:	남 _____ 여 _____
○ 연령:	_____년생
○ 학력:	_____졸
○ 직업:	_____
2) 가족의 특징	
○ 혈연가족구성:	_____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_____
○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	_____
○ 가구 소득 수준:	_____만원
○ 경제적 생활 수준:	_____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도:	월 _____만원

2. 성인됨의 조건

-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취업? 결혼? 출산? 정서적·심리적 독립?
-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 자녀는 지금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 현재 자녀의 나이 때 본인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나?
- 현재 자녀의 나이 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자녀가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금 자녀의 판단과 행동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가? 자녀가 믿음직스러운가?

3. 교육이수에 대한 태도

- 교육은 타고난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인가?
-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체로 성취할 수 있는가?
- 자녀의 고등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4. 취업에 대한 태도

- 삶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또는 의의는 무엇인가?
- 자녀의 삶에서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보는가?
- 자녀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는가?
- 평생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안정된 직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 자녀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는가?
- 부모는 '나'를 희생해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 그 책임을 다 해 왔나, 후회는 없는가?

5. 결혼에 대한 태도

-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후회하지 않는가?
- 자녀가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는 것이 좋은가?
- 자녀는 어떤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는가?
- 한 번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해야 하는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자녀가 그랬으면 하는가?
-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가 동거를 한다면 인정할 수 있는가?

6. 출산에 대한 태도

- 아이는 결혼 관계에서만 낳아야 하는가?
- 결혼하면 반드시 낳아야 하는가, 자녀도 그래야 하는가?
- 결혼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가? 자녀가 그렇다면 격려해 줄 수 있는가?
- 삶에서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자녀를 위해 나를 포기하고 헌신해 왔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이에 대한 후회는 없는가?
-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포기하기를 바라는가?

7. 삶의 가치

-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돈, 명예, 친구, 가족, 나 자신?
- 자녀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가?

8. 어린시절 부모의 양육 방식

- 부모님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
- 주로 누가 나를 돌봐주었나?
-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
- 부모는 나를 어떻게 키웠나?
- 부모는 나에게 주로 무엇을 해 주었나? 심리적 지지? 경제적 지원?
- 부모는 내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 나의 기대는 부모의 기대와 일치했는가?
- 나의 부모의 양육방식이 현재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나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나? 어떤 측면에서?

9. 성역할에 대한 태도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인가?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성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면 해도 될까?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내 딸이 그런 남성과 결혼한다면?
- 여성이 결혼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여성이 결혼하는 것은 타당한가?
- 내 딸이 경제적으로 능력 있다면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경쟁과 자기능력 개발 중시 사회에 대한 성찰

- 점차 치열해지는 경쟁과 자기능력 개발 요구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개인들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가?
- 정규직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은 무능력한 것인가?
-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을까?

11.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 내 자녀는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 자녀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고 있는가?

12. 국가와 정책에 대한 기대

- 국가는 청년들의 불안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 국가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2. 심층면접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전문리서치회사(피오)에 의뢰하여 면접은 2011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1년 11월 까지 1:1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20대 청년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역, 성별, 연령, 취업 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26명을 인터뷰 하였으며 이후 성별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대 4명을 연구책임자의 주관 하에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30명의 20대 면접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성인기 이행단계의 20대 자녀를 둔 4명의 40-50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약 2시간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되었다. 이후 조사대상자의 보완을 위해 부모세대 4명에 대한 추가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명의 부모세대 면접자료가 수집되었다. 종합하면 30명의 청년세대와 8명의 부모세대를 모두 합하여 총 38명의 개별면접이 이루어졌다.

피면접자에게는 면접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심층면접 내용의 녹취에 대한 승낙을 받아 녹음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개념추출과 범주화

심층인터뷰를 통한 인터뷰 녹취록 원자료에서 첫 번째로 자료의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판단위 분석으로 인터뷰 내용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원자료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나 그 안에 숨겨진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개념 추출 이후에는 비슷한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화 작업을 거쳤다. 같은 의미의 개념들은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하위범주는 다시 상위 범주에 포함시켜, 응답자들의 특성이 상위범주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자 선정과 특징

(1) 20대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 20대 연구참여자들의 취업여부는 ‘성인됨’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으로 고려되었으며, 미취업상태의 청년들은 취업상태의 청년과는 다른 고민과 전략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면접자 대부분은 미취업상태에 있었으며 취업 중인 경우에도 비정규 파트타임 노동 직종에 종사하며 다른 직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거주 공간 분리를 통한 주거의 독립은 ‘성인됨’ 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적용되었으며, 이들의 거주 공간 분리가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주거분리에는 서울에 거주하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방에 거주하여 대학진학과 함께 부모로부터 주거면에서 독립해 가는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서울거주자와 지방거주자를 구분해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수집된 20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대 연구대상자

번호	성별	연령	출신지	거주지 (동거인)	학력	취업상황	특징
1	남	만25세	경기	서울 (기숙사)	대학4학년 (연세대) 행정, 경영	공기업, 금융계 취업준비	가부장적 가족영향, 취업고려 복수전공
2	여	만27세	부산	서울 (친구)	대학졸업 (동아대) 물리, 교육	교직준비	(부산대 물리학에서) 편입으로 전공변경
3	남	만24세	부산	서울 (형제)	대학4학년 (연세대) 법학	사시준비	남성주의가치관, 강한 자존심
4	여	만24세	경남 통영	서울 (형제)	전문대졸 (대구보건대) 사이버대 재학(국문)	작가 지망생	안경광학전공, 안과에서 근무
5	남	만28세	서울	용인 (부모)	대학4학년 (연세대) 심리학	CPA 준비	경영 이중전공

6	여	만25세	서울	서울 (부모)	대학졸업 법학	대학원 진학 준비	약대 준비, 전문직 선호, 부모 영향
7	남	만27세	서울	서울 (부모)	대학4학년 (광운대) 법학	공모전, 마케팅 분야 취업준비	여유있는 직장 선호, MBA 유학 계획
8	남	만25세	서울	서울 (부모)	대학4학년 (UIUC)	군입대 준비	유학생
9	여	만24세	서울	서울 (부모)	대학4학년 (연세대) 사회학	유학준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10	여	만29세	서울	서울 (부모)	대학중퇴	영어강사	외국 3-4년 거주, 주거독립 원함, 남성중심주의 가치관에 강한 반감
11	여	만28세	청주	청주 (부모)	대학원졸 (청주소재대학) 경영석사	신문사 근무, 아나운서 준비	현직장에서 이직계획, 대학원 진학 고려
12	남	만25세	청주	청주 (부모)	대학4학년 경영학	회계분야 취업준비	청주반도체회사 희망, 자격증 취득
17	여	만28세	천안	서울	대졸 (동덕여대, 문예창작)	통번역 대학원 진학준비 중	작가지망생. 공무원 계약직 그만둠.
18	남	만27세	서울	서울	대졸 (물리학과)	전공관련 취업준비	변리사 준비하다 포기.
19	여	만27세	포항	서울 (형제)	대졸 (역사학)	프리랜서	잡지기자 경력
20	남	만27세	익산	서울 (형제)	대졸 (생물학)	취업준비 중	호주워킹홀리데이 경험
21	여	만25세	대구	서울	대학재학 (성균관대, 사회학)	고시준비 하다가 중단	부모님 제안으로 성대, 자퇴 교대 입학, 다시 성대 재입학
22	남	만28세	대전	서울	대학재학	아르바이 트, 취업준비	어머니가 돌아가심.
23	남	만26세	서울	서울 (부모)	대학재학	취업 준비	가사노동 전담육구 있음

24	여	만26세	서울	서울 (친구)	대학원 휴학 (국제관계, 영문과)	외무영사 공무원 준비	중국 교환학생, 해외 어학연수 경험
25	여	만25세	서울	서울 (부모)	대졸	이직준비	직장 경력 쌓고 이후 MBA 대학원 진학 계획
26	여	만26세	충남	서울 (부모)	대졸예정 (단국대)	졸업연기	편입으로 학력 업그레이드, 취업에 있어서 전공 후회.
27	남	만26세	창원	서울	대학원재학		
28	남	만25세	광명	광명 (부모)	대학재학 (항공대 경영)		
1-1 (29)	남	만25세	경기	서울 (기숙사)	대학4학년 (연세대) 행정, 경영	공기업, 금융계 취업준비	2차 추가 인터뷰
5-1 (30)	남	만28세	서울	용인 (부모)	대학4학년 (연세대) 심리학	CPA 준비	2차 추가 인터뷰
31	여	만27세	대전	서울 (자취)	대학원휴학	소설가 지망생	경제적 독립 주거적 독립 상태
32	여	만27세	안양	안양 (부모)	대학원졸업	석사 졸업	박사과정 재학 희망
33	여	만25세	울산	서울 (자취)	대학교재학	구직 중	영업직 진출 희망

(2) 부모세대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 연구대상자들은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20대 자녀를 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며 계층적으로는 중산층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부모 인터뷰는 주로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자녀 지원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의미화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부모 세대 인터뷰를 통해,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진로와 결혼 등에 관여하는 방식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부모세대의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징은 〈표 Ⅲ-4〉와 같다.

표 III-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세대 연구대상자

번호	성별	연령	부모 거주지	자녀 거주지	자녀연령 및 성별	자녀 취업상황	특징
13	남	1966년생 (만45세)	제주	프랑스	남/ 22세	대학재학	프랑스 유학중, 가치관 차이는 세대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개인차이
14	여	1959년생 (만52세)	경기	동거	남/ 20대후반	대학졸업 (유학생) 공익근무중	외국인 여자친구에게도 관대함. 그래도 여전히 성역할 구분
15	여	1964년생 (만47세)	경기	서울 (동거)	여/ 20대전반	대학재학 (경원대)	임용고시 준비중인 자녀. 미술전공. 자녀가 독립하길 원함.
16	여	1961년생 (만50세)	-	경기 (동거)	여/25세	대학졸업 (고대 철학과)	취업준비중. 방송작가 희망.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음.
34	여	1964년생 (만47세)	서울	동거	여/20대초	대학재학	자녀 로스쿨 진학 고려 중
35	여	1964년생 (만47세)	서울	동거	여,쌍둥이/ 20대 초	대학재학	자녀 미국 어학연수 중
36	여	1964년생 (만 47세)	경남 거제	비동거	아들 (1990년생) 아들 (1993년생)	대학재학 고등학교재학	
37	여	1964년생 (만 47세)	경기	동거	딸(1991년생)	대학재학	

제 4 장

연구결과

1. 특징적 개념
2. 유형분석
3. 성인기 이행전략의 젠더 차이

제 4 장 연구 결과

1. 특징적 개념

1) 성인기 접어들

표 IV-1 성인기 접어들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	주민등록증 발급 음주, 흡연 가능 연령 운전면허증 발급		법적 인정	성인기 접어들
여				
남	고교 졸업, 대학졸업 등 사건을 계기로 진로에 대한 고민	군대	제도 전환기 경험	
여		남성에 비해 이른 사회진출		
남	책임의식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역전		사회적 인정과 기대	
여				

(1) 법적 인정과 ‘성인’ 으로서 인식

‘성인’ 으로서 인식함에 있어서 법적 규정은 청소년과 성인을 경계 짓는 일차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활용하여 성인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즉, ‘주민등록증 발급’, ‘음주가능 나이’, ‘운전면허증’ 등 특정 나이 이후에 갖게 되는 법적 자격을 성인됨의 증표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표들에 대한 언급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등학교 졸업이 성인으로서의 의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그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성인이 되었다고는 인지하지 못했다. 성인에 대한 의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이들’ 으로 여기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의 연장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학생은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사실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되었으니까’ 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더 큰,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뭐하고 싶다 뭐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더 이상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나이일 것만 같았지만, 막상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이란 거는 그냥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것’ 에 불과한 거잖아요.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아, 난 성인이 됐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막상 대학에 와서도 아직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 면접자23(남, 만26세)

면접자23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진로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응답할 때에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기 보다는 막연하게 어른이라고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주민등록 발급과 같은 법적 인정체계 이외에도 음주, 흡연, 운전과 같이 특정한 시기 이후 수행가능한 문화적 활동 내용 역시 성인으로 접어듦의 상징적 증표로서 참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청년기하고 성인기하고 다른 게 뭘까요? (A : 으음)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구분하는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법적인 것만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추구하는 거 같아요. 우선 성인이 됐다고 하면 스무 살짜리들은 자신감이 생기죠. 나는 다 할 수 있다. 술도 살 수 있고, 담배도 살 수 있다. 그게 끝인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라 불리고 청년이라 불리지 성인이라 불리지 않거든요, 요새?

－ 면접자18(남, 만27세)

면접자 18의 진술내용과 볼 수 있듯이, 특정한 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전환됨은 청소년을 넘어 청년으로 범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표식들이며, 연구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법적 구획을 기준삼아 성인됨을 정의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능한 / 불가능한 나이’ 라는 부정적 구분은 성인으로 인지함에 있어서 불충분한 조건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면접자 18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으로서 이행’ 을 진술할 때 ‘성인’ 과는 다른 ‘청년’ 이란 문화적 범주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성인’ 되기는 ‘성취완료적’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고 있었다.

(2)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 제도 전환기 경험의 성별 차이

일률적이고 훈육적인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20대 청년들은 성인기로 이행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는 자신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즉,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제도 이행을 경험하며 20대는 ‘성인되기’ 를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의 졸업이나 주민등록증의 발급으로 본인이 성인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은 그저 나이들에 대한 증표일 뿐이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행동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외에는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고등학교의 졸업은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면서 학생 신분의 연장으로 여전히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졸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른’ 이기에 앞서서 그냥 대학, 또 다른 학업 연장의 시작이구나. 이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고.

- 면접자1(남, 만25세)

대학생 됐다고 했을 때 막상 “아 나 이제 성인이다.” 이런 느낌은 글썽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 내가 이제 좀 진짜 어른이라고 느끼게 된 그 나이는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가서야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됐으니까 이제 좀 그냥 자유로워졌다. 이런 느낌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 면접자17(여, 만28세)

근데 꼭 그런 식으로 마약처럼 사회적인 인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권 안에서 은근슬쩍 생겨나는 생활규범이나 문화규범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물론 대학생에서 직장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특히 저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았다가 갑자기 대학교 오니까 저는 정말 학교에서 핸드폰도 못 갖고 다니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니까 대학교 오면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열려 있는 자유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는 분명히 그 시기에 했었던 것 같아요.

- 면접자19(여, 만27세)

이처럼 제도 이행기 과정에서 ‘졸업’, ‘성인식’ 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과 같은 법적인 증표보다도 성인으로서의 인식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입학은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청소년은 관리와 훈육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대학만 들어가면 자유다’ 라는 언설에서 볼 수 있듯이 ‘~에 대한 금기’ 로 채워지는 일상에서 대학교 입학은 스스로 일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고등학교 교육의 수동적인 훈육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책임’ 과 ‘자율성’ 이 강조되는 대학 교육 제도로 전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감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특히, ‘대학 졸업’ 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교육시스템을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과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성인기 이행의 과정을 구획 짓는 보다 상징적인 표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 이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뭔가 ‘자유’ 를 획득한 것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나이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뭔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 면접자28(남, 만25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잘못, 엄청나게 큰 잘못이 아닌 이상은 다 용인

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나이를 먹어서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아 넌 어리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나잇값 못한다고 말을 하지. 그렇게 보면 분명 어른은 어른이 맞는 것 같아요.

－ 면접자1(남, 만 25세)

졸업과 같은 사건을 통해 독립의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20대 남녀 모두가 겪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젠더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제도 전환기 경험에 있어서 남녀가 느끼는 세부적인 내용은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는 이후 생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제도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진입 나이의 차이는 남녀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남성의 ‘군입대’는 시기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대 경험은 단순히 노동시장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전략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A : 군대란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앞으로 군에 가서야 하는데.

B : 처음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 군대라는 의미는 가기 싫다. 힘들 것 뻔히 보인다. 왜 가야하나? 어떻게 뺄 수 있으면 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유학생생활 하면서 계속 군대를 미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이 군대라는 카드가 정말 중요한 카드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한테. 시간이라는 게,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군대 때문에. 그래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뭔가 좀, 뜻 깊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냥 힘들다기 보단 좀,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면접자7(남, 만27세)

외국에서 유학중인 면접자7은 학업성취의 어려움과 이후 직업 선택의 어려움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군입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20대 남성들은 군대 의무가 지위집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고 이해되고 있긴 하지만, 남성면접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극대화되고 청년실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면서 군복무 기간을 생애 전략의 한 방식으로 포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즉, ‘군대 카드’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에게 군대는 불투명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전 생각을

정리할 여유, 혹은 생애 전략 구상을 위한 유예된 시간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B : 나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남성은 군대를 2년 정도 갔다 오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이는 많은데 대학을 다니고, 그 친구도 분명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동안 놀았던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인턴십을 했고 어학연수를 갔다 왔고, 자기 계발을 해서 낭비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다, 라는 그런 부담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자는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20대 중반이면 ‘썩인다.’ 라는 표현을 많이, 20대 여성에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남성은 그런 게 없잖아요. 20대가 되도 30대가 되도 좀 부담이 없는... 직장을 신입사원으로 들어감에 있어서도 나이가 좀, 여성이 나이가 많을 때 사회에서 신규로 신입사원을 받을 때 여성의 나이가 많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먹고 있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많이 사실 하는 편이에요.

- 면접자1(남, 만25세)

주민등록증이 나왔을 때는 사실,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아직 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른이구나 싶어서. 어른이 되기 싫은 마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늦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었어요.

요즘은, 대학 때 진로를 좀 일찍 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학 졸업 할 때도 약간 진로가 갈팡질팡 했거든요. 대학을 들어갈 때 제가 좀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해야지, 마케팅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 해봐야지, 하는 등의 막연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저희 학과 특성상 2, 3학년 때 교환학생을 다녀오거든요. 저도 3학년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 졸업할 시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들어오니깐 4학년 2학기였죠. 게다가 복수전공까지 하고 있어서 그걸 하려면 (졸업을) 한 학기 더 늦춰야 했어요. 그래서 ‘덜컥 다가왔구나’ 이런 느낌과 함께, 그런데 아직 복수전공이 있으니까 한 학기는 늦출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면접자 24(여, 26세)

남성면접자 1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른 사회 진출에 대한 부담 과

나이듦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군대’와 같은 공식적인 단절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대학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곧바로 진입해야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생애주기의 시간성을 염두 해두며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면접자 24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라는 변수가 없는 대학 내 여성들의 경우 사회 진출 전에 ‘휴학’, ‘졸업 연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유예된 시간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된 시간은 경쟁적인 취업 구도에서 단절된 휴지기로서 의미를 갖기 보다는 ‘스펙 쌓기’와 같은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과의 지속적인 연결 속에서 여성들은 나이에 대한 압박을 갖게 되고 더 바쁜 일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 능력, 해외체험 쌓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기계발 욕구를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대학 내 교환학생 비율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사회적 인정과 기대

성인으로 이행에 있어서 ‘법적 인정’, ‘제도적 변환기의 체감’ 이외에도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발휘되는 ‘사회적 인정’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성인으로 위치짓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가 성인으로 인식하기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서사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관계망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 같은 연장자로부터 인정을 ‘성인됨’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부모님이 성인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사회에서도 성인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청소년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미숙한’ 성인으로 놓게 만들며, 성인됨의 의식 자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듯 보였다.

개인적으로 생활을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른 넘어야지만 사실 제가 사회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서는 아직도 나를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가 서른은 넘어야 능력이나 이런 걸로 존중받지 지금은,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너는 아직 어린 존재다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도 분명 (작용을 하는 거 같아요).

— 면접자 19(여, 만27세)

술 마시고 하는 거 보면 성인이죠. (웃음) 아직은 책임질 개인적인 재산이나 능력은 없으니까 부모님 앞에서 말하기는 부끄럽죠. 우선 민법에서 말하는, 요번에 2011년 2월에 바뀌었지만 만 20세 이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정신도 되어야 되겠죠? 정신 제대로 박힌 성인. 사회적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야죠. 스무 살짜리가. 어디 가서도 누가 성인이라고 대접해 주지는 않잖아요.

– 면접자18(남, 만 27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인대접 해주지 않음’ 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이행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선회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스스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이만 많을 뿐 스스로의 판단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20대 중반은 되어야 성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성인됨의 척도로서 ‘관계와 사회의 인정 체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경우, ‘책임감’에 대한 개념 역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때의 책임감은 다소 소극적인 방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성인에 대한 전제조건은 ‘책임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대학생이 느끼는 사회적 책임감은 없었고 사회 역시 이들에게 아직까지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짐 지워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이라는 건, 대학생들은 제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공부를 하고 물론 나이는 뭐 우리나라 원칙 상 18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성인의 어떤 그런 권리라든가 그걸 주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아니면 어느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면접자 20(남, 만27세)

단순히, 나이만 찼다고 생각하면 정해진 기준이 스무 살이고 만 18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의사결정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판단하는 게, 아직까지는, 판단기준으로 본다면 성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성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게 성인인데, 아직 한 20대 중반까지는 성인이

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나이를 통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구나, 밑에 애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아, 이제 나도 나이가 정말 들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질 수도 있죠.

솔직히, 고등학교 때 졸업했을 때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아 성인이다!” 진짜 이렇게 느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 때는 정말 좋았는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서는 “하.. 큰일 났다.”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이 준비를 할 텐데,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때는 정말 기쁘고 활기가 넘쳤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는 약간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 면접자 23(남, 만26세)

대학 졸업할 때쯤에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 자취생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웃음) 빨리 취업을, 그것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 원을 가면 이걸 2년을 더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죠.

-면접자 27(남, 만26세)

이처럼 많은 응답자들은 생물학적인 나이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이에 따른 책임감을 다소 피상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은 대학 진학으로 연장되면서 학생신분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뿐,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된다는 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학생으로서 자유와 자율을 획득했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다시 ‘취업준비생’ 으로서 일상을 재조직해야하는 과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으로서 정체성은 성인으로서 인식함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제도적으로 성인이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이며 학생신분을 벗어나야 성인으로의 책임감을 느끼고 고민하는 듯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완전한 성인’ 이 되기 전 대학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청년’으로 범주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 단계와 ‘과정의 개념’으로서 ‘청년은 ‘완성’ 을 의미하는 ‘성인’ 과는 일정부분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성인의 개념을 주로 ‘책임감’ 과 ‘의무감’ 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 스스로가 성인이 되었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 : 경제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분리가 될 수 있어야 어른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B : 네. 어른이 되야겠다. 어른이 되야지 누가 안 갖잖아요. 살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거니까.

A : 아니면 영원히 안 되든지.

B : 그렇죠(웃음). 영원히 안되면 어때요 뭐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자기 인생이지 뭐. 안됐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사람 각자 다른데.

A : 그럼 결혼을 했더라도 어른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B :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A :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B : 부모님 집에 살면서 엄마, 엄마 마마보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

- 면접자 7(남, 만27세)

A : 그리고 보면 결혼자체가 어른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되게 쉬운 잣대인 것 같아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결혼 했어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사람들 있어요. 있긴 한데 근데 또 결혼하면 어른이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간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게 결혼인 거 같아요.

- 면접자 32(여, 만27세)

성인됨을 ‘독립’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경제적 독립 이외에도 ‘정신적인 독립’을 성인됨의 주요한 과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자 7과 면접자 32는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구분 짓고 있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결혼이나 주거 분리와 같은 물적인 독립이 ‘성인’ 혹은 ‘어른’으로서 성숙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여성면접자 32는 성인으로 독립이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했는데, 결혼 후 부모와 인접해 살면서 아이를 맡기거나 물질적인 보조를 받는 예를 들었다. 즉, 통상적으로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만, 가사노동이나 육아,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보조 등을 통해 결혼 전과는 다른 차원의 결속관계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됨의 요건에서 결혼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을 뿐이며, 성인으로의 이행은 ‘주체성’, ‘정신적 성숙’과 같은 내면적 가치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역전된 경험을 함으로써 성인됨을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봐야 하는 존재로 환기하는

것은 자신의 ‘성숙함’ 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부모님한테도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깊이 있게는 생각을 많이 못해봤었는데요. 이제는 부모님이 저...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저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따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아직 부모님 곁에서 아직 못 떠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좀 많이 찾는 편이고. 오히려 통화를 하시면 부산으로 내려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줘. 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 면접자2(여, 만27세)

B : 이제 점점 부모님들도 나이가 있으시고. 부모님이, 네가 능력이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너를 이정도 키운 것도 키운 것만 해도 부모님으로서의 일을,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가 능력이 되면 아이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해라.” 그 말씀하셨을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를 내치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맹수로 보자면 호랑이가 마치 아이들을 내보내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냥 2,30만 원 밖에. 그래서 점점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고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렸을 때 잘 까먹으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 부모님들도 많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만큼 내가 이제 좀 혼자서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알아보더라도 같이 알아봤었는데 내가 혼자서 알아봐야 되고. 내가 이제 내 배우자가 생기면 또 배우자랑 같이 해나가야 하는 일이고. 그분들이 더 힘이 없어지면 내가 이제 그분들을, 여태까지 받았던 어떤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면접자20(남, 만27세)

여성면접자 2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보살핌에 있어서 관계가 역전되는 경험, 즉, 의존적

존재에서, 비록 심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돌보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성인임을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 세대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인 능력이 이전과는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남성면접자 20과 같이, 부모를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봄의 주체로서 느끼게 되는 경험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독립 의지를 성취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인됨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 부모의 영향

표 IV-2 부모의 영향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	등록금, 용돈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영향
여				
남	취업과 진로에 관여 주거 독립에 관여	부모의 주거독립에 관용적 태도로 독립욕구 상대적으로 낮음	부모의 구속	
여		부모의 주거독립에 비관용적 태도로 독립욕구 상대적으로 강함		
남	자녀의 의견과 자립 의지 지지와 자녀 통제 욕구 사이의 갈등		독립에 대한 부모의 양가적 태도	
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종종 암묵적인 계약관계로 생각되었다.(Bengton, 1993; Brinton, 1988; Ben-Porath, 1980; Greenhalgh, 1985; 이미정, 1998) 경제학자 게리 벡커(Gary Becker, 1981)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행위를 ‘이타적 부모상’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의 행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타적이며,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서 자녀가 행복해지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하게 된다(Schultz, 1973; 이미정, 1998)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것으로 그린하(Greenhalgh, 1985)는 ‘이기적인 부모’를 제시했는데, 이타적인 부모와 달리 이기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들인 것만큼 자녀로부터 뽑아내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

두 가지 개념의 혼합한 것으로 ‘조건부로서 이타적인 부모(Conditionally Altruistic Parents)’는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타적이지만, 자녀로부터의 관심을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부모 면접자들은 ‘조건부로서 이타적인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성인이행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지원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과정인지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자녀 지원의 범위를 조절하고 있었다.

청년 연구대상자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임에도 계속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주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많았고, 학교 공부 이외에 취업 관련 공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진로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녀를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부모의 테두리 안에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이러한 부모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원하고 있었으나, 현실적 조건들 때문에 독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주거적으로도 부모가 독립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주거독립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 자녀에 대한 반대가 더욱 심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거독립이 비교적 쉬웠으나 여성은 위험하다는 생각 하에 부모가 주거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다.

(1) 부모의 경제적 지원

파트타임 노동을 하며 임시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연구 대상자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꾸준한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20대 청년들은 ‘학생’으로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부담’으로 부모의 지원을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요즘에 드는 생각이요, 제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회에 대한 경쟁이나 의욕, 승부욕 같은 게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공부하라면 공부할 시간 자체는 많은데, 그 시간을 다 쓰.. 공부에 쓰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그 의욕이 좀 덜 생긴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번엔 여름방학 땀 다른 데.. 뭐 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

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독립하려고요.

– 면접자 3(남, 만24세)

면접자3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취업에 대한 경쟁이나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 반면 그로 인해서 절박함이나 어려움이 없기에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그 시간을 공부하는데 모두 활용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부모의존적인 태도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는 백수라서.(웃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부담스럽게 주셨던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데, 부모님이 제게 기대를 많이 하셨었구나 하고, 어른이 되니까 알게 되었어요. 정말 투자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것저것 정말 아끼지 않고. 가족들끼리 농담으로 저는 정말 돈 덩어리라고.

대학 때는 시간 여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5번씩 외국을 다녀왔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언어연수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부모님이 많이 보내주셨고요. 가족여행도 해외로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돈 많이 안내고 당연히 부모님이 다 부담해 주셨는데. 그런걸 보면 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투자를 많이 해 주셨어요, 진짜. 제가 재수를 할 때도 너무 비싼 수학 과외 선생을 붙여 주려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안 하겠다고(할 정도로).

그런 것도 부담 정말 안 주셨어요. 지금 말하면서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면접자 24의 경우에는 부모의 전적인 경제적 지원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음을 응답했다. 대학 재학 당시에도 해외여행까지 모두 부담해 주실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원을 받아왔고, 취업을 못한 현재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감사함과 죄송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듯 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지원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불가피한 상황적 맥락으로만 해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 혹은 생애 전략 선택의 부분적인 관여를 하며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면접자 24가 언급하고 있듯이 물질적인 지원은 ‘돌봄 의무와 책임’의 의미보다는 ‘투자’나 ‘부모의 기대’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등록금 지원 이외에도 학원비, 어학연수, 유학 경비 등과

같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부모로서 의무감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의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모의 물질적인 지원이 부모의 통제권 행사를 목적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 지원이 발휘하는 효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의식적 통제 욕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효과는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으로 강하게 느끼거나, ‘부모님을 만족시켜야 한다’ 는 심적 부담이 강해지는 것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2) 부모의 구속

경제적인 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행사되는 부모의 구속은 때로는 자녀의 성인됨을 불인정하거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의존이 부모의 구속과 연결되는 방식은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관여하는 것에서부터 진로 선택에 있어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B : 저는 대학 와서 한 1년 정도만 받아서 쓰고 그 뒤부터는 제가 다 벌어서 써서...

A : 원래부터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B : 돈을 받으면 약간 통제된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있어서 벌고 싶고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A : 혹시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B : 남동생 있어요.

A : 남동생은 자기가 벌어서?

B : 남동생은 저랑 상황이 달라서 개는 대전에서 다녀서 개는 받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A : 멀리 있어도 받을 수 있잖아요.

B :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통제된다는.. 무슨 얘기를 하면, 돈을 받으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싫어서.. (A : 통제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진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모님과) 다르니까.. 취업을 하거나 일단 공부를 계속 하는 거 자체도 느끼시고 또 네 뭐 정말 작게는 학교에 학부 다닐 때에는 교직 이수를 해라 이런 거부터 되게 달라서..

- 면접자 31(여, 만27세)

여성면접자 31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학업, 진로 결정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을 ‘구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대학 입학 이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왔다고 한다. 면접자 31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면접자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등록금, 전세 임대료 같이 목돈이 드는 항목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지만, 생활비나 용돈 등과 같이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비용은 개인이 충당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일단 집에서 부모님들은 저를 제 생각보다도 더... 성인으로 덜 보시는 거 같아요. 약간. 대학교 때부터, 성인이 돼서부터, 성인 대접을 안 해줬다기 보다는, 서양에서는 스무 살 넘으면 부모님이 손을 놓으시는 타입인데 우리집은 계속 태두리 안에 두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은 그러시는 거 같고요.

－ 면접자 5(남, 만28세)

제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뭘 의견을 내더라도 제가 돈을 내고라도 의견을 표현하는데 경제적인 건 아버지가 부담하시고 제 의견을 내는 거니까. 보통 아버지 의견대로 따라가게 되죠.

－ 면접자 18(남, 만27세)

이처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곧바로 자녀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의미된다. 연구대상자들은 경제적 의존을 부모에게 예측됨을 인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성인이 되지 못함, 미성숙함을 표상하는 가장 큰 여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자녀가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다. 진로나 취업에 있어서도 관여하는 부분이 많았고, 응답자들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때문에 이러한 관여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부모님들 역시 자신들이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간섭에 당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부모님들의 관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으며 부딪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직장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직장을 제가 찾아 가고 싶은데 엄마는 그냥 무조건 “네가 잘 안되니까 공무원 시험 쳐” 이런 식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로 부딪치게 되잖아요.

-면접자 19(여, 만27세)

앞서 진술한 여성면접자 31과 여성면접자 19의 진술처럼, 자녀의 진로 선택에 부모가 관여하는 방식은 특정 직종을 강하게 권유하는 방식을 보인다. 특히, 여성면접자들의 경우 부모님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직업을 표상하는 ‘교직’이나 ‘공무원’을 권하고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부모의 의견과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부모와의 의견 충돌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구속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심화되는 듯 보였다.

A : 집에서는 그럼 부모님들이 본인 취업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대가 있으신 편인가요?

B : 사실 집에서 지원을 받았던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요를 하셨거든요. 뭐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돈을 먼저 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좀 먼저 대학원을 가서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부모님은 대학원을 가면 집에서 조금, 좀 제 생각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대학원생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도 그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 약간 휘둘리는 분위기였는데, 집에서 뭐 취업, 취업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 반항을 하거나 제가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용돈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부모님을 따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자유롭게, 제가 학교도 끝났고 제가 자유롭게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집에서도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방도 내가 잡아놔고 9월에 용돈 안 받아도 되고 9월에 뭔가를 할 거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는 뜻을 존중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돈을 안 달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면접자2(여, 만27세)

여성면접자2는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고 있었다. 면접자2는 부모님의

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간섭을 받아들이고, 의견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구속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들의 태도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자녀의 경제적인 의존도와 부모의 간섭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면접자들은 부모가 취업과 진로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구속의 차원으로만 여기고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는데,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이들 부모를 멘토로서 인식하기도 했다.

A : 아까 부모님의 기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서 부모님은 그런 스트레스를 더해 주시거나 아니면 덜어 주시거나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B : 어머니는 저,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지지해주시는 성향이세요. 좀 갈리는 면이 있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 중학생 때부터 되게 제 학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되게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제 대학 성적과 관련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세요.(웃음) 이번에는 장학금을 받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업은 A네, 어떤 수업은 B네, 이런 것 되게 관심이. 그러니까 다른 집안에 비해서 저희 아버지가 유독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데, 관심이 많다고보다는 제 학업과, 성적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아버지가 더러 주시는 편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그런 자제들이 좋은 데 취직을 하게 되면 그걸 전혀 거르지 않고 저에게, 더 포장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이 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일종의 면역력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말씀도 해주시지만 충분히 힘도 주시거든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 자체가 더 저를 잘되게 하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이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과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우리 아버지는 조금 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되레 부담이라기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면접자 1(남, 만25세)

남성면접자 1은 자신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고 했다. 면접자 1은 경제와 주거적인 부분 모두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학업과 진로문제에 부모님의 관여가 적극적인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면접자 1에게는 그러한 관여가 ‘구속’으로 개념화되지는 않았다. 면접자 1 이외에도 부모를 ‘구속하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멘토’로서 인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권위적이기 보다는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즉,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서 부모의 관여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주거 독립’에 대한 부모의 구속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데, ‘주거 독립’에 있어서 부모의 구속 정도는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종종 20대에게 주거 공간 분리는 부모와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부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집 값 상승’ 같은 문제가 구조화됨에 따라 청년 세대의 주거독립은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연구참여자들 중 스스로 주거 공간 비용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주거공간 분리를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면접자들은 부모로부터 독립 의지를 남성면접자들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고등학교를 타 지역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살다 보니까... 해서 주택적인 독립 문제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군 문제부터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집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택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어려서부터 충분히 독립을 했기 때문에. 또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2년 정도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잖아요?

- 면접자8(남, 만25세)

남성들에게 부모로부터 공간적 분리는 ‘금지에 대한 저항’ 혹은 ‘독립에의 강한 욕구’로서 발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남성면접자 1의 진술처럼, 비록 임시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군입대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에게 있어서 거주 공간 분리는 설득과 협상 의지를 발휘해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경험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공간적인 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독립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야만 실현가능한 경우가 많다.

B : 사실 저는 독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나와서 오피스텔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부모님께서 너무 반대를 하시고 계속 이제 혼자 나가서 사니까...

A : 누가 제일 반대를 하셨어요?

B :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사실 독립은 나와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막 계속 저 없을 때는 오피스텔에 계속 오시고 주말마다 저도 꼭 집에 가야하고... 사실 독립이 독립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러느니 그냥 들어가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A : 근데 지금 이제 이후에 독립은... 이전에 했던 독립과 어떻게 달라요?

B :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랑 이렇게 쫌 넓은 이게 아파트나 공간을 갖게 되면 부모님 걱정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해요.

A : 그럼 어떤 지점에 고민이 덜 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이전에도 오피스텔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후에 독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걱정을 덜 하실 건지 궁금해서.

B : 사실 이제 나가는데 사실 이제 나가... 돈을 마련해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나가면 내가 간섭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 그 간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아직 안 나가서 딱히 대답을 못 드리겠어요.

A :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니까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건가요?

B : 두 번째, 첫 번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정... 그 때 나왔을 때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라 조금 더 위험한...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위험한...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졌으니까 그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주거를 찾고 그러다보면 간섭이 조금 덜해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요.

A : 그럼 그때 오피스텔에 나와 계실 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B :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이 범죄에 온상이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신 것 같아요.

A : 혹시나 다칠까봐? 그런 부분을 염려하셨군요. 본인은 그때 오피스텔 생활할 때 어땠어요?

B : 좋았어요.(웃음) 아무래도 잔소리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족이랑 같이...

사실 저는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해요. 즐겁지는 않아요. 불편하지만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시간을 안 할애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 면접자 10(여, 만29세)

B :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더 이상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을 때에 어른으로서의 그런, 근데 여성,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자 친구들이나 주변의 여성들이 좀..., 여자들은 독립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대학생활 보면 먼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있게 되는데, 부모님의 울타리로부터 주거적으로 독립했을 때 여성들은 좀, 어른으로 느끼는 것 같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경제적 독립이 좀 더..., 왜냐면, 남성은 그런 주거적인 독립을 되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들은 있는 거 같아요.

- 면접자 1(남, 만25세)

여성들 역시 대학교 입학을 통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공간적 분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거주 공간 분리는 여성면접자 10의 경우처럼 ‘선언’ 과 적극적인 ‘의지’ 를 표명하며 설득해야하는 문제로 상정되었다. 면접자10은 어린 시절 유학생활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지낸 경험이 있었고, 독립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드러냈다. 현재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학원 강사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주거 독립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성들은 주거 독립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20대 여성이 부모와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주거 독립의 명분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지역으로 대학 입학을 하여 불가피하게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공간을 분리하는 경우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지냈던 면접자10이 부모의 반대로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이때 부모의 반대 이유는 ‘안전’ 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뉴스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이러한 정보의 확산은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담론을 만들어낸다. ‘오피스텔’ 이 아닌 ‘아파트’ 로 독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가 덜 할 것이라

고 기대하는 면접자¹⁰의 진술은 이를 반영한다.

다른 여성면접자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거주 공간 분리를 이루지 못한 여성면접자들은 결혼을 공간적 독립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연스러운’ 공간 분리 경험은 ‘결혼’ 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3) 독립에 대한 부모의 양가적 태도

대부분의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우선 독립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만 본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생각에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간섭을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도 취업이 가장 우선시 되는 목표가 되고 있었다. 부모님의 지원을 부담스러워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독립을 한 이후에 어려운 취업 상황을 맞기 보다는 취업까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돈이 중요하긴 하죠, 사는 데.(웃음) 돈이 있어야 사는 건데, 그게 없으면 부모님께 기대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갈수록 취업 같은 게 어려워지고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는 만큼 교육은 이 만큼 시켜야 한다’ 이런 게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죠. 만약에 그냥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면 그리고 그럴 여건이 된다면 다들 뭐 대학 안가고 빨리 독립해서 예전 어느 외국 사례 그런 게 되겠죠.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게 더 경쟁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난가 싶어요. 빨리 독립을 할수록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은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 면접자 27(남, 만26세)

남성면접자 27은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을 경쟁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자녀 지원은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자립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었다. ‘빨리 독립할수록 더 불리할 수 있다’ 는 말은 학업 성취나 취업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독립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 면접자들 역시 자녀의 독립에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자녀의 독립을 원하고 독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녀의 미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B : 네. 아이들한테 그 애긴 안했지만, 만약에 얼마간에 돈이 든다면 그거를 자기가 결혼하는 데 투자해서 가든, 아님 독립하는 데 투자해서 가든, 저는 분명히 부모로서의 그걸 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A : 아버님도 혹시 어머님의 그런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하시나요?

B : 반 정도는. 저희 남편은 저보다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좀 내보내는, 그러니까 멀리 내보낼 생각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가까운데 내보낼 생각이야. 아마 개네들이 독립은 해도 밥은 얻어먹으러 저희 집에 맨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웃음)

A :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독립을 시켜서 생활을 해보게 하고 싶으신 거죠?

B : 약간은 보조는 해도 지원을 100%해 줄 생각은 없어요.

A : 어떤 면에서요?

B :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이 많고, 끝없이, 그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문제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모한테 저희도 상속을 많이 받은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을 끝없이 지원을 했을 경우, 저희가 너무 오래 살면 나중에 진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살아서 미안하다고 어디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까봐, 그 부분은 제가 아이들에게 끝까지 저를 책임져 달라고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면접자15(어머니, 만47세)

부모면접자 15는 동경대 졸업 후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남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상태를 자녀의 독립으로 보고 있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매니저 어머니’ 로서 역할을 해오다가 아들이 국비유학을 가서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자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자녀와 분리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면접자15의 진술과 같이, 부모들 역시 지속적인 자녀 지원이 어느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끝까지 저를 책임져달라고 할 생각이 없다는’ 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은 ‘노후에 대한 대비와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는 산업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족의 자원을 배분할 때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Parish & Willis, 1993; Brinton, 1998; 이미정, 1998). 그러나 한국 사회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격한 재편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제도는 민영화되고 상품화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사적화로 인해, 한국의 부모세대는 불투명한 노년의 삶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지원의 가능한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안전망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자녀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B : 왜냐면 저는 본인들이 내가 터치를 많이 안 하는 대신 그만큼 본인들이 본인의 몫을, 인생을, 알아서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똑같이 이렇게 시소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많이 애들을 보조를 한다면 그 만큼 내가 많이 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응원을 하는 대신, 그 만큼 터치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어느 정도의 방향은 잡아 줬으니까. 그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자기네들이 져야죠. 젊었을 때에는.

A : 한 마디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생활수준에 맞춰서 알아서.

B :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A : 그런데 요즘 그렇게 살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주변에 다른 어머님들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나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B : 음..., 가끔 하는데. 엄마들도 의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나도 기대지 않고 너희들도 독립하고. 예. 어느 정도 자라면 좀 그렇게 많이 (2초).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를. 제 주변은 좀 그렇더라고요

- 면접자16(어머니, 만50세)

A :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뭐라그러지 자기 주문일수도 있고, 딸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건(학비) 해 주겠다. 공부를 하는.. 로스쿨을 간다거나 거기까진 해주지만 시집을 갈 때 엄청난 경제적인 지원 이건 못한다.

- 면접자35(어머니, 만47세)

부모 면접자 16의 경우, 자녀에게 독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고 있었으며, 부모 지원이 계속적으로 자녀를 ‘터치하게 됨’ 을 인식하고 이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 면접자 35의 경우는 딸이 로스쿨 진학을 원하고 있어서 미래의 커리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학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결혼 비용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딸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와 그 한계를 명시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이후 노후에 대한 안정망을 확보하고 자녀에게 돌봄을 기대하지 않고 자립하기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즉, 이들이 자녀의 독립을 독려하고 지지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

3) 성인 인식에 있어서 장애요인

표 IV-3 성인 인식에 있어 장애요인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경제적 의존에 대한 무력함 결혼, 취업 등 성인으로서 과제 미수행.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좌절. 정신적 미성숙.	불완전한 물질 조건	성인 인식에 있어서 장애요인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 우울증 호소 자존감 하락(패배감, 루저),현실도피	정서적 불안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성인의 범주로 놓이는 것에 대한 저항.	‘성인되기’ 의 두려움과 저항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신들이 성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인 독립’ 이 성인됨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이들은 성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통해 책임감을 가졌을 때 비로소 성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있었다. 불완전한 성인으로서 이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성인됨을 묻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성인기로의 이행이 수월하지 못함’ 을 개인의 신념과 의지로 연결 짓기 보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체계 내의 청년세대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성인으로서 역할 수행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며 ‘성인됨’ 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1) 불완전한 물질 조건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결혼과 취업 등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상정한 것들을 미수행한 자신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언급했다.

현재는 어른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도 용돈을 조금 부모님께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죄송하죠. 부모님한테는.

- 면접자1(남, 만25세)

어른이 된다는 것은.....경제력하고, 정서적인 면에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겠죠. 결정을 내릴 때도 예전에는 “엄마 이걸 어때?” 했다면 성인은 부모님께 이것저것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된 상태겠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독립이 덜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100%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독립도 안되었고요. 정신적으로도가령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아르바이트가 별로인 거 같은데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러시고. 아, 내가 정신적으로 어른이 덜 되었구나 싶었어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이들은 스스로가 성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여전히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도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제도적으로는 오래전에 성인이 되었음에도 본인이 성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직 완벽한 성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직도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이 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된다고는 하지만, 정말 성인이 되는 것은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고 해야 진짜 성인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막막해 질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걸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정말 그때 가서는 결혼의 문제라든가, 직장을 다니는 문제, 돈을 버는 것 등 많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 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면접자28(남, 만25세)

또한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적 감정으로 인해 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제가 고민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른이 된다는 생각은 다룰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간다는 걱정과 두려움과 설렘과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거 같아요. 지금 닥친 현실이 저한테도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 거 같아요.

누구는 삼성 갔는데 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그런 얘기들이 은근히 부담으로 분명히 작용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약간의 장남 콤플렉스 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동생보다는 저에게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럴 땐(졸업 연기 이후에도 취업이 안 될 경우) 정말 엄청난 패배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항상, 좋은 시나리오만 써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한 게 모든지 일 순위만, 좋은 시나리오만, 차선택이란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계속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닥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큰...(스트레스).

- 면접자 1(남, 만25세)

아직 경제적인 독립이 안됐으니까, 취업을 해야 완전히 성인이 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대학원 다니는 것도 학비를 학교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집에서, 생활비 같은 것도 받고 하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할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취업을 선택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직은 저는 좀 멀었다고 생각해요.

- 면접자 27(남, 만26세)

처음에 기대를 너무 높여놨잖아요. 고시준비 한다고.. (A : 네.) 솔직히 그것도 되게 제가 포기하고 취업으로 나가는 데 되게 걸림돌 이에요. 너 그거.. 실패하니까 이제 약간 도망자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 면접자 3(남, 만24세)

학력이 높고 그동안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온 응답자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자3의 경우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시를 그만두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자로 도망치는 것으로 느껴질까 봐 다른 직업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면접자3의 경우는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었음에도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다른 면접자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모님의 간접 영향이 긍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2) 정서적 불안

성인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장애 요인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의존, 주거 독립 미수행과 같은 물적인 사실들만이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물적인 불완전함의 상태는 정서적인 불안을 형성하고 이러한 감정상태는 성인으로서 인식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대의 정서적 불안은 주로 ‘우울’, ‘상대적 박탈감’, ‘폐쇄감’, ‘무기력’ 등으로 채워진다.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행복하고 자존감도 높았다고 응답한 면접자들은 현재에는 매우 불행하고 자신이 루저 같다고 말했다. 우울한 감정을 내비쳤으며 취업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긴 했으나, 이 역시도 불투명했기에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제가 엄청 푸쉬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는 거를 아시니까 일부러 말씀 안하시는 거 같은데...

사회적인,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 적인, 걸 봤을 때 스물아홉 살의 대학생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스물일곱에 취업을 못하면 약간 패배자라는 식의 그런 광고도 있었고... 그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에 비춰 봤을 때 제가 맞지 않으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전까지는 저에 대한 자존감이나 행복감 같은 게 되게 높았었거든요?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행복하다고 대답했었고 자존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한 근래 한 2-3년 동안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크게 없었던 거 같아요. 나이 먹고 제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거? 그런 것도 더욱 스트레스 상황과 맞물려서 더 받게 되고, 그래서 2-3년 동안은 행복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거 같아요.

- 면접자 5(남, 만28세)

너무 대학교 때는 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굉장히 피폐해요. (웃음) 굉장히 피폐하고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루저 같은 기분 있잖아요. 그건 그 졸업하고 나서 취업 자리 알아볼 때도 그랬고 그때부터 “아 나 ** 같아.”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나는 패배자 같아.” 이러면서 계속 농담조로 얘기를 했지만 약간 그때부터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렇게 막 내가 쓴 거 빼앗기고 그러니까 진짜, 아 너무 밑바닥까지 쳤다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좀 약간 마이너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네. 좀 정신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울해요. 네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맨날 되게 웃긴 게 힘들 때마다 ‘아 진짜 힘들다 더 이상 힘들 순 없겠다.’ 이럴 때 꼭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아주 실낱같은 희망(만 있어요).

- 면접자 17(여, 만28세)

면접자들은 공통적으로 우울함, 불행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행복한 사람이었음에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해 자존감이 없어지고, 스스로가 실패자 같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우울하며,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취업 준비 중인 응답자들은 졸업을 하고 소속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집 외에는 갈 곳이 없음에 대해서 초조해 하며 이로 인해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폐쇄적인 성향과 우울함, 불행함의 정서를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직은 별 생각은 없고요. 직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졸업하고) 휴가분하죠. 단지 초조한 건 있죠. 어딘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거. 학생 때는 학교라도 가면 되는데 이제는 갈 곳은 집밖에 없으니까.

- 면접자 18(남, 만27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 자기가 성인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성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확 그런 것들을 받고 싶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내 명함을 내밀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성인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 아닌거죠. 일단 저는 그런 것을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끔씩 되게 심각하게 극도로 불안해할 때도 저는 약간 성인이 되는 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 때 보면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린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나도 직장을 가지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 앞에 되게 당당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야지 내가 만약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는데 내가 직장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나를 되게 부족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이 좀 심한 편이라고 좀 자각을 하게 되가지고요 관련 전공을 한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 조언을 구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무언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같다.’ 그런 인식을 하고 그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겠다. 그게 내가 올바르게 성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길인 것 같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요.

- 면접자 19(여, 만27세)

면접자19는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그만큼 지금까지 성인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취업과 연애, 결혼과 같은 경험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면접자19의 경우 사회적인 인정에 대한 욕망이 계속적으로 좌절되는 경험을 거치면서 자존감이 손상되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면접자 19의 진술처럼 자신을 증명해야한다는 강박, 즉, ‘사회적인 인정’에 대한 강한 욕망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서 작용하며 패배감과 우울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불안한 적도 있었고, 아까처럼 후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이 불안하고 그러면 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해요. 잘 웃고 다니고, 내가 잘 될 거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만 불안하면 뭐 어떡해요. (웃음) 누가 위로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후회가 많이 되요. 다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좀 겁이 더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활동하긴 하고 있는데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갈 수록 겁이 좀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남들 앞에서는 되게 당당한 척 하긴 하는데, 뭔가 아, 이러는 소심한 면이.

우리나라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런 거. 여자 나이 몇인데, 이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 면접자26(여, 만26세)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학교 1, 2 학년 때는 ‘취업이야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뭐 그냥 졸업하면 다 되는 거라고 그런 생각했고. 선배들도 그때까지는 그런 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가서 처음엔 좀 열심히 안하고 나중에 군대 갔다와서 하고 그런, 저희 앞의 선배들도 그랬고. 그런데 갈수록 요즘 애들은 되게 빨리 공부 열심히 하고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밑에 들어온 후배들 보면서 점점 치열해져가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 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것만 봐도 우리보단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점점 생각도 많아지고. 막상 졸업할 때 되고 나니까 그런 진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죠. 지금 아직 졸업 안하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원서 넣는 데 떨어지고 막 이러면... 고민도 많고, 만날 한숨 쉬는 소리밖에 안하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건가?’ 괜히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것들도 생기고. 이렇게 불균형이 심해지고 격차, 빈부 차 생기고 하면 당연히 이게 나중에 불안요소가 되어서 나중에 제가 한참 나이 들어서 미래가 되어서 40, 50세 되었을 때 사회에 무슨 큰 일이 생기진 않을지. 예전에 민주화 운동처럼 시위 같은 게 커지고. 그런 건 좀 빨리 고쳐지고 (해결)되어야 될 텐데 점점 심해지기만 하니까 그런 것 까지 걱정하게 되는 거죠. 당장 제 앞가림해야 되는데 뭐 이런 남의 탓, 사회 탓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런 것까지 하면 스트레스는...

-면접자 27(남, 만26세)

면접자27의 진술처럼 남들의 ‘시선’은 패배감과 우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즉, 능력주의로 경쟁이 과열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논리가 팽배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인 이행의

과제는 계속적인 타인과의 ‘비교’ 대상으로 놓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성인기 이행에 대한 수행 의지를 침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성인되기’의 두려움과 저항

또한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설레임과 동시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회에 나가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이대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솔직히 이대로그가 좋죠. 이대로그가 좋은데, 시간은 이제 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제가 하는 일도 생길 거고, 성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 면접자 23(남, 만26세)

남성면접자 23은 성인이 되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했다. 현재 별로 책임질 것 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지속시키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가능하면 성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이 생기고 성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며 스스로의 성인기 이행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가족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 다루어졌던 쾅거루족(엄마쾅거루 주머니에 들어있는 아기 쾅거루처럼,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20대)의 전형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었다.

약간 사회 나가는 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사회에 바로 나가는 게 무섭다. 근데 역시 또 막상 꺾어보니까 별거 없는 거라고.(웃음) 그래도 고등학생 때처럼 겁을 먹진 않았지만, 만약 좀 더 일찍 진로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면 1년씩 시간 허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취직을 할 걸,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든 빨리빨리 준비해서 알아봐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직면하는 게 두려웠다가 보다도,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나는 공무원을 그래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업 면접도 몇 번 봤었는데 그래도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외무영사) 준비하는 게 걱정되잖아요. 나이도 스물다섯, 스물여섯이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 밑바닥에 약간은 ‘당장 (사회로) 나가는 조

금 무섭다.’ 근데 저는 아마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사회로) 나갔을 거예요.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안 나간거지. 그래도 두려운 마음은 늘 있었어요.

결국 직장이든 학교든 아무 곳에도 적을 두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건 무섭고.

독립이 될 되었어요.(웃음) 경제적으로는 100%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독립도 안 되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이런 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해서 제가 양보를 하지 않지만, 가벼운 선택 같은 것은 (물어보는 편이에요).

마음이 무겁죠(웃음) 많이 무겁죠. 무겁긴 무거운데 암담할 때도 있고요. 시험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요. 불면증도 심했었어요.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것만 보고 달려가자는 생각을 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약간 붕 뜬 기분이에요. 요새는.

- 면접자 24(여, 만26세)

여성면접자 24와 같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느끼는 정서였다. 막상 사회에 발을 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아무래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고 해석되었다.

면접자들 중에는 ‘성인으로 이행’ 과정에 대한 질문에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금 현실에서 그것의 성취가 가능하냐고 반문하며 ‘성인됨의 과제’ 자체에 대해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취업’, ‘경제적 독립’, ‘주거의 독립’, ‘결혼을 통한 독립’ 등 성인됨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성인됨’에 대한 이해는 변할 수밖에 없으며, 성인 이행을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 : 뭔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돈이나 뭐 어떤 그런 거는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그냥 어떤 시점에 가서 중요한 건 마인드인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은 거의 주변에 20~30대 친구들을 보면 아무도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이 없다는 게 미숙함이나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요즘 느끼는 요즘의 분위기는 정말 힘든 20~30대들 서로서로 다들 조금씩 위로해주면서 다들 견디는 분위기..가 되게 많고 어른들은 대개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섞어서 어떤 비난을 하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좀 진짜 어른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하이킥에 얼마 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런 거..

B : 들으면 전 20-30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많았거든요.

A : 그 때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어떤 헤쳐나갈 수 없는..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 많이 박탈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런 하이퀄리티의 인재들이 150만원 100만원 받으면서 그나마 그 자리도 못 가고, 이진, 이진 정말 재앙인 것 같고 그 때 어려움하고 지금 어려움은 층위가 다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지켜봐줄 수 있는 시선 자체가 부모들한테도 많이 없는 분들이 많고 분위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A : 희망이 있을까요?

B : 보: 그냥 정말. 서로 조금씩 그냥 위로를 해주면서 약간 견딘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지.. 뭐 어디를 보고 뛰어야지, 라던지 어디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던지 그런 거 자체가 많이 상실됐고.. 그게 더 불행한 것 같고 사실은...

- 면접자 31(여, 만27세)

여성면접자 31은 성인됨에 대한 물음에 강한 회의를 표현한 연구참여자 중 하나였는데,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전 세대의 어려움과는 비교될 수 없으며 ‘성인됨’에 대한 다른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회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극대화되고 사회적 안정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취 중심적’ 개념으로서 20대의 성인됨을 묻기보다는 그 불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면접자 31은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른됨이라면 그 어른됨을 계속적으로 유예하고 싶다’고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어른됨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A : 진정한 의미에서 성인이 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B : 음..... 사회 구조적인 게 가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어떤 교육정책상 뭐 좀 약간 객관식을 이렇게, 1번 5번 중에 찍, 하나의 정답만 하게끔 되어 있고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공부만 하지 진짜. 자기 자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건 여행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호주에서 나의 정체성을 좀, 조금은 그래도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음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고, 호주는 좀 편하게 그냥 즐기면

서, 아 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뜨는 거니까, 그때그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즐기고 저축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되게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카페는 “어 제가 지금 몇 살인데 몇 억을 모았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이미 웃기잖아요. 자기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하는 그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도 마찬가지. 아 내가 지금 성인이면 이게 그냥 성인이지만, 아까 진정한 의미의 성인은 제가 아까 책임과 권리를 동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 면접자 20(남, 만27세)

남성면접자 20 역시, 한국사회에 성인됨의 의미가 ‘과정 중심적’ 이기보다는 ‘목적 지향적인’ 방식으로 상정됨을 비판하고 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며 호주의 삶을 관찰하고 한국 청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면접자20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인됨의 과정은 ‘자기 성찰적’이고 ‘자기배려’적인 방식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비교에 과도하게 침윤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성인됨의 의미를 반문하는 것은 삶이 느슨하게 조직될 수 없는 딱딱한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사회적 영향

표 IV-4 사회적 영향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	부모의 가치관과 가족환경 영향. 친구와 선배들을 통한 자극.	전통적 성역할 수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참조집단으로서 친구와 선배 연결망 더 크게 작용.	연결망 영향	사회적 영향
여		전통적 성역할 수용의 거부. 성인 인식에 있어서 부모와 친족연결망 영향 더 크게 작용.		
남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시장 진출에서	가장으로서 역할 수용과 부담	제도적 영향	

여	요구되는 조건. 성인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부응.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성차별적 관행에 순응과 부담		
남		조직 내 선후배 관계에 중요한 가치 부여. 군대 경험		
여	사회 및 조직 경험	선후배 관계 보다 수평적 관계 중심적 경향	사회적 경험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각자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먼저 주변의 친구 연결망의 영향이 강했는데 주변 친구들의 취업 소식에 자극을 받기도 했으며, 패배감을 느끼기도 했고, 극단적으로는 이들의 영향으로 진로가 바뀌기도 했다. 또한 가족 연결망 안에서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가족환경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 간접경험을 통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변의 결혼생활은 보면서 결혼생활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결혼을 미루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취업에 있어서 주변의 영향이 더욱 크게 미치고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생활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자신이 성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독립, 책임감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듯 했다.

(1) 연결망 영향

가. 가족 연결망

응답자들은 주변 연결망 영향중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해 왔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진로와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이나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가사노동과 양육에 있어서 남성면접자들은 부모의 성별분리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며 따르는 경향이 강했고, 여성면접자들은 부모의 고정된 성역할을 수용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생각 하시는 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아버지는 자영업자이지만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느꼈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아버지가 사업이 잘 났을 때는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렸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고 아버지가 사업을 다 정리하시고 실직자시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느끼시는 게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된 그런 회사에 있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도 매우 가족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 구성원이 4인 가족이에요. 저랑 제 밑에 남동생이 한명 있고, 부모님 두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 약 26년을 살아오면서 다른 가족에 비해서 저희 가족이 매우 화목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족의 소중함 이라든지 가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의 의견이 매우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 같은데 배우자가 능력이 있으면 가정에서 남성이 기를 펴지 못 한다... (웃음)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기계 세고 세지 않고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주저 하며) 저는 그런 사실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주변을 봤을 때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이 능력이 없으면 이혼... 확률도 매우 높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 좀... 약간 반감이라 해야 될까?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면접자 1(남, 만25세)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전문직이나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는 거절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진로나 직업이 아닌 만큼 적성에 맞거나 즐거움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였다.

부모님이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좀 갑자기 핵 틀게 된 감이 없지 않아요.

- 면접자6(여, 만25세)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이 어디 뭐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 그러셔가지고 정말 다니기 싫지만 가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갔어요.

- 면접자 17(여, 만28세)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돌아와서 여름방학 때 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께 이야기 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어머니 친구들도 보면, 솔직히 여자들은 공무원, 간호사 이런 거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가 돈을 벌어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뭔가 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거나 더 잘할 수 있고, 시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부모님은 취업을) 했으면 하세요.

- 면접자 26(여, 만26세)

부모 외에도 형제자매의 영향도 받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서 형제자매의 결혼생활을 보고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이상형을 결정하기도 했다.

저희 언니오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대가 많았거든요. 상대방이 환경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해를 못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좀 환경이 좀 비슷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형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형부의) 엄마가 많이 이렇게 조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렇게 자유롭게 여유 있게 산편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의견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환경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26(여, 만26세)

나. 친구, 지인 연결망

가족의 영향 다음으로 여성의 친구나 지인 등의 주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취업에 있어서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친구의 영향이 컸는데 면접자24의 경우에는 친구의 설득으로 함께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A : 그럼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B : 아 취업한 친구요? 취업한 친구가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런 거 같아요, ‘아 내가 어떻게 살고있구나’ ‘아 취업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이런걸 보게 되고요 어... 그 친구들이 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확실히

히 독립이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돈 걱정은 확실히 안하게 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돈 없어서 못하게 되더라. 이런 건 없어지더라. 그런... 어(후지 4초) 그 친구 금융 들어간 친구데 증권 회사 들어간 친구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인간관계 많은 것들

– 면접자 7(남, 만27세)

남성면접자 7과 같이 주위 친구들은 성인됨에 있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독립의 정도와 개념을 인식하는 척도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취업한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막연하게 그리고 있었던 경제적인 독립의 구체적인 상을 접하고 이를 통해 독립에 대한 욕구를 자극받기도 하는 것이다. 가족 연결망이 의사 선택 과정에서 주로 ‘권유’ 혹은 ‘강압’ 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친구와 선배 연결망은 정보를 공유하고 참조 가능한 것으로서 기능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크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가 혼자서 공부하던 시기동안 저를 엄청 설득했어요. 너도 공무원 하라고요. 저는 계속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일의 신분이 공무원이었을 뿐이지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그 친구는 원래 안정적이고 여자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초점을 맞춘 거고 저는 하고 싶은 일 중에 공무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따라서 여성면접자24의 진술처럼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보다는 같은 고민을 갖는 동료 집단으로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참조집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면접자 5(남, 28세)의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취업에 대한 정보가 무지한 상태에서 현재에 와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든 점도 많고 후회가 된다고 했다. 다른 과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다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면접자5의 생각이었다.

취업을 준비한 게 아니라 대학원을 가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랑은 다르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경영학과를 갔다거나 아니면, 심리학과가 문과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근데 경영학과를 갔다거나 그랬으면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

게 하기 때문에 덩달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과고 또 심리학자가 남녀 비율이 3대 7에서 2대 8, 많으면 1대 9까지 가기 때문에 약간 저량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여자애들이 많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고 대학원 준비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서 그렇게 뒤쳐진다는 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나는 학점관리해서 대학원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압박(pressure)을 받거나 이런 거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 때 미처 깨닫지 못한 거.

- 면접자5(남, 만28세)

진로 결정이나 학업 성취에 있어서 주위 친구들은 참조집단으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극심한 취업 난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친구들 역시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면접자 20(남, 만27세)의 진술은 친구 연결망이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서로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B :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있었고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이제 서울에 있고 어디에 있고 다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바쁘죠. 사는데 바쁘니까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럼 진짜, 어떤 너의, 저의 진정한 진정성을 보고 이야기해줄 친구들은 뒤에는 없었고 다 대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재미있게 놀았지만 자기가 따로 자격증을 준비해놓고 마치 좀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는, “아닌 지금 이 시기에는 뭘 준비를 해야 돼.” 아니면 뭐 선배들이 “넌 자격증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선배들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약간 나약해졌을 때,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때려주면서 진짜 잡아주는 선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A : 주로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B : 주로 이제 친구들. 뭐 실질적으로 삼성에 들어간 그런 애들 만나고. (6초) 대학교 친구들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공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라. 네가 내 입장이 돼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진정한 멘토는 아직은 못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A : 그럼 친구들이랑 만나시면 주로 하시는 대화는 어떤 부분이에요?

B :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일은 할 만하냐?” 뭐 이런 부분.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죠. “넌

취업했냐?” “못 했다.” 그러면 “아 그래, 더 준비하면 되지.” 이거는 대학교 친구예요. “너 취업했냐?” “못 했다.” “야 이 똥놈아. 빨리 취업을 해야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진정한 걱정하는 친구죠. “아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이런 친구들은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정도. 대학교 친구들.

– 면접자 20(남, 만27세)

남성면접자 20은 취업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친구들 간 정보 공유가 여의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걸 다 공유하지 않는다’ 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좁은 취업 문턱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면 그 만큼 배타적인 방식으로 정보공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 연결망은 진정한 ‘멘토’ 로서 보다는 ‘경쟁자’ 로서 그 의미가 전환된다.

또한 취업 준비에 있어서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친구들 역시 취업 준비생으로서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친구 연결망을 통한 도움은 실질적인 것이 되기보다는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면접자20은 친구보다는 취업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 등과 같은 정보를 얻고자 했으며 이들의 조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면접자들의 취업준비는 친구를 통해 공유되기보다는 대학 내 취업 담당자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는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취업과 관련한 영향보다는 결혼과 관련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고 있었다. 면접자 2(여, 만27세)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정생활을 미루어 결혼생활이 즐겁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지인을 통해 다른 가정의 얘기를 듣고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변화했다고 했다.

똑같은 시간을 같이 일한다고 하면 전혀 아버지는 집안 일 전혀 안하셔요. 어머니가 다 하셨는데 그걸 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까진 바라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사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집을 보지 않고도 저한테 그게 좀 안 좋게 그게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결혼이란 걸 생각하는 데 아버지가 남자로서 집안일을 하는, 부담하는 정도가, 그것 또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 분담, 경제력, 경제력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엄청 행복하는, 행복한 그런 집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은, 않아 보이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불화가 가사 분담도 어느 정도 차지하지 않았

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결혼에 대해서 스물일곱 살, 예전, 결혼을 결심하는 몇 년 전, 이렇게 전까지 결심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 그 뒤로 의논을 했던 그 선생님의 집은 되게 달랐거든요 저희 집하고 많이 달랐고. 그 선생님의 다른 아는 분들의 집안 얘기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집의 가정환경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 면접자 2(여, 만27세)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변의 영향을 통해 결혼이후 여성들이 가사노동까지 책임지면서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다. 여성 응답자들은 다른 질문에서와는 달리 결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었는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여전히 한국에서 결혼 후 여성들이 살아가기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 는 없어도 결혼한 친구들은 있는데 친구들은 그런 말 까지는 안하는데 보면 느껴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밖에서 불일을 보실 때 “너희 아빠 오실시간 됐다. 밥 해야지.” 이러면서 들어오시고, 마음 놓고서 하루라는 시간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혼이 힘들구나’ 생각하고. (웃음) 저는 아직은 좀 자유롭고 싶어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이혼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주위에. 그런데 그 이혼이, 얼마 전에 또 예전에 중학교 때 되게 친했던 애랑 네이트온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개도 결혼을 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개도 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때려서. 왜 그런 사람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친척 언니도 막 남편이 임신했는데 남편이 때려서 이혼하고. 그리고 또 제 친척, 저랑 동갑이 어떤 애는 남편이 막 변태였어요. 아니 막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다 그러니까. 누군 또 바람을 피는데, 아랫집 아저씨는 막 되게 학자 스타일이었거든요. 공기업의 무슨 이사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도 바람을 폈는데 약간 변태적으로. 약간 뭐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도저히 너무 싫어요, 싫어졌어요.

– 면접자 17(여, 만28세)

처음엔 결혼한 것 보고 되게 부럽단 생각이 많이 했어요. 되게 행복해 보이고, 개가 지금 인천 살아서 한 번씩 제가 놀러가요. 가는데, 애가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휴학해놓고 계속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보면 하아(웃음) 일찍 결혼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해요. 처음엔 되게 부러웠는데, 애한테 치여 살고 자기 좀 젊을 때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해보고 결혼에 묶여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취업하고 30대쯤에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남자는 결혼에 대해 부담을 더 많이. 여자는 그래도 남자가 벌어오는... 당연히 직장 있는 남자를 만나겠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여자 들은... 걱정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전.

아기 있는 친구 집에서 며칠 있어봤거든요. 보니까 (한숨)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웃음) 애가 계속 밤에 깨고 그래가지고, 제가 애를 돌본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 또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부하고 놀라고 하고 제가 잠시 봐 준적 있었는데, 하아.(웃음) 많이, 아휴 (웃음)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

- 면접자 25(여, 만25세)

그리고 단순히 결혼 이후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결혼 이후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여성은 결혼하고 출산을 통한 커리어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성을 선호하지도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불리함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위에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버리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뽑을 때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좀 불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 면접자 17(여, 만28세)

이처럼 여성면접자들의 경우, 취업 준비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 양육과 커리어 지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친구와 지인 연결망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 커리어 개발 욕망과 가족형성의 문제는 여전히 갈등관계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불리한 상황의 협상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친구 지인 연결망은 참조집단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제도적 영향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연결망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제도적 영향도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스펙 쌓기를 해야 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다.

나이가 어리면 상관인데 지금 나이에 어른이 안 되면... 그거는 나이에 맞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이면 어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다가 보다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이 나이면 돼야 할 의무. 그런 게 더 큰 거 같아요. 되고 싶다 보다는, 돼야 한다.

- 면접자 5(남, 만28세)

저도 몰랐는데. 자신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스펙) 있어야.

- 면접자 18(남, 만27세)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도 직장이 있어야 거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사회가 각박하게 되었잖아요. 돈은 벌기 힘들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점심 값은 만 날 오르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남자들도 여자의 그런 경제적 인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옛날부터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어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전업주부, 많다고 하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전업주부. 하고 싶은데, 웬지 그러면 솔직히 손가락질 받을 거 같기도 하고,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우리 사회에서 풍토로 봤을 때 남자는, 남자가 가장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면접자 19(여, 만27세)

남의 시선을 일단 많이 의식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찾은 것도 있지만, 남이 보기에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다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 면접자 25(여, 만25세)

(3) 사회적 경험

그 밖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군대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책임감이 생기면서 보다 성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군대 조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계급장 하나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학업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 다 계급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제, 평준화가 된다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있던 역할보다는 그 구성원 안에서의 또 새로운 역할이 존재하니까, 그러면서 좀 더 한층 성숙할 수 있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군 입대를 함으로 인해서, 전투복을 입고, 사복을 벗고, 그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과 훈련소에서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되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자대라는 곳을 감으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구성원 속에서 막내로서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무런 주변에, 간부가 솔직히 지켜주지는 않잖아요? 자신이 알아서 눈치껏 행동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그래야지. 약간의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 입대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되게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이 되었던. 금전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이라는 주택 같은 그런 주거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존재했는데, 이제 그런 자대생활, 그러니까 훈련소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과 동일선상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자대로 이동함으로써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만 같은.

- 면접자 1(남, 만25세))

남성면접자 1에게 군대 경험은 부모와 주거 공간 분리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컸다. 면접자 1은 군입대 전까지 부모로부터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군대에서 처음으로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았고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기회로 군대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을 접하며 조직 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위계적인 조직문화 경험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 학벌과 계급적 평준화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군대 갔다 와서, 일단 그 전까지는 제가 일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건 전혀 안했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휴학하면서 했었지. 일종의 군대도 조직생활, 사회생활이니까 그런 걸 좀 익힌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전산병이라서 컴퓨터 고치고 네

트위크 선 고치고 이런 일 했었는데, 사무실에서 좀 회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회생활 경험했다는 건 좀 좋은 것 같고. 나와서도 거기서 배운 것들,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나중에 아르바이트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배워놓은 게.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 한 것도 있고. 그냥 육군 갔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곳은 정보 통신 쪽이라서 서버실도 있고 홈페이지 개발 이런 것도 하고. 전 정비 이런 쪽이었는데, 서버실 같은 데서 일하는 애들은 그런 것도 다 경력이 돼서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문적인 것을 하는 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사람이 되어 나오고 남자가 되어 나오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못 볼꼴도 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 면접자 27(남, 만26세)

군대 다녀와서는 이제 정말 시작이다 라는 시선은 느꼈던 것 같아요.

- 면접자 28(남, 만25세)

남성면접자 27과 28 역시, 취업 준비를 잠시 그만두고 유예된 시간을 보낸다는 차원으로 군대 경험을 의미화 하고자 했다. 면접자 27는 군입대 기간 중에 배운 컴퓨터 활용 기술을 경력으로 흡수시키며 군대 기간을 취업 단절의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접자28의 ‘이제 정말 시작이다’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는 남성들에게 생애과정에서 어른됨으로 인정받거나 성인으로서 변화를 추동하는 기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A : 그 모임은 사실 대학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 하신 거겠네요. 그러다가 군대 다녀오셔서 회장 맡게 되시고. 전에 있던 걸 바꿔보자 하고 바꿔보니까,

B : 네. 바꾸려다가 아. 이걸 아니구나. 난 중간자 입장이니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없애려니까 좀 모임이. 그 때쯤 되었을 땐 저도 구세대 잦아요.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후배들 자기가 술 먹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술 먹기 싫을 때 선배들이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아마 덜 먹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애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과연 재미있을까? 그게 위의 형들이나 저는 신입생 들어오면 까불까불하고 재미난 모습 같이 즐거워하면서 하는데, 또 그런 게 사라져 버리니까 따로 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 면접자 12(남, 만25세)

군 제대 후 일상으로 복귀한 남성들은 이제까지 맺었던 관계들을 조직 문화의 틀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면접자12는 군 제대 후 다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선후배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선후배 관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군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조직 사회에 대한 감을 기를 수 있었다는 말은 남성 면접자들이 군대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주요 서사였고, 군 제대 이후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러한 경험이 투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남성들은 조직문화를 군대 경험과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2. 유형분석

성인 이행 과정에서 보이는 성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표준화된 형태의 이행을 하고 있는 ‘이행시도형’ 과 둘째로 탈표준화된 형태의 성인 이행을 보이는 ‘혼란적 이행형’, 마지막으로 탈표준화된 형태로 이행과 지연을 반복하는 ‘이행지체형’ 으로 나눌 수 있다.

표 IV-5 유형 분석

성인으로서의 이행시도형	혼란적 이행형	성인으로서의 이행지체형
나이먹음에 대한 의식	나이먹음에 대한 무의식	나이먹음에 대한 의식
성인임을 받아들임	성인되는 것에 대한 인정과 부인의 교차	성인인 것에 대한 부인
약한 부모의 영향과 약한 부모의 지원	강한 부모의 영향과 약한 부모의 지원	강한 부모의 영향 강한 부모의 지원
강한 사회적 영향 (긍정적 수용)	약한 사회적 영향 (부정적 수용)	약한 사회적 영향 (부정적 수용)
적극적 이행전략	소극적 이행전략	소극적 이행전략
표준화된 형태의 성인으로서의 이행	탈표준화된 형태의 성인으로서의 이행 나선형적 형태의 이행	탈표준화된 형태의 성인으로서의 이행 (이행과 지연의 반복)
면접자 28(30)	면접자 22 면접자 26(28)	면접자 24 면접자 6

1) 성인으로서의 이행시도형

성인으로의 이행시도형의 특징은 휴학과 진로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은 제한된 범위에서 받아들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웬만하면 제 의견대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믿어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경영관련 분야로 아르바이트도 좀 해 보고 이것저것 다른 대외활동 같은 것들도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휴학동안 금융관련 쪽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아리라기에는 뭐 하지만, 외국인들 가이드 해주는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휴학을 해서, 어느 정도 미리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 면접자 28(남, 만25세)

면접자 28과 같이 성인기 이행 과정의 문제를 혼란보다는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이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실패에 대해 실망과 좌절보다는 과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큰 문제는 제가 다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
다, 나는 이것 아니면 아 된다, 이런 거는 다 제가 결정을 굳혀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면접자 24의 진술과 같이 이행시도형들은 부모의 영향력 보다는 본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부모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이에 책임을 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2) 혼란적 이행형

성인이 되어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한 의식과 무의식의 교차, 인정과 부정을 반복하는 것이 혼란적

이행형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졸업과 취업준비와 진학과 결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뒤영켜서 본인에게 성인이 되는 과정은 ‘다른 길을 걷다가 돌아오는’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된다.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도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면서 취업을 원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 복잡한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성인되는 것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반복하는 것도 혼란적 이행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과 같은 생애사의 사건 속에서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늘 그것은 완전한 어른됨의 하나의 계기일 뿐 완전한 조건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때로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성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한 70프로 정도는 성인이지 않을까, 제 그렇게 생각하고.....경제적 독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완전한 성인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성인이라고 하면 그 70프로 중에 가장 큰 것은.....생각이 조금 더 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스무 살 같은 때 보다는 철도 좀 들었고, 경제적인 독립말고 나머지 성인의 요건을 거의 충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면접자 24(남, 만28세)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대학교 입학이라든지 이렇게 어른이라고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조건이 있으면 그래도 너는 어른이다. 그런 베이스는 다들 깔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 면접자 22(남, 만25세)

주민등록증은 고 2때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주민등록증만 발급받았지 민법상으로는 성인은 아니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정말 사회에서 성인으로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가 더 성인이라는 생각, 그런 목적함 같은 그 때가 컸던 것 같아요.

- 면접자 24(남, 만28세)

일단 취업준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게 딱히 저와 그렇게 많이 맞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히 뭘하고 싶은지 계속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뭘 해야 될지.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서 하는 것이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다’ 그, 정도까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다른 게 생겨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하게 되면 지금까

지 해왔던 게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 버릴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죠.

– 면접자 27(남, 만26세)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이 과거에는 표준화된 단선적인 과정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다선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

술마시고 하는 거 보면 성인이죠. 아직은 책임질 개인적인 재산이나 능력은 없으니까 부모님 앞에서 말하기는 부끄럽죠. 저 빼고는 지금 자식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 결혼하고 직장다니는데 전 조금 다른 길을 걷다가 돌아 와가지고(늦었습니다). 학부만 9년을 ..대 학원까지 다녀서 저는 더 길게 학생이었거든요....3년 정도 변리사 준비를 하다가..안되면 사람이 조금 많이 지치거든요. 주변에서는 다 나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러는데....취업을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겠네요. 사실 올해도 시험을 보는데 취업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고시 할 때 같이 공부했으니까. 근데 (여자친구는 임용고시에)붙었고, (나는 변리사 시험에) 떨어졌고....이미 약혼했어요. 네. 능력은 없지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 면접자 18(남, 만27세)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지연되는 것은 본인의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황, 고학력화의 진전,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일어나게 된 현상인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때는 경제라는 게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어. 결혼하면 3년 안에 집 마련하고 뭐 미래가 보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 애들한테는 미래가 안보이잖아. 물가 비싸죠. 그야말로 부모가 어느 정도 안 해주면 늘 그런 현실에 허덕이다가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까지 다 바뀌버렸잖아.

– 면접자 14(어머니, 만52세)

인터뷰대상자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모의 지나치게 강한 영향은 오히려 어른으로 홀로서기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했다. 혼란적 이행형 유형의 면접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부모에게 계속적인 의존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독립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주위 친구나 선배 등 타인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하며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독립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본인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와서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뭘 하겠다고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였고, 말리셨어요. ..저도 어머니 말씀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런 경험들은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함으로써 주위 친구들을 보면 뭔가 저보다 더 어른이 된 거 같고, 성숙해진 거 같은데 그런 경험을 놓치지 않았냐? 저희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라서 원망까지는 하지 않는데 조금 아쉽기는 한 거 같아요.

- 면접자5(남, 만28세)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의 영향과 지원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맥락적 조건이 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혼란을 줄여준다.

(어머니는) 그냥 순응해주세요. 제 의견을 잘 따라주시는 편이라서요. 제 의견을 이해해주시는 편이에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셨어요.

- 면접자 28(남, 만25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의 강화는 경쟁력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부모는 독립에 대해 주저하고 여전히 혼란의 과정을 겪는 자녀를 거리 두고 지켜보기보다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여하기도 하고, 의견의 제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성인기 이행에 참여하고 있었다.

갈수록 취업 같은 게 어려워지고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는 만큼 교육은 이만큼 시켜야 한다.’ 이런게 점점 더 요구하는게 많아지니까 자기 원하는대로 끌고 가는 거죠. 만약에 그냥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면 그리고

그럴 여건이 된다면 다들 워 대학 안가고 빨리 독립해서.....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게 더 경쟁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빨리 독립을 할수록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은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 면접자 26(여, 만26세)

취업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줘요. 주..주는 거 일단 밥을 주시고...감사한 일이지요. 잘 수 있는 공간을 주시죠. 용돈은 있을 때 가끔 주세요.

- 면접자 6(여, 만25세)

저는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한테도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부모님은...저를 잘 생각해주시고 좋아하시고 그러시지만 경제적인 부문에서는 거의 남남 같거든요. 결혼도 그냥, 다른 집에서는 딸을 빨리 결혼시키고 자기가 편하시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결혼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보내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약간 그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냥 일단 취업이 되고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이 벌리면 가라.

- 면접자 2(여, 만27세)

사실 부모세대 역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경험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 용돈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에 자신의 인적자원과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돕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면접자들 가운데 부모의 인적자원과 사회자본으로 구직을 한 경험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경제적인 보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란적 이행형에게 있어서 자신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인 취업의 좌절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성인으로서의 이행의 지연으로 귀결된다.

제가 못난 사람인지라 별로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처음으로 인턴에 지원하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준비해 놓은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대외활동도 없고 봉사활동도 한 번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 면접자 6(여, 만25세)

면접자 6의 진술처럼, 취업의 좌절 경험은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과정 속에서 결국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는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은 혼란적 이행형과 이행지체형의 공통된 특성이지만, 이들은 그러한 무기력함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인이행 시도와 탐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회의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이행지체형

성인으로서의 이행지체형은 자신이 성장해오면서 겪어왔던 과정의 방향성과 목표성을 상실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도 혼란형과 이행지체형이 느끼는 무기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계속적인 무기력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인으로서의 이행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단 취업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딱히 저와 그렇게 많이 맞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계속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뭘 해야 될지.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서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 정도까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다른 게 생겨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 벌릴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죠.

– 면접자 26(여, 만26세)

작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붕 뜨더라고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왜 왔지? 목표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 면접자 8(남, 만25세)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지원은 성인으로서의 지연으로 작용한다.

일단 집에서 부모님들은 저를 제 생각보다도 더 ...성인으로 덜 보시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스무 살 넘으면 부모님이 손을 놓으시는 타입인데 우리 집은 계속 테두리 안에 두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 면접자 24(남, 만28세)

3. 성인기 이행전략의 젠더 차이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인기를 이행하고 있었다. 먼저 결혼의 경우, 여성들은 본인이 취업을 하고 되도록 천천히 결혼을 하고자 했다. 결혼에 따른 많은 책임감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취업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점은 존재했다. 남성의 경우는 단순히 취업을 통해 경제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여성은 취업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한 후, 그에 맞는 결혼상대를 찾고자 했다.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이를 여성들이 더 많이 의식하고 있는 듯 했다. 또한 남성은 결혼 이후의 가사노동과 관련해서 결혼을 지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을 미루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취업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이 보였는데, 취업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하향지원을 하지 않고, 높은 목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취업이 힘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자기발전을 통해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다른 경우로는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스펙 쌓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도 그에 맞춰가는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부분적으로 독립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주거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표 IV-6 성인기 이행전략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성인기 이행전략	취업전략	남	스펙 쌓기, 선후배 등 인적자원 활용, 조직문화 순응적
		여	스펙 쌓기, 외모관리, 조직문화 순응과 갈등
	독립전략	남	결혼을 통한 주거 공간의 ‘자연스러운 분리’ 선호
		여	결혼 전 주거 공간 독립 욕구 강함
	결혼과 출산 전략	남	결혼 지연 가사노동 분담 의무 회피와 협상
		여	결혼 지연, 커리어 성취욕과 갈등 최소화 가사노동과 출산 및 육아 부담 최소화

1) 취업전략 :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성별 전략

(1)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진입 : ‘스펙쌓기’와 ‘취업 지연’ 전략에 있어서 성별 차이
취업 준비과정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남녀 모두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높게 잡은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원하는 직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이 되었다. 면접자1(남, 만25세)의 경우에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였는데,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 같아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해서 돼야겠다. 해서 높게 잡고 있어요. 기대치를 낮게 잡으면 괜히 제 자신이... 그럴까봐.

– 면접자 1(남, 만25세)

반면 면접자 27(남, 만26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어디든 취업이 되는 곳으로 직장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가야죠. 지금 계속... 일단은 돈은 벌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들어가야 하니까 그 때까지 임시로 다른 일을 하든지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더 이상 공부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일단 직장을 구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 면접자 27(남, 만26세)

A : 경영학이라는 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B : 네네. 하면 왠지 더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하다보면 뭐 잘하게 돼서 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좋겠지만,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그 인생이 열릴까봐.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A : 그 인생이라고 했을 때 딱 드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계속 이 길로 가면 그 인생이 펼쳐질 것 같다.

B : 예. 이미 들어가는 순간 그 길로 쪽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다른 것도 그랬어요, 다른 일이 제의가 와도 이거 만약,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 했을 때 이게 그냥 단기로 끝날 일이다, 과정이다 싶으면 해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니까 금방 터낼 수 있는 거 하는데. 만약에 선불리 판단해서 갔다가, 쪽 가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나이도 있고 해온 것도 있고 일도 숙달됐는데 그만두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뒀을 때는 쉽게 놓지 못하고 하면 아예 안 가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과감히 안 가져드요.

-면접자 11(여, 만28세)

앞서 남성면접자 27의 진술처럼 높은 실업률은 ‘평생직장’의 개념을 침식해왔고,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원하는 곳에 들어갈 때까지 ‘임시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지속적인 스펙 쌓기와 자기계발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면접자 11은 ‘방송 진행자’ 지망생으로 ‘공무원’ 취업을 원하는 부모님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언론고시’로 통용되는 좁은 취업문에 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함을 느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업종인 신문사에 다니고 있었다. 면접자 11은 정규직으로 신문 편집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신문사가 자신의 최종 직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신문사 취업은 ‘방송 진행자’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비슷한 언론 분야에 있으면서 취업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부모님의 반대를 상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이직을 염두 해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현재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면접자 11은 이직에 대한 욕망을 드러낼 경우 생길까 될 불리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이직 욕망을 숨기며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현재 노동 활동이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낭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여성면접자 11이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노동 정체성 형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것은 비가역적인 혹은 단선적인 삶의 경로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하는 것이다. 즉, 정규 직업 과정에 있으면서도 이직에 대한 유연한 감각을 갖고 생애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자기 계발 탐색기간으로서 어른됨을 유보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성인기로의 이행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처럼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예비 상태로 자신의 위치를 두는 방식은 성인기 이행이 계속적으로 지연됨을 뜻하는 것이다.

저는 이미 서른 살 전까지는 제가 그냥 해보고 싶은 다 해보고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다른 사람, 이미 제 또래의 사람들 보면 스물네 살에 바로 빨리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은 직장 몇 년 차에 있겠지만 저는 서른 살 전까지는 그냥, 이미 스무 살 초반 즈음. 제가 생각이 조금 조금씩 다른 사람보다 늦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 면접자 2(여, 만27세)

여성면접자 2는 특별한 경우로 취업에 대해서 자유로운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미 취업시장에서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제약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갖는 여성들의 경우 취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나이’ 와 ‘스펙’ 에 대한 강박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면접자들 가운데는 면접자2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거리를 두며 다른 방식의 전략을 탐색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군대와 같은 휴지기를 갖지 않고 졸업과 함께 바로 노동시장 진출을 하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여성면접자들 중에는 노동시장 진출을 미루며 자기 탐색 과정을 좀 더 갖고자하는 욕구를 갖고 있기도 했다. 여성면접자 2는 대학 입학 때 고등학교 때 흥미를 갖았던 물리학을 선택했지만 적성이 잘 맞지 않아 졸업 후 구직에 유리한 교육학과로 다시 재입학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 부산에서 자라나고 지내온 면접자2는 부산에서 기간제 교사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임용고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서울에서 임시 거주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면접자2와 같이 지방에서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각종 임시 학원, 정보 등 교육 및 인적 자원이 밀집해있는 서울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며 직업을 탐색하는 경우가 있었다. 면접자2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학교에서 입학서류정리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서울 및 수도권 내 일자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만약,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구직 경쟁이 낮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직업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면접자2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커리어 개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과외와 학교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르치는 기술의 학습으로 의미화하고 교직 분야 진출을 위한 투자로 여기고 있었다.

면접자2가 비정규 노동 활동을 직업 탐색 과정으로 의미화하며 본격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었다면, 다른 응답자들은 사회에서 원하는 취업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다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면접자 17(여, 만28세)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회에 맞춰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면접자 16(여, 만26세)의 경우도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 안에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자신이 만족을 하느냐, 적당한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존재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취업이 잘 안되고 그런 거 같으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가질 거 같아요. 더 자기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기대치를 낮춰서라도….

– 면접자 17(여, 만28세)

영어 학원 다니고 있고요. 왜냐하면 토익 다 필수로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 3월 달에는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학원을 다녔었어요.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니까.

원래 2월에 졸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취업을 못해서 한 번 더 연기를 한 거예요.

– 면접자 26(여, 만26세)

주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면접자들이 보이는 ‘스펙쌓기’의 내용은 학벌, 토익시험과 영어능력 향상, 해외경험, 해외 및 국내 연수, 공모전 입상 내역, 해당 관련 분야의 자격증과 같은 항목이 차지하고 있었다. 방학기간을 통해 어학연수나 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하거나 학기 중에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 대부분의 일상이 취업 준비 과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택하는 또 하나의 취업전략은 학업을 지연시키면서 취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휴학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스펙을 쌓거나 취업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면접자 28(남, 만25세)은 그러한 전형적인 취업지연의 전략으로 휴학을 택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휴학을 해서, 어느 정도 미리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차라리 휴학을 하려면 4학년이 되기 전에 휴학을 하는 게 어떨까 하 시면서 의아해 하셨는데, 이왕 하려면 빨리 하고 뭔가를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3학 년이 되기 전에 휴학을 했었습니다.

– 면접자 28(남, 만25세)

(2) 성차별적 노동시장 체감하기와 성별 전략 차이

오늘날 취업시장에서 남녀차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도 생겨났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들은 이전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했으며, 여전히 여성의 사회생활 성공이 이슈가 되는 만큼 보편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뚜렷한 성차별적 해고와 퇴출이 이루어 졌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과 임신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출되었다(조순경, 1998; 조은, 2010).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은 남녀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의 기업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 기업의 남성 선호, 비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여성의 나이제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양상들 가운데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년 증가해오고 있지만, 주요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남성이 선호되는 점이다. 전문직으로 진출을 원하는 여성 면접자들은 남녀 모두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되는 입사 조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특히,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성면접자들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좌절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제가 대학교 선배나 친구들 중에 보면 오빠들도 있고, 저랑 같은 학번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개네는 이제 취업 할 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은 시기에 졸업했던 오빠들 보면 오빠들은 제 주위에 있는 여자애들 보다 다 안돼요. 학점도 낮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취직 했거든요? 다 대기업 들어가고, 그런데 여자애들은 중국어도 완전 유창하게 하고 이런데도 아직도 취업 못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차별이 드러나죠.

분야 자체가 아니라 회사에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하니까. 면접 같은 거를 보러 가도,

열 명 있으면 여자는 많아야 세 명? 그 정도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백 명을 뽑는다고 하면 남자 80명 뽑으면 여자 20명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여자애들은 잘 하잖아요. 학점관리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다 잘났으니까 그 사이에서 경쟁이 정말 치열한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인원 상관없이 똑같이 뽑는다면 많이 뽑히겠죠. 그런데 남자, 여자 비율이 이러니 일단 거기서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백 명이 몰렸다 쳐도 남자는 열 명 뽑는데 여자는 두 명 뽑는다고 치면 거기서 벌써 경쟁률이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현재 구직과정에 있는 여성면접자24는 기업의 남녀 선발 비율이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취업을 준비하는 남녀 모두 스펙쌓기의 부담을 갖고 있지만, 여성들은 좁은 취업의 문으로 인해, 스펙쌓기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보다 높은 수준의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통해 여성면접자들은 노동시장의 장벽을 남성보다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A :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B : 일단은 뭐 최고의 스펙은 남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남자가 훨씬 많이 뽑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긴게 여자 친구들도 스펙 엄청 쌓고 소위 엘리트인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도 약간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그런 여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토익도 엄청 높고 어학연수 다 갔다 오고 정말 영어도 스피킹도 잘하고 이런 여자애들 오히려 회사에서 푹푹한... 그래서 자기 말 안들을 것 같다고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스펙이 없으면 너는 안하고 뭐했냐, 다른 애들 다 했는데 이러고. 여자인 경우에 이것저것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너는 뭐 이렇게 많이 했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A :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안하나?

B :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말 열심히 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별게 없어도 웬만큼 기준이 있잖아요. 3.0이 넘는다거나 토익이 일정점수 되면 크게 성격에 문제없고 군대 잘 갔다 오고 했으면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실제로 여자 같은 경우는 토익 700대는 거의 취직

못한다고. 최소 800은 넘어야 하고 900넘으면 또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남자들은 토익 700대도 그냥 취직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았을 때 남자애들이 여자들보다 못해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최고의 스펙은 남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 면접자 33(여, 만25세)

여성면접자33은 졸업 후 대기업 영업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현재 취업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난항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선 같은 직종 내에서 여성과 남성 선발 비율은 다르게 작용하며 여성은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남녀가 같은 구직과정을 겪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최고의 스펙은 남자다’ 라는 말은 취업 시장에서 면접자 33이 느끼는 박탈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기업의 인재 담론은 ‘창의적인 주체’와 ‘자기개발 주체’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직과정에 있는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모순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한 기업 문화와 기업의 이윤 생산에 있어서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부정적으로 보며 여성 인력을 기피하는 남성 중심적인 기업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김명숙(2000)에 따르면,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능력주의가 성차별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남성의 이해를 반영하여 작동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 여성들은 기술적 능력의 확보라는 개별적인 대응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집단으로서의 여성 차별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여성들이 의존하려고 하는 철저한 능력주의의 적용은 개인주의의 강화라는 측면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문제가 여성 개인의 문제로 전이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도 이를 수용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김명숙, 2000; 전현경,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점에서 여성면접자 33은 여성들의 능력주의에 대한 회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에게 있어서 ‘자기개발 담론’과 ‘능력중심주의’는 합치되지 않고 모순된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취업 준비의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면접자 33이 ‘스펙 쌓기’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경력이 여성에게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데에는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경쟁력 향상과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기업의 인재 개발 담론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 뭐라 해야 되지? 기업 문화에 있어서 여성이 기업의 부장이나 높으신 분들은 남성이 있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진급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A : 조직 내부에서) 네, 조직 내부에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이룬 집단들이 남성이 주가 되다 보니까 여성을...,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차이는 미미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조직도만 봐도, 여성이 상위에 있기는 어렵잖아요? 요즘에 인식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성이 처음으로, 군인 조직이라는 것이 남성이 핵심인데 여성이 처음으로 장군이 됐다.’ 그런 것이 저는 큰 변화라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왜 이렇게 까지 이슈화 할까? 여성이 장군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 면접자 1(남, 만25세)

면접자1의 경우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취업 이후 기업 문화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기에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을 인정 하는듯한 사회분위기가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힘들었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자기 과량 상관없이 취업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다른 기업에 들어가기에 여자 나이 스물여덟, 스물일곱 이 때는 이제 늦은 시기라고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있다고,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좀 밀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 2, 3학년 때 그때 교수님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문제가 됐던 건 제 생각이 좀 많이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 면접자 2(여, 만27세)

여성면접자 2의 경우에는 취업조건으로 나이가 중요함을 말했다. 현재 27세인 그녀는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힘든 상태이며, 교수님들과 주위사람들로부터 여성은 나이가 많으면 취업에 늦은 시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는 없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좀 더 일찍 취업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27세라는 나이가 취업에 늦은 나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군대라는 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들만큼 남성은 나이에 민감하지는 않았다. 비가시적으로 연령제한을 두는 기업문화가 여성들의 취업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아예 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건 몇 년 전에 그걸 버리긴 했었는데요. 주위에 친 구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버리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뽑을 때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뽑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좀 불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 면접자 2(여, 만27세)

사회적 풍조. 여자와 남자는 무조건. 왜냐면 솔직히 여자는 아직까지도, 남자는 사회 초년생이 되기 위해서 스물아홉 살(29), 서른 살(30)까지도 취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스물네 살(24), 다섯 살(25), 스물여섯 살(26)까지가 맥시멈(maximum)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여자가 서른 넘으면 결혼을 못한다는, 그래서 솔직히 서른 넘으면 남자도 나이 많으신 분과 결혼을 한다는 그런 식이 많기 때문에, 일찍 일찍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좀 벗어났나요? (A : 아니요, 계속 얘기하셔도 돼요.) 남자보다 여자가 여성이 더 빨리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면접자 23(남, 만26세)

여성 성공사례를 다루고 커리어 개발 전략을 담론화하는 각종 자기계발서들의 범람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전과는 달리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이는 그 만큼 여성의 사회적 성공이 쉽지 않은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커리어 계발서들은 주로 남성중심적인 기업문화에서 여성의 사회적 성공 방법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동시에, 가정의 돌봄 노동과 일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더 선호하는 취업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나 나이와 같은 능력 외의 요소들까지도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나이에 있어서도 남성면접자들에게 나이 들어감이 취업에서 큰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었던 반면 여성면접자들은 나이가 취업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여전히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은 취업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모 관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 취업전략으로서 외모 관리하기

취업 경쟁이 격심해지고 성취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능력주의의 내용은 다른 항목을 포함한다. 직무능력에서부터 성격, 외모관리, 매너 등 다양한 평가항목이 능력주의로 포섭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외모관리는 자기개발 담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다이어트에서부터 성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B :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 뭐 여성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외모를 좀 많이 본다네, 그런 거? 외모가 좀 좋아야 된다는…. 그 게…, 착해보여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가 딱히 없잖아요? 뭐가 착해 보인다는 거고, 뭐가…. 그렇지만 용모단정이라는 기준이 매우 애매하면서도 크게 작용하지 않나…?

A : 실제 이제 면접을 다니시면서 느끼신?

B : 면접은 많이는 안 해봤지만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여성이 아무래도 미용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졸업앨범을 찍었었는데 졸업앨범 찍을 때 난리 나잖아요? 남자애들에 비해서 여자애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뭐 외모, 헤어부터 메이크업, 옷도 새로 좋은 것 구입하고. 그런 거 보면서 졸업앨범에 올라가는 사진이 취업과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근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 올라간 사진을 보고 기업체에서, 뭐 비서실일랄지, 이런데서 용모를 보고 연락이 오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웃음) 아…. 그런 게 정말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인거 같아요. (중략)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남성도 많이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큰 시술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겠지만 인상을 조금 더 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한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면접자 1(남, 만25세)

현재 각종 미용성형 시장이 확장되면서 외모관리는 자기개발의 척도로서 다뤄지고 있다. 직업 세계에서 외모 가꾸기는 기존의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좋은 인상’ 가꾸기와 같은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의료 기술을 통해 몸을 ‘변형’ 시키고 꾸준히 ‘관리’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각종 자기계발서와 미디어를 통해 외모 관리는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면접자 1의 진술과 같이, 취업시장에서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일정 부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남성면접자들 중에는 웨이트트레이닝과 같은 다양한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하고, 취업을 위해 외모에 투자를 해야 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용모 단정의 차원에서 나아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의지’와 ‘투자’로서 해석되며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면접자1의 진술처럼, 남성들 역시 외모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성형 시술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몸 변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실전은 여성들에게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면접자33(여, 26세)의 진술은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B : 솔직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나 외모, 몸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면접 가서도 살찌면 뭐 그렇게 살이 켜나, 자기 관리 일환으로 봐서 취업 큰 카페같은 데도 항상 무슨... 성형외과랑 이런 데랑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A : 그거랑 관련된 경험이나 목격담... 자기가 했던 거라던지 그런 거..?

B :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자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쌍꺼풀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쌍꺼풀은 안했구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마가 되게 좁아서 항상 앞머리를 일자로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취직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증명사진 찍을 때 이마를 드러낸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콤플렉스기도하고, 심는 것 보다는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요. 레이저로 이렇게... 쉬워서 뼈를 깎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나은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이마 여기를 정리했어요.

A : 언제하셨어요?

B : 작년에요. 작년에 취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구.

A : 다른 준비나.. 체형이나 다이어트 이런 건?

B : 아무래도 살 안찌려고 노력 많이 하게 되구요. 아무래도 좀 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버리면 안그래도 없는 스펙에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게 되요.

A : 주위에 남자분들은 외모나 이런 거 관리 하시는 거 보시나요?

B : 그냥 운동을 하는 남자들은 많이 봤지만 특별히 저처럼 이마를 어떻게 한다던지,

코를 높인다든지, 진짜 쌍꺼풀 한다든지 이런 남자들은 거의 못봤구요. 약간 잘사는 남자애들은 피부 마사지 정도? 여자애들은 되게 피부 많이 하러 다니더라구요. 그리고 막 은근히 방학 때 보조개를 한다든지, 필러를 맞아가지고 콧대를 좀 더 한다든지 제 친구같은 경우에는 코를 잘 해서 잘 되서 취직도 잘 되고, 이미지가 확 달라지니까요.

A : 그거 때문에 취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B : 글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콧대가 없을 때보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취직도 다른 애들 떨어질 때 합격하고 이런 거 보면 너 코 세우고 되게 잘 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 면접자 33(여, 만26세)

여성면접자 33은 노동시장 진출에서 여성들에게 외모 관리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보여준다. 앞서 진술한 남성면접자 1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들은 외모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기술을 거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반면, 여성면접자들은 몸 관리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는데, 특히 성형수술에 대해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성면접자33은 평소에 좁은 이마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이미지를 주기위해 이마를 넓히는 레이저 기술을 받았다고 한다. 면접자33은 비록 자신은 ‘뼈를 깎는 기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주위 친구들의 사례와 함께 몸 관리 방식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즉, 성형수술 사실이 드러내는 것을 감추려하거나 꺼리기보다는 자기개발의 노력의 일환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면접자33은 현재 취업시장에서 ‘살이 찌는 것’은 자기관리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신 역시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식욕을 억제하며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접자들의 서술은 미용·성형시장의 다변화와 성형과 다이어트가 자기관리의 개념으로서 일상적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 미용·성형시장이 쌍꺼풀, 코 수술과 같은 ‘용비술’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현재는 새로운 미용성형 기술의 도입으로 ‘보톡스’와 같은 간단한 주사 기술에서부터 ‘지방흡입’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형 수술을 일상적으로 선택 가능한 것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방 다이어트, 요가 등 다양한 몸 관리 프로그램의 상품화 과정에서 운동의 목적은 기존의 ‘건강한 신체’ 개념에서 ‘꾸준한 자기관리’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다이어트’의

일상화와 ‘미형 성형 수술’의 대중화는 취업 준비를 하는 여성들에게 하나의 구직 전략으로 의미화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면접자33는 성형수술을 받은 친구가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여성의 취업과 외모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접자 33처럼, 구직과정에 있는 개인 여성은 성형 이후 취업 성공을 한 지인을 목격하는 경험을 통해 성형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취업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다. 비정규 노동의 확대와 성별 분업화된 노동시장 구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변환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 시장의 경험은 취업 과정에서 남녀 모두 겪게 되는 현실이며, 기존의 성별 분업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된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직업에 특정한 성이 선호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체계는 노동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유연해지는 현재 해체되거나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들은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군과 문화 산업에서 선호되며 여성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 여성 노동은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들 영역은 노동 유연화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면접자들 중에는 기업과 공무원 취업 이외에도 학원 강사, 번역가 등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선호하거나 문화 산업 내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A : 제가 어느 공모전에 낸 게 있었거든요 작품을. 그런데 그게 최종까지만 가고 수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작가님이 그 심사위원이었는데 뭐 좀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뭐 연재소설을 쓰는데 뭐 그렇게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7,8개월 거기를, 다닌 건 아니고요 거기서 취직을 시켜준 게 아니고, 그냥 글을 쓰면 집에서 글을 써서 주면 돈을 주겠, 30만 원만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또 세 금 떼고 이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동시에 또 집 앞에서 아이스크림, 배스킨라빈스 거기서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글 쓰는 것도 밤새워서 막 하면 진짜 힘들고 안 써지고 이러면 진짜 좀 고통스러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 진짜 너무 힘들게 해도 돈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이 6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선생님은 내가 자기 밑

에서 5년 정도 하면 데뷔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도중에, 막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출판사 사람하고 저하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소설이 나갈 때 이름을 제 이름을 맨 처음에 써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써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뻗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거의 제가 다 쓰다시피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 그만뒀거든요. 〈중략〉 그리고 위촉직이라고 해가지고, 계약, 그러니까 정규직 있고 그 밑에 계약직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직은 2년을 하면 정규직 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이었고, 그 밑에 또 위촉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촉직은 그냥 단기 계약직처럼 그렇게 돼서, 뭐 2년을 하면 계약직이 되는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돈이 막 확확 되더라고요 일하는 건 똑같은데. 그때부터 일을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무튼 그런, 돈을 못 받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랑, 비정규직의 서러움, 그런 거랑 또 일 업무 강도가 너무 세 가지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행정일이었거든요, 행정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원 업무도 봐야 했어요. 그런데 민원 업무가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게

A : 아 그 공기업은 1년 반 정도 다니셨어요?

B : 예.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표독스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발상도 안 떠오르고. 예전에는 뭐 아무튼 되게 써지질 않았어요 글이 안 써지고. 하여튼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이제 이것도 못 하겠구나, 그러던 찰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위촉직을 2년을 하면 계약직을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막. (중략)... 금전적으로 아쉬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돈을 못 버니까.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알바도 또 이 나이에, 그 때 스물여섯 살 때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할 때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뭐라고 하나, 쪽팔렸었거든요.

A : 왜요?

B : 그때 같이 일하던 애들이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네 학교 선생님하고 나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웃음) 약간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냥 일했지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 오는 손님들도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무례한 사람들이 99%.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서 최저 시급이 4,320원인데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할 걸 생각하면 또, 그렇게 망설이면서 또 그런 알바는 못 하고, 또 무슨 사무직 이런 알바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무슨 막

파트타임 알바라고 써놓고는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리고 세금 떼면 한 80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언제 공부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적금 해놔던 거, 이제 다 썼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집에만 있다가 그래서 이젠 뭐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집 형편이 또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난리 치던 회사가 차라리 그리울 때가 있죠.

- 면접자 17(여, 만 28세)

여성면접자 17의 경험은 문화 산업 영역 내에 진출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면접자 17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작가지망생으로 진로를 선택하며 특정 작가군에 소속되어 일종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로 출판하는 것을 약속하고 소속된 작가 그룹에서 일 했지만 결국 계약된 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작가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개로 공기업 위촉직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회사 내 위촉직에 대한 규정이 바뀌게 되어 1년 6개월 만에 다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기업 내에서 ‘인턴’, ‘위촉직’과 같은 위치는 그 노동 강도에 비해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노동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는 면접자 17의 서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 면접자 17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는 언니와 같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며 입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파트타임 노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입시생으로 지내는 면접자 17의 모습은 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지만, 현재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 산업이 부상하면서 다양한 문화 노동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 노동 분야는 노동 유연성이 극대화되고 취약한 사회적 안정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은 여성 문화 노동자들의 취약한 위치를 단적으로 드러내며 개별화된 노동의 안정망에 대한 필요성을 가시화 했다. 문화 영역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파트타임 노동이 증가하면서 이들 노동의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20대 여성들은 불합리한 임금 체계 속에서 노동 소외를 겪고 있으며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B :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직업... 직장은 없어도 직업은 있거든요. 잡지기자가 저의 직업이고 뭐 여러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전화상으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직으로도 조금 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 안 맞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텅져져 나온 경험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중략) 원래 전공은 역사, 그러니까 인문

학 전공자인데 뭐 이제 좀, 인문학이라면 아무래도 텍스트 위주의 학문인데 저는 그것 말고 조금 비주얼적인 거를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션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패션 잡지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패션잡지 기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그런 데 트라이하고 어플라이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패션 잡지 쪽으로 딱 일이 풀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에 여성지나 리빙지나 많이 아시는 그런 잡지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그, 원고를 정말 소액, 30만 40만(원). 스타일(잡지) 이런 거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정말 박봉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어시스턴트 생활을 거쳐서 정규직은 아니고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다가 선배의 소개를 받아서 정규직이나 이런 데로 가기도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녔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적도 한 번 있고 아니면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적도 있고.

A : 알음알음 채용이고 그러면 고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B : 어... 아주 열악하죠.(웃음) 뭐 하루 8시간 근무 따위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새벽 두시나 세시 정도에 들어가야 해요. 그 대신 조금 약간 더 자유롭죠.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자기 스스로 진행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거 다 안되고요 저는 원고료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p(페이지)당 2만 원짜리라서 20p 정도를 했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를 받고. 근데 거기다가 원천징수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리랜서한테 세금 3.3%인가 몇 퍼센트인데 그런 거 또 떼고 그러면 통장에 들어오는 건 39만 8천원? 그런데 그 때는 별로 돈 쓸 일이 없고. 점심 이런 거는 제가 돈을 적게 버니까 선배들이 다 사주니까.

- 면접자 19(여, 만27세)

여성면접자 19의 예 역시 여성들의 노동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치 절하되고 도구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흡수되기를 꺼려하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커리어 욕망은 노동시장의 극도로 취약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프리랜서’로서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일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선택된 것이지만, 노동시장 구조에서 이들 개별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안정망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불리한 고용 조건, 임금 지불 불이행, 계약 파기 같은 상황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알음알음’ 일자리를 구한다는 면접자 19의 말처럼 이들은 계속적으로 임시적인 방식으로

노동 활동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경험하는 것이지만, 노동 영역의 성별 분업이 구조화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공명하면서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은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라. 결혼과 출산 육아로 단절되는 경력

뿐만 아니라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오래 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고, 그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여성은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여전히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열정을 갖고 도전하기 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취업 이후에도 일을 오래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스펙쌓기’와 같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이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여성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커리어 단절의 문제 느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협상력을 갖을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남성들은 커리어와 가정이 평행선을 유지하며 이를 협상의 문제로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도 취업 시 어려움을 겪는다. 출산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여성 취업자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면접자 2(여, 27세)는 말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그나마 우대받았던 교직의 경우, 남성교사의 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남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분위기로 예전에는 여성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현재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학교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 같은 조건이라면 남자 선생님을 면접에 더 많이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자 쪽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 면접자 2(여, 만27세)

A : 솔직히 취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결혼이나 그 이후의 어떤 육아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회사에서 여자를 별로 안 뽑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결혼하면 그만 두거나 애 낳거나 할 때 공백기가 생기니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애를 낳고 줌... 그 시간을 국가에서 어떻게 좀 많이 지원 같은 걸 해주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애 낳으니깐 그냥 퇴직해라 이런 게 아니고 마음놓고 애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복귀할 수 있게 줌.. 약간 그런 거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를 안 낳을 수도 없고 물론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다들 안 낳으면 좀 또 그렇잖아요. 약간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면접자 33(여, 만25세)

‘여성 취업할당제’가 표상하고 있듯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면접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여성 인력 기피 현상을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여성면접자 33 역시, 취업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부딪치면서 여성친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기업으로 진출을 원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출산휴가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데에는 이후 승진과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분리가 공고화된 상태에서 가사노동 공동화를 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성차별적 기재를 양산한다. 어떤 사회든지, 여성들은 주로 어머니 역할이나 사적 영역의 전담자로 규정되고, 반면에 남성들은 공적, 정치적인 영역들을 만들어내고 장악하는 성원으로 이해되는 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열등한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된다(김명혜, 1996). 또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공고한 분리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가치 절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피하고 싶은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기업의 이윤에 손해를 입히는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닌 이를 ‘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나아가 남성들을 돌봄 영역으로 포섭하고자하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3)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순응

가. 조직문화에 부합하기 : 무난하고 순응하는 여성

취업시장 진입에 있어서 20대 남녀 모두 스스로를 능력 있는 인재로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 입증의 내용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남성은 군대조직과 같은 경험으로 조직사회에 부합한다.’는 통념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면접자들은 자신이 조직문화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A : 여자라서 불리함을 감수하고도 취업이 될 수 있게 하는 전략들.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나요? 굉장히 불리한데, 취직은 하고 싶은데.

B : 솔직히 무난하다는 걸로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거 보다는 그냥 나는 무난하다 이런 걸 포장해야한다고 해야 하나? 남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여자들은 자기주장을 할 것 같고 여성학과라던지 그런게 있으면 뭔가 되게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성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약간..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할 때 순종적이고 착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실제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A : 보통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B :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건 그냥 뭐 어학연수 갔다 와서 영어 잘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A : 그러면 자소서를 쓸 때 자기를 어떤 식으로 PR을 하나요?

B : 그냥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무난하게 그냥 그런 쪽으로 많이 써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하고 끈끈하게 잘 지내고 행사기획하고 할 때도 아이디어 같은 거 내서 잘 이렇게 하고 그냥 뭔가 잘 어울리고 조직성이라고 해야 하나? 조직적합성 같은 걸 잘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면접자 33(여, 만25세)

성과 중심의 업무 능력 평가체제가 일반화됨으로써 기업은 노동자를 개별화하며 자기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문화의 변화는 취업 준비생의 자기PR 능력을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취업 준비생들은 ‘자소서’로 통용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능력 있는 인재인지,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한다. 그러나 기업의 인재 평가에서 자기개발과 다소 상반되는 ‘수직적 조직문화 적응’ 역시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여성 면접자들은 조직문화와 관련한 평가 항목에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여성면접자 33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조직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적응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자신의 ‘개성’ 보다는 ‘무난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면접자33은 대학에서 여성학을 접했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서 활동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욕망을 반영해 자기를 어필하는 것은 자기주장이 강한 ‘고집스러운’ 여성으로 읽히게 될 것이 두려워 ‘무난함’으로 포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면접자 32(여, 만27세)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선호되지 않는 것은 남성의 군대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그 기반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A : 근데 솔직히 군대는 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군대가 워낙 계급 체제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그니까 회사도 솔직히 다 그거(위계사회)기 때문에. 경험 있는 남자를 쳐준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여자들은 특별히 뭔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회에서는, 남자는 어쨌든 맨 밑부터 병장이 될 때까지 어쨌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사히 군대를 잘 갔다 왔으면 이 조직에서도 무사히 계급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잘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과사를 같이 일을 해보면 남자애들이 서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되게 확실하고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 그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그런 거를 자기 회사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여자들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나 인적성검사에서 좀 말 잘 들을 것 같고 순종적이고 특별히 자기주장을 내세운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무난한 여성을 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솔직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취직하기 싫고 군대가 좋으면 직업 군인도 많이 가고 장교 나오면 장교 전형은 따로 있어요. 취직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여자들은 뭐 물론 여군 지원해서 갈 수도 있지만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하기 싫고 취직도 하기 싫으면 그냥 정말 말뚝 박는 경우를 몇 번 봐서요. 자기 성격에도 괜찮은 것

같고, 안정적인 것 같고, 군이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복학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거기 군대 그냥 말뚝 박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 친구 오빠도 군대에 말뚝을 박
으셨더라고요.

-면접자 32(여, 만27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업의 차별적 평가는 남성은 군대 경험을 함으로써 조직문화에 익숙하고 그 적응력을 이미 획득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남성 면접자들은 자신이 조직문화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어필해야하기 보다는 스펙쌓기에 집중을 보이며 자신이 얼마만큼 발전 가능한 인재인지 입증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에서 높은 적응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성면접자들은 군대경험과 선후배 관계 중심적 생활 경험을 통해 조직 적응력이 이미 획득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성면접자들은 조직 적응 능력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항목으로서 다뤄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물론, 순종적이고 무난한 여성성을 선호하는 경향은 직무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여성면접자 31(여, 만27세)은 순종적이고 유순한 여성이 기업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지만, 모든 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B : 저는 친구가.. 그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여자들의 그런 순종적이고 예쁜 외모, 면접에서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세 마디만 하고도 붙고. 그런 행원이 있을 정도로 예쁜데 뭐 그런. 대부분 말을 많이 하거나 목소리가 큰 여자를 싫어하고. 그래서 애는 신한은행이 훨씬 연봉도 많이 주고 좋은 데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증권은 또 다르대요. 은행과 증권은 또 달라서 증권은 오히려 말을 크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개는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사례도 있고 꼭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같은 경우도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애들은 더 심한. 오히려 여자애들보다 더 심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취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일단 결격 사유로 보기 때문에.

- 면접자 31(여, 만27세)

여성면접자 31의 진술처럼,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기업의 유순한 여성 선호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드러운 음성과 유순함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 업무와 변동이 많고 불투명한 금융 시장에서 합리적 판단과 설득의 과정을 중시하는 증권 업무는 다른 지향을 갖는 것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선호도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나.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 :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 차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 의식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접자 3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를 언급하며 여성이 여성성이 강한 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성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결국은 여성이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자녀양육과 배우자 내조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정치나 스포츠는 남성들의 전유물인냥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답변에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있겠으나, 그러한 전제가 남녀 차이가 아닌 남녀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성이 낮고, 조직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해 남녀 차별에 대한 개인의 인식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 기본적으로 여성이 막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고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여성성과 남성성이 있는데, 있잖아요? (A : 네) 보통 구분을 할 때 여성이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고, 남성이 남성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직업도 남성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고 여성성이 필요한 직업들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게 정말 개념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 여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거기에서 되게 좀 부정적이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성이 강한,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자기 주변, 거기에 더 먼저 아? 그런걸 뭐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어?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일단 이런 걸 먼저 챙기지 남자처럼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자기랑 아무 관련도 없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따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왜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다가 여성성이 많은 많이 가진 여자들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대기업도 일단 여자보단 남자가 많아야죠. 일단 대업을 부정적으로 좀 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조직이라는 게 사회성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집단이고, 조금은.. 이제 뭐라 그러지? 또 그런 게 요구되는 자인데, 뭐 여자가 가정문제로 뭐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막 조직생활에 빠지거나 이런 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팀웍을 해치는?

- 면접자 3(남, 만24세)

남성면접자 3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더 적합하며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가정 영역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면접자3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 가정에 소홀해짐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중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팀웍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남성면접자들 중에는 면접자3과 같이 전통적 성역할이 해체되고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남성 면접자들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면접자 18(남, 만27세)의 경우에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되돌아보며 여성의 노동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가정에 헌신했을 때 자녀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이후 본인의 인생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성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어머니가 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머니도 보셨겠지만 어머니들이 나이가 드시면 재미없어 하세요. 인생을. 자기 직업이라는 게 예전부터 없었고 자식들만 바라 봤는데 자식들은 머리 컸다고 나가서 노는데, 여름이 돼서 휴가를 가더라도 같이 가진 않잖아요. 머리가 크면. 근데 자기 직업이 있는 여성들은 별로 그렇게 늙진 않는 거 같더라고요. 인생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거 같고. 남편과 공동으로.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헌신적인, 집안에 헌신적이시고 아버지는 너무 투철한 사업가이셨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 했어요. 어렸을 때는 좋죠. 어머니가 항상 계시면. 컸을 때가 아쉬운 거죠. 어머니 나가서 좀 활발하게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거. 그게 다른 거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어렸을 때 생각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생각하고. 그게 뒤바뀌는 거 같아요.

- 면접자 18(남, 만27세)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혼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의례가 되지는 않지만, 여성들에게는 보다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된다. 반면 남성들에게는 취업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의 종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요. 친구들 보니 일을 2~3년 한 친구들이 이제 그만 ‘취 집’ 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단기로 사무실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서 느꼈어요. 정말 사회생활이 많이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 태로 친구들이 2~3년 일했다면 일을 그만두고 결혼을 하고 싶기도 하겠단 싶었어요.

– 면접자 24(여성, 만26세)

음. 일단 결혼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남편 돈만 쓰기에는 (웃음) 제가 동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뭔가 작아지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당당하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가지고. 애들도 또 키우려면 요즘 학비도 되게 비싼데 혼자만 벌기에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어머니 친구들도 보면, 솔직히 여자들은 공무원, 간호사 이런 거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 러니까. 그렇게 여자가 돈을 벌어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뭔가 설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거나 더 잘할 수 있고, 시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부모님은 취업을) 했으면 하세요.

– 면접자 26(여, 만26세)

여성면접자 24의 경우 취업을 통해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기보다는 취업 이후 결혼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성은 힘든 사회생활에 서 결혼을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면접자 26은 결혼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이후 여성의 권한 행세에서 직업을 갖는 의미를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도피처로서 결혼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면접자들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취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했다.

(4) 군대 경험 자원화하기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가 성인기 이행에 하나의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주거적으로 독립해서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듯 했다. 군대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좀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는 응답자들이 많았으며,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았다. 또한 최근 들어 취업이 힘들어지고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군대를 하나의 카드로 여기는 응답자도 있었다. 졸업연기나 대학원 진학과 같은 학업의 연장으로 성인기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계기로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군대를 시간을 허비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고 빨리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군대를 다녀옴으로 인해 취업연장의 시간을 벌고, 취업 시 남성은 나이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공식적인 군가산점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군대에 다녀온 남성은 우대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군대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2년 정도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주택 이라든지 독립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대를 오래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되게 뭐 좀 더 오지에, (웃음) 부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되게 생각할 것도 많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 남자는 좀 군대를 다녀와야지 좀 더 어른스러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대학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 외적인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되게 그런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온 친구와 아직 다녀오지 않은 친구 사이에 행동이나 대화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까지도, 아무래도 저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게 대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화에 있어서, 아 좀 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의 느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 갔다 오고, 하는 것이 되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남성은 조금 어른스러운 그런 성장의 단계가 되지 않나. 군 입대를 하기 전에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군 입대를 함으로 인해서, 전투복을 입고, 사복을 벗고, 그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과

훈련소에서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되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 면접자 1(남, 만25세)

남성면접자 1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어른스러워졌다고 응답했다. 다른 사람의 경우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보다 생각이나 행동에서 어른스럽다고 말했으며, 따라서 군대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성장의 단계가 된다고 응답했다. 비록 임시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주거적으로 일단 독립을 하고 스스로 본인을 책임지는 군대에서의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성인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군대 갔다 오면 좀 그래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마지막 카드죠. 갔다 오면 피할 곳도 없는. 가끔씩 학교에서도 저 말고도 다 힘들어 하거든요. 유학생들이. 컴퓨터 과, 그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 가서 좀 쉬다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면 몇몇은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자기도 힘든데, 쉬고 싶은데 뭘 방법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서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 면접자 8(남, 만25세)

남성면접자 8은 군대에 가는 것을 취업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하며 군입대를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는 군대가 힘든 곳이고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본인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고 여전히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관해서는 고민 중인데, 군대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면접자 8이 이렇게 응답한 배경에는 한국의 취업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생활의 힘든 점보다도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욱 힘들다고 느끼고 있기에 군대에서 취업과 관련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주변에 이미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여유를 가질 기회가 없음에 면접자 8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예전에는 시간을 허비하고 힘들어서 기피하던 군대가 오늘날에는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남성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잘 갔다고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야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간을 따져 보면 군대에서 배운 것도 많고 되게 좋았는데, 그걸(시간을) 군대를 안가고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았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은 하죠.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은데, 만약 제가 군대를 안 갔고, 그냥 공익을 했다면, 그래서 출퇴근을 했다면,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오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좀 열심히 했었는데. 그냥 사회에 있었으면 계획을 세워서 잘 하면 상관없는데 제 성격상으로는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군대도 잘 간 것 같아요.

- 면접자 27(남, 만 26세)

남성면접자 27의 경우도 군대경험을 긍정적으로 말했다. 물론 그 시간동안 다른 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었으며 군대 이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들로 변화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면접자 27은 군대경험이후 좀 더 어른이 되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군대생활 이후 본인이 변화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더 열심히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종의 책임감을 갖게 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분석되었으며, 스스로 성인임을 자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군대생활 이후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성인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예된 시간으로서 군대를 인식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 승진, 임금 협상과 같은 영역에서 군대경험이 비공식적으로 물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실제로 군필자와 미필자 사이에서 임금 차이를 경험하는 여성면접자들이 있었으며, 여성 면접자들은 이러한 군대의 물질적 보상체계가 갖는 불합리함을 토로하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쪽에서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음.. 제가 알기로는 남성 군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호봉수가 달라요. 남자가 호봉 수가 더 높게 시작하거든요. 여성들보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차별을 얘기하자면 그 사실하나로 차별당하는 건 여성이죠. 왜냐면 선택권의 문젠데 남성들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억지로 갔고 여자들은 군대를 못갔다고 말하면 안되지만 안가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군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자기가 군이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의식할 필요가 없는 문제 때문에 1년을 연봉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군대라는 것 자체가 남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줄 정도의 시간이나 라고 했을 때 굳이 그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여성과 차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면접자 32(여, 만27세)

여성면접자 32는 군대경험의 유무로 인해 임금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면접자32는 여성이 군대에 대해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군대와 관련해 여성은 이미 선택권 자체가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군제대 유무로 직업세계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시장에서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성차별을 구조화하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다른 보상체계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 독립 전략 : 부모의 통제 욕망과 성별 전략 차이

부모로부터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먼저 주거 독립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의 주거독립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딸의 주거독립은 반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보다는 딸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상황에 대한 염려 외에도 딸과 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 때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리고 아들의 경우 군대를 통해 이미 주거적으로 독립한 경험이 있기에 부모님들이 주거독립을 받아들이는데 딸에 비해서 거리낌이 덜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딸과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는 우선 성역할에서 비롯되었다. 딸과 아들을 똑같이 교육시키고 똑같이 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딸은 결혼 이후 해야 할 가사노동이나 시댁 챙기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이러니 하게도 딸과 며느리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딸은 결혼을 해서도 자기 일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길 원하면서도 며느리는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에 충실하며 본인의 아들을 위해 희생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빨리 독립하길 원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관련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전적으로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진로도 선택하도록 장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부모님의 경우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의 진로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자녀를 이끄는 모습을 상당수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성인기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함을 교육받은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미취업상태에 대해 부모에게 미안함 감정을 갖고 있었고 또한 부모님의 진로 간섭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성인기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했다.

(1) 부모의 관여 정도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권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딸에 비해 아들을 우대하는 전통적인 관행은 약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50년, 60년대 한국의 산업화 이후 출생한 사람들로 중산층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은 성차별적 양육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면접자들은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기 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지금은 더 강화가 됐지 현재는 그런 것 같고 서포터하는 건 남자 여자 차이는 아까 나는 그 얘기 말고 그런 부분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확 차이나 게 딸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그걸 딸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 옛날에는 뭐 오빠가 대학을 가야되니까 너는 대학을 포기하고 이런 게 먹혔는데

- 면접자 35(어머니, 만47세)

여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어떤 차이를 두거나, 아들이라고 해서 뭘 안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아들도 뭐, 속옷도 잘 넣고 누나들 팬티도 털어가면서 넣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런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집안,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서 뭔가를 시키거나 안 시키지는 않아요.

- 면접자 15(어머니, 만47세)

남녀 자녀 모두를 두고 있는 면접자15(어머니, 만 47세)의 경우에도 성역할에 대한 구분은 그리 크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살림을 가르치고 아들과 딸의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면접자35(어머니, 만47세) 역시 남녀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성차에 기반 한 차별적 지원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과 딸에 대한 성역할 차이는 없었으나 자녀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었다. 본인은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준비를 하기 이전에 부모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직업 선택에 있어서 딸에 대한 관여는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로 전통적인 여성성에 순응을 요하는 직업을 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저는 성인이 됐으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를 적어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가도 좋지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구해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끝없이 돈을 대줄 순 없고 경제적으로 저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힘 들어 해요.

저는 저가 개한테 지시를 하거나 꼭 이렇게 하라고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번에 얘기를 하는 데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라고. 그래서 그럼 전 당장 그만 두라고 그 때 한 번 크게 싸웠어요. 당장 그만뒀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그렇게 강요됐다면 나도 그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 뒀라, 라고 했더니 한참 지났는데, 안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그만 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말이 맞는 거 같았대요. 그니까 그렇지만 그제 자기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고, 자기, 그니까 저가 더 앞서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쾌했나 봐요.

교과과목을 이수하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제 이제 미술교사라는 게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사실 제가 그거를 하라고 했던 점은, 작가를 하고 싶어 하는 데 그걸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일반회사에 들어갔으면 쉽지는 않을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만약에 임용시험이 돼서 선생이 된다면, 선생님 은 그래도 방학도 있고 그래서 또 시간을 또 그림을 온전히 애들에게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작가와 선생을 같이 병행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서 본인 성적도 돼서 다 그제, 됐어요. 근데 4학년이 되면서, 어 자기는 선생이 싫고, 요즘 사회적으로 선생님이 존경받지도 않는데 그 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결혼은,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100%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결혼이, 그니까 옛날 우

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얼굴도 안보고 좋아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수 조건은 아니고, 선택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직업이 있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직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면접자 15(어머니, 47세)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강압적으로 진로를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면접자15의 경우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녀와의 다툼으로 인해 본인이 자녀에게 진로를 강압적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면접자15는 여성 역시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교사를 권유하여 딸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 때에 비해서 확실히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거지. 엄마, 로스쿨을 갈까 말까? 근데 나는 우리 부모한테 아빠 나 대학원을 갈까 말까 이런 걸 한 번도 안 물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하다가 대학원 안가, 취직이다 이렇게 그냥 내가 정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를. 아빠 나 대학원은 안가요 취직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딸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요. 로스쿨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면 뭐 어떻게 좋고 아빠가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나쁠 것 같아? 라던가. 등록금이 이정도 든다던데 아빠는 자신이 있어? 끝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던가. 물론 말로는 그거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다 갚아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 면접자 34(어머니, 만47세)

부모 면접자34는 이전 세대에 비해 청년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관여가 부모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 스스로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자원 가능 여부를 묻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로문제와 같은 선택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부모면접자 16(어머니, 만50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녀의 진로나 커리어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자녀가 독립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놔두면서 실질적으로는 자녀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면접자16는 앞서 예시한 면접자15의 강압적인 방식과 달리,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의사 선택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입은 부모의 의도치 않은 개입을 강조하는 면접자34의 태도와도 구분된다. 면접자16의 관여 방식은 배후의 조정자로서 결국에는 자녀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철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본인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밟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좀 독립적으로 놔두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뒤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서진 않는데 항상 지켜보고 있죠. 네. 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다고 막 터치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신경이 쓰여서 항상 체크만 하죠. 네. 그런데 드러내 놓고 간섭하지는 않죠.

결혼이라는 거에 발목을 잡히면 여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중고잖아요, 여자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일단 가정, 아직까지는 가정이라는 게 여자가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지원(support) 정도로 아직은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과연 자기네들이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일단. 조정하는 것도 여자가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 같아요. 자기 일도 못 찾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임신, 출산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일단 맞벌이 하면 일 이런 거보다도 임신, 출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웃음)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좀 내가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 면접자 16(어머니, 만50세)

한국의 중산층 부모는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배후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성인 이행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다. 수출주도형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면서 소비자본주의의 급성장과 함께 교육받은 중산층 엄마들이 대거 등장했고 1990년대에는 ‘과학적 모성’, ‘프로 엄마’를 강조하는 과학담론들과 상품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어머니들은 적극적으로 계급 체계와 젠더 체계의 교량역할을 맡는다(박소진, 2003; 이숙현·백진아, 2004; 조은, 2010). 이들 중산층 부모 세대는 자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머물기 보다는 자녀의

성인 이행 과정에서 일정부분 권력을 행사하거나 ‘멘토’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딸과 며느리에 대한 입장 차이

부모면접자 14(어머니, 52세)의 경우 자녀의 독립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독립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부모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같은 여성임에도 딸과 며느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컸다. 딸의 경우에는 살림을 가르치지도 않고, 결혼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고 본인의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며느리의 경우는 아니었다. 며느리는 학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본인의 아들을 이해하고 내조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을 위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면접자14의 응답들이 솔직한 한국 어머니들의 심정이라고 여겨졌는데, 이를 통해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결혼 이후 여성에게 부과되는 책임들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그냥 어떤 차이는 좀 있는 거 같아요. 제 사고에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아들과 딸에 대한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라도 가르치고 싶은데 딸은...(3초)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은 게, 어차피 시집을 가면 그쪽도 해야 되는데 이중고잖아요 이중고 (웃음)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는 사실은 자식한테 의존하는 세대는 아닌데. 그래도 그 밑 바탕에 책임감은 가르쳐야 할 거 같아요. 뭐 그런 거거든요, 생일이나 명절... 뭐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가르치죠.

(배우자는) 우리 아들을 좀 많이 위해줬으면 좋겠다. 좀 희생할 수 있는 거. 나는 며느리가 전문직을 갖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 본인도, 딱히 직업 갖는 여자를 원하지 않더라고. 그러기에는 자기가 두 배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참 남자한테는 중요한 거 같아. 남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근데 본인의 이익이 중요해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너무 불행하지 않나.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딸은 무용하는 데, 맛별이를 해야 한다 애기아빠도 그런 애길 해요. 그러니까 집에 주부로 사는 건 엄마 세대가 마지막이고, 본인의 일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거나 또 살아가는 데 일은 있어야 한다. 어떤 자기 일은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딸은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는 일은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들한테 소홀할 거 같아서.(웃음) 아침도 안 챙겨주고 횡하니 나갈 거 같아서.(웃음) 며느리가 한 달에 수 천 만원을 벌어들여도 해도 아침에 밥도 안 챙겨주고 횡하니 나가서 일하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와이프라고 만났는데 그래서 여자가 문 앞에서 인사해 줄 정도는 되어야 되지. 너무 막 또 요즘 여자들 한잔씩 다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나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어떻게 알아서 먹어 그러면 아들은 집에 와서 라면 끓여먹고 그건 아닌 거 같애.

- 면접자 14(어머니, 52세)

부모면접자 14는 남, 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각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학습시키고자 했다. 아들에게는 집안의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경제적인 기여를 부담시키며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반면에 딸에 대해서는 가족으로서 의무를 지우는 것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가족제도에서 딸은 일시적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반면, 아들은 영속적인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딸들은 결혼과 더불어 출가외인으로 규정되고 남편과 그의 가족 일에 대해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의 법·경제·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이미정, 1998) 면접자 14가 딸에게 아들과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 ‘이중고를 겪는 것’ 이라고 보는 데에는 여전히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출가외인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이다.

딸과 아들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모 세대의 인식은 젊은 여성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B : 남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A : 자기에 대한 푸시가 없어져서?

B : 그런 것도 있고 재가 자식 노릇을 하겠구나(엄마에게) 며느리가 생겼고 저는 여자라서 오히려 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명절 때도 그냥 뭐 가부장.. 친구들끼리 막 그런 얘기해요. 가부장 사회잖아? 성묘 같은 데 안 따라가고 그냥 갔다가 빨리 올라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딸이니까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약간 어떤 포지션을 이용할달까?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쉬고 오고 오히려 이용

한달까. 그냥 짧은 시간 쉬고 오고 그런 식으로.

- 면접자 31(여, 만27세)

여성면접자 31은 가족 내에서 아들이 아닌 딸로서 상대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적게 갖고 있었으며, 집안에 며느리가 생겨남으로써 그 부담이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면접자 31의 부모는 가사노동과 각종 경조사 참여에 있어서 딸에게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딸을 결혼하면 출가외인이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면접자 31 역시, 가족과 느슨한 관계를 맺으며 자녀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딸과 며느리에 대한 부모님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서 ‘며느리 되기’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결혼을 최대한 지연하고자 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B : 보통 여자들이 많이 저도 결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현실적인데 보통 여자들이 많이 결혼하면 시댁문제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막 이렇게 간섭받는 게 싫고 지금도 사실 부모님 있는 집에 살면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간섭에서 많이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시댁문제랑 엮이고 사람들이랑 엮이고 하는 게 저는 많이 불편해요.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원에서 못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있는 트러블은 제가 노력하면 풀 수 있는데 사람 사이에 생기는 어떤 트러블은 저는 좀 싫더라고요.

A : 그렇죠... 그러면은 한 언제쯤 결혼을 전혀 안할 생각은 아니신 거죠?(00:05:40)

B : 모르겠어요. 사실 참 이중 잣대인데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고 싶는데 또 결혼을 막상 하자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간섭받고 시부모님 문제나 이런 거에 저는 또 트러블을 겪기도 싫고 이러니까 참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참 혼란스러운 단계인 것 같아요.

-면접자 10(여, 만29세)

여성면접자 10의 진술처럼 여성들은 ‘며느리 되기’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간섭을 벗어나길 원하는 면접자 10은 부모와의 관계는 물적인 독립 여건을 마련하고 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다소 느슨한 의무감을 갖는 딸로서의 역할보다는 다소 강제적인 의무감을 부여받는 며느리로서 역할이 이들에게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3) 부분적 독립

부모의 간섭에서 자유롭고자 부분적으로 독립한 경우도 있었는데, 우선 주거적 독립으로 보다 부담이 줄고 편안해 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적 독립은 취업과 함께 보다 자연스레 되는 것이기에 주거적 독립이 이들에겐 더욱 큰 의미로 작용하는 듯 했고, 특히 여성면접자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거독립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에 독립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보였다.

지금 제대로 된 독립은 아니지만 독립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계속 물어보시고 이런 건 이미 육체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잖아요. 전화상으로 하기에 그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 계획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즐기는 그 줄기로 나가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세부적인 이런 건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터치할 사람이 없어서 엄청 부담이 줄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 면접자 2(여, 만27세)

여성면접자 2는 부모로부터 간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거 독립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속적인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면접자 2는 주거 독립과 함께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었는데, 주거독립과 경제적 독립의 성취 이후 부모님의 간섭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보조를 받지만 주거 독립을 하고 있는 여성면접자들은 주거 분리를 통해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부모의 간섭이 전보다는 간헐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존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독립된 생활 방식에 대한 만족감은 크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의 관여 정도에 따른 주거 독립에 대한 의지는 여성면접자들 간에도 차이를 보인다.

B : 전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솔직히 혼자 살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집값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부모님께서는 죄송한데, 빌붙어야. (웃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더 절약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긴 해요, 편하기는.

A : 친구 분들은 아직까지 거의 다 결혼을 안 하셨다니까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이 많으

시겠어요.

B : 서울 사는 친구들은 다 자취해요.

A : 아, 혼자서 자취하고 계시는 친구들도 있으시고.

B :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은, 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A : 그런데 스물일곱(살)이면 부모님하고의 정서적인 갈등이나 압박 때문에 집에서 떨어져나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부딪히는 면은 없으신가요?

B : 혼자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그때는 자유롭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부모님이 취업에 관한 압박을 좀 주셔도 많이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따라주시는 편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은.

- 면접자 26(여, 만 26세)

여성면접자 26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여성의 주거에 대한 독립의지는 차이를 보인다. 면접자 26는 부모님께서 공무원을 권하며 취업에 대한 압박을 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의견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부모와 물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독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독립 의지를 상쇄시키기도 한다. 여성 면접자들 중에는 면접자 26과 같이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원하지만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전략을 선호하기도 했다.

3) 결혼 전략의 성별 차이 : 가사노동 공동화와 결혼 지연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젠더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남성은 대체적으로 취업 이후 결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남성은 성인이 이행에 있어서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이지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저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결혼이 본인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결혼 이후의 가사 분담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전적으로 아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역할보다는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는데, 가족노동

의 불평등한 분담에서 기인한 임금노동 중단은 여성의 커리어, 수입,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상에서의 위치 모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성은 가족으로 인해 힘을 얻는(empowered)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소진된다(Clement & Myles, 1995; 전현경, 2003에서 재인용) 연구대상자들 중에서도 여성면접자들은 결혼으로 인해 맡게 되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육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연시하기도 했다. 남성과 달리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취업보다도 결혼에 더욱 무게감을 싣고 있는 듯 했다. 취업 역시 더 좋은 결혼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첫 번째는 결혼 이후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였다. 결혼을 통해서 개인 시간이 줄어들고, 가사노동과 출산, 육아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천천히 하거나 아예 안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있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1) 남성참여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남성면접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가사노동의 전적인 책임을 맡아온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생산 노동의 여성 전담을 당연시하기보다는 일정부분 거리두기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보이고 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 가정 일에 먼저 좀 충실한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일단 맞벌이에 대해서 그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었으면 좋겠고, 취미 있고.. 그런 여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A : 반드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진 않더라도?)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그제 나중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봉사 같은 걸 좋아하는 여자면 전혀 수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 사회활동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업주부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거는.. 저는 그.. 반대예요.

(가사분담은) 한 8대 2

전업주부일 때는 한 (휴지2초) 거의 제가 하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돈

별 때는, 사회활동하고 돈 별 때는, 8대 2정도.

일단 가정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빨래 청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요리나 그런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육아인데 애 키우는 일인데 그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양육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5대5.. 여야 되겠쥬, 요즘은. 그것도 다 여자보고 하라 그러면 어떤 남자랑.. 그런 남자랑 여자가 왜.. 결혼하겠어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마가 저희 어릴 때는.. 거의 집안일을 다 하셨어요. 아빠 얼굴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워낙 바깥 활동을 좋아하셔서가지고. 네.. 부모님이 딱, 그 엄마가.. 학원을 하셨는데, 엄마가 학원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맨날 힘들었는데, 사실 아빠가 요리를 더 잘해요. 가끔씩 엄마 없을 때마다 아빠가 해주는 아빠가 한 요리가 더 맛있는데, 아빠는 놀고 했었는데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했어요. 저희도 솔직히 아빠니까 요리를 더 잘했지만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아빠가 있는 것보단 좋거든요. 편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아빠는 당연히 바깥,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밖에서 바깥활동 하시다가 저희가 다른 데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아!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데서도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은? 활동?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 동생이랑 저랑 다 대학가고 나서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빠가 밖에서 놀지 않고 엄마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저녁 다해놓고, 빨래 다해놓고, 청소 다해놓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제 제가 육아가 중요하다, 여자가 집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들 키우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을 때는 충분히 남자가 집안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양육은 9대 1? 정도.

딱 아이가 클 때 가장 필요한 게 모성인 것 같아요. 뭔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남자가 중심을 잡아주면, 그리고, 아니 교육의 방향을 딱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엄마는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고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중학교만 가도 이제 보통 엄마를, 엄마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때도 아빠말도 안 먹히면은 그건 가정.. 가정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음 적당히 이렇게 필요한 데 그런 것.

엄마가 친밀한 관계를 9정도 형성해 주면 적당히 거리를 1정도만 하시면서 두셨다가 나중에 그게 이럴 때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필요할 때 사용

- 면접자 3(남, 만 24세)

면접자3의 경우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이 사회생활보다는

가정 일에 더욱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가사분담에 있어서도 여성이 대부분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다른 집안일은 어느 정도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육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진술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면접자 3의 경우와 같이 출산, 양육, 가사노동의 영역을 연관 짓기보다는 분절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성면접자들은 각 영역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환산하여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획짓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생산 노동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서술하는 여성들과 대비되는 남성들의 진술 방식은 재생산 노동을 여전히 자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면접자들이 가사노동을 자기 과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의미화하지 못하고 피동적인 방식의 수행의지를 드러내는 데에는 부모 생활방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듯 했다. 대부분의 면접자가 본인의 경험이나 가족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었는데, 면접자3 역시 자신의 어린시절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권위’와 ‘모성’의 가치에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합하는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면접자3의 경우도 그것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면접자 3은 전업주부였다가 학원 운영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했던 어머니를 언급하며 일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다소 가부장적인 성향의 남성이라도 부모의 경험에 비추어 여성의 부담을 인정하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나마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면접자1(남, 만25세)은 앞서 진술한 면접자3과 같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향을 갖은 남성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면접자1은 결혼 이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우자도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 있다면, 배우자가 뭐, 결혼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도, 그거는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회가, 요즘 추세들이 다 맞벌이를 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가정 단위들도, 가정의 규모, 규모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깐 맞벌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변에 사촌 형들이나 보면은 다 맞벌이를 해요. 아무래도 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깐 맞벌이 하는 가정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건 상당히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여자 친구가 있다 보니까... 뭐, 그 친구랑 결혼 생각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친구랑 결혼생각 까지도 하는 이유도 그 친구의 장래성도 아무래도... 이제 결혼 한 이후에도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고려되는 거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의견이 매우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거 같은데 배우자가 능력이 있으면 가정에서 남성이 기를 펴지 못 한다... (웃음)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기계 세고 세지 않고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주저 하며) 저는 그런 사실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주변을 봤을 때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이 능력이 없으면 이혼... 확률도 매우 높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 좀... 약간 반감이라 해야 될까?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 면접자 1(남, 만25세)

면접자1에게 ‘맞벌이’ 선택은 빈곤이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남성 생계부양 모델이 갖는 한계와 이에 대한 남성들의 전략을 보여준다. 면접자1은 여자 친구가 현재 대기업에 다니며 이러한 부분이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 점이라고 했는데, 남성 역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낭만적 사랑’ 이외에도 상대방의 ‘경제활동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아내가 본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배우자가 본인보다 능력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면접자가 언급한 것처럼, 개방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이는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비춰지기도 했다.

20대의 청년으로서 어떻게 보면 매우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서양문물을 쉽게, 새로운 것을 쉽게 체득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집이 매우 가부장적인 가족이거든요. 어머니는 결혼하셔서 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업주부로만 계셨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아직, 남성의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나...

남성도 어느 정도의 가사노동을 함께 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적인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무 것도 안하세요. 근데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청소도 하시

고... 근데 집에만 오면 안하시거든요? 되게 신기하게도. 밖에는, 쓰레기도 있으면, 회사에 그것도 손수 정리하고 치우시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사 노동도 엄연히 노동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수입을 얻는, 금전적인... 제공이 되는 노동만이 노동이 아니라 가사노동도 충분히 몇가가 필요한 노동인데 가사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 자체가 대학생들을 하면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수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성 정책론이라든지, 성의 과학 이런 것도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남성성의 측면과 여성성의 측면을 모두 다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 이후에 있어서도,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뭐, 반반.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반반은 절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직장이 있다면 가사 부담에 있어서 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긴 하겠죠.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 (생각하며) 이게 되게 상대적이다 보니까 전업주부였을 때의 가치를 확 줄이는 경향이 되는 거 같아요. 생각을 하다보면, (A : 아 그렇게 되요?) 왜냐면 아까는 ‘전업주부여도 한 6대 4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A : 두 경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전업주부면 그래도 한... (A : 덜 양보해도 될 거 같다?) 덜 양보해도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수치상으로 말하면 제가 뽀뽀한 남성이 되는....

- 면접자 1(남, 만25세)

면접자1은 그래도 결혼이후 집안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있었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비율이 많아지겠지만, 전적으로 여성의 일로 치부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면접자 1이 전통적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거리를 두게 된 데에는 역시 부모님의 삶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진술한 면접자3과 달리, 면접자1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아버지의 이중적인 행동에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행위 맥락에는 개인적 성향도 자리하겠지만, 면접자1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학’을 통한 인식의 전환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남성 개개인의 의식화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에서 여성학 커리큘럼의 대중화 및 확대는 남성들의 인식 전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면접자 1 역시, 앞서 진술한 면접자3과 비슷한 방식으로 ‘몇 대 몇’ 으로 가사노동 비율을 수치로 환원하며 ‘양육’ 의 문제로 상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학 수업과 사회 담론의 영향은 가사노동과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남성에게 대한 거리두기의 기회를 주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흡수하며 참여의사를 표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성면접자들은 가사노동과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그 공동화를 매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책임이 아닌, ‘친밀성’ 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현하고 ‘돌봄의 가치’ 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의미화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또한 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남성들에게 있어서 ‘양육’ 의 참여의지는 ‘가사노동’ 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모성’ 과 연관 짓는 전통적 성역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여성들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이다.

면접자5(남, 만28세)는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취업을 말하고 있었다.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에 결혼을 하고, 결혼 이후에 출산도 2-3년 후에 하는 순차적인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면접자5도 배우자보다는 본인이 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것이 사회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다른 남성 응답자들보다는 자신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었다. 면접자5는 자신의 어머니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은 본인의 어머니가 양육했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일단 취업을 해야 되죠. 취업을 안 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무모한 짓 같고, 취업을 하고 한 2년 뒤에 결혼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도 바로 출산, 애를 가지는 것 보다는 2-3년 후에? 그 순서대로 갈 때 이상적인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 일 안하고 놀면서 와이프 덕 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심이 일단 있고요, 에 약간, 강하고요, 글썽요 아직까지...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남자가 여자보다는 약간 조금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고요. 뭔가 아무 일 안하고 와이프 경제적 능력으로 덕을 보며 사는 것은 좋지 않을 거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 봤었는데, 그게 진짜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전업주부면 계속 전업주부 할 거이고요. 만약에 일을 하려면 집안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해 줄 거고요.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를... 아직까지 저도 뭐가 낫다고는 결정 못 내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해 주고 싶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걸로.

일단 맞벌이를 하면 경제적인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심리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 쪽 수업을... 흥미가 없어서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기초 발달이나, 약간 그런 쪽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라는 존재가 되게 큰 거 같더라고요. 발달을 하는 데나 애착을 형성하는 데나, 그런데서 클 거 같아서.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전업주부라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많이 케어 해 주셨는데, 주위 제 친구들 중에 맞벌이나 하시는 부모님들 보고 그러면, 딱히 뭐 잘못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렸을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게 낫겠.. 그런 자녀양육 면에서는 와이프가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경제력과 자녀양육...

저는 거기(가사분담)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 거 같아요. 친구들과 비교해도, 저희 아버지가 약간, 집안일은 손도 안 대시는, 부엌에는 잘 안 들어가시는 약간, 그런 성격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보면서 저러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를 하려면, 적어도 40프로에서 집안일을 50, 반 정도는 정말 해 줄 수 있을 거 같고요. 전업주부면 그것보단 줄어들겠지만, 청소나 설거지 정도?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 면접자 5(남, 만28세)

아이가 있으면 애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이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그건 같이 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집안일도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서로 같은 입장에서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분담이요?... 글쎄요 누가 특별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안하니까요.

저희 집도 그래요. 원래 집이 그래요. 시간 나는 사람이 그냥 막 해요.

- 면접자 7(남, 만27세)

(아이를 낳으면) 와이프는 집에 있어야죠.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죠. 한 사람이. 그래야 애들한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꼭 남자가 돈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조을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현명한 거죠.

- 면접자 8(남, 만25세)

면접자7과 면접자8은 전혀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었는데, 면접자7의 경우에는 성역할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현재 본인의 가정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반면 면접자8은 자녀양육을 여성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다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뭔가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 문제나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음 결혼을 왜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심리학 쪽을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쪽 책을 좀 봤었는데, 보통 남자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고, 그거랑 관련해서 저도 그냥 내가 이대로 늙어서 죽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회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딱히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나한테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누나가 남자친구랑 사귀고 이제 결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도 “아 그냥 좋아서 결혼을 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때를 놓치기 십상인데, 그냥 옛날 사람들이 다 조건이 다 갖춰져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여쭙보면 돈 벌다보니까 방이 하나 더 생기고 집이, 집을 찾게 되고 좋은 집을, 넓은 집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너네를 낳고, 그런 것 보면 참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 그냥 상대방을 믿고 결혼한다는 자체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그런 걸 상대방을 믿고 어떤, 짐을 짊어진다는 표현을, 짊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7초) 연약한 소리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남자들도 좋아서 결혼을 하죠.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 아이가 낳으면

행복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겠죠. 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책임감이 변하고 책임감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남자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호주를 갔다 왔을 때는 호주를 예전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뭔가 한국과는 다른 자유스러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5일 근무를 하면 뭐 주말에는 무조건 비치로 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생을 굉장히 즐기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집은 강남구 뭐 24평 아파트인데 나는 뭐 그냥 전세야, 이렇게 하면 전세라고 해서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비교가 되잖아요 상대방과. 비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남편은 지금 몇 살인데 어느 정도 뭐 팀장이야, 이렇게 하고. 그럼 상대방은 또 우리 남편은 지금 집도 없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원이야 이제, 그러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 것 자체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 물론, 부인이 좀 능력이 된다 그러면, 물론 애를 낳을 때는 집에 있어야겠지만, 배가 이렇게 나온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고. 그렇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부인이 능력이 된다면, 남편이 주부를 하거나 가정주부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면 굉장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니네 남편 집에 있다면서?”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좀 편하게 좀 빠져나오지, 빠져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좀 많이, 남편에 대한, 남편이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아이를 낳았으면 내 가족의, 네 명의 가족의 생계를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성보다는 그래도 남성이 좀 부담감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면접자 20(남, 만27세)

면접자 20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면접자 20은 호주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 결혼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고정된 성역할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타인의 배타적인 시선은 남성에게도 행위의 제약을 가져오며 일정 정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면접자 20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성으로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선택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의 차이로 선택하기를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면접자20은 본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힘든 점들을 언급하면서 여성은 더더욱 결혼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정적으로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결혼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힘든 점이고 여성이 가사노동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남성은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결혼이후의 삶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여자가,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전업주부, 많다고 하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전업주부. 하고 싶은데, 웬지 그러면 솔직히 손가락질 받을 거 같기도 하고,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우리 사회에서 풍토로 봤을 때 남자는, 남자가 가장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면접자 23(남, 만26세)

지금은 여자 친구가 없어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부터 모으는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지금 여자친구가 생긴다 해도, 1년 이렇게 만난다고 치면 1년 뒤면 제가 취업을 알아보고 있을 때라서 취업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어요. 지금 당장 생긴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보다 늦게 생긴다면 취업이 먼저 되겠죠? 뭐, 사고치지 않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처음엔 결혼한 것 보고 되게 부럽단 생각이 많이 했어요. 되게 행복해 보이고, 개가 지금 인천 살아서 한 번씩 제가 놀러가요. 가는데, 애가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휴학해놓고 계속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보면 하아(웃음) 일찍 결혼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해요. 처음엔 되게 부러웠는데. 애한테 치여 살고 자기 좀 젊을 때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해보고 결혼에 묶여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취업하고 30대쯤에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이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 부부이셨거든요. 지금도 두 분 다 일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맞벌이하시니까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게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생기고, 그 때의 경제적인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는데. 일단은 직장은 결혼할 때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 때는 좀 바뀔지는 몰라도. 잠시 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일단 만약에 서울에서 산다 생각하면 더 (직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서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요, 돈이.

다 할 수 있는 건 나누어서 하는 거죠. 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해도 반반정도는 나누어야 겠죠. 당연히 일을 한다면.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하실 땐 거의 어머니가 일을 다 하셨어요, 집안일을. 그런데 아버지가 중간에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또 다른 데서 일을 하시지만,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을 아버지가 많이 하셨어요.(웃음) 그래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래서 집안일 많이 하시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남자도 부담해야죠.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남자는 결혼에 대해 부담을 더 많이. 여자는 그래도 남자가 벌어오는...당연히 직장 있는 남자를 만나겠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여자들은....걱정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전.

- 면접자 27(남, 만26세)

결혼할 때쯤에 제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괜찮은 수입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부인은 집안에서 가사를 하면서 있기를 바라는 편이고요.

오래 뒤의 일이겠지만,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애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싶고요. 부모가 모두 밖에 나가 있으면 집이 잘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요.

- 면접자 28(남, 만25세)

면접자20, 면접자23, 면접자27, 면접자28 의 경우에는 모두 남성 응답자로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책임감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점을 보인 것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면,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는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전담하는 하는 것으로는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능력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들도 결혼을 미루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여성참여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여성면접자들의 인식은 주로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그 고민의 내용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상적인 수준에서 점차 현실적인 협상과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즉, 20대 초반에는 결혼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주로 부모와 친족 관계를 참조하는 방식이라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협상 가능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취합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애과정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출산 위기’ 담론은 끊임없이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이미지화하고 ‘결혼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는 여성’ 대 ‘출산하는 여성’으로 구별 짓는다(조은, 2008). 연구 참여자들 역시,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는 듯,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여성의 당면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학을 두 번째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랑 하나만 되겠다, 결혼이란 건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해야 되고 사랑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고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면... 저는 그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첫 번째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순위고 뭐 두 번째가 종교가 같아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매겨졌었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경제력이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무능하다면 일단은 뭐 이렇게 사랑은 잠시 할 수 있겠지만 결혼, 배우자로서, 결혼 대상자로서는 제외가 될 것 같아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남성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이랑 남성이랑 이렇게 인간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건 여자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음 인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여자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애를 낳고 기르는 데에는 뭐 이렇게.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세 살 그 전까지 다른 사람 손을 거치면 그 시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안 좋은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그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세 살...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여자가 아이를 보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으로서.

- 면접자 2(여, 만27세)

면접자2는 나이를 먹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상적으로 사랑만이 조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남성이 일단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결혼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은 아니고,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역할로 인해 경제력을 갖지 못함으로 남성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만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출산은 남성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서 남성이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전업 주부가, 평생을 그렇게... 요즘에는 그 유아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일이 많이 바빠서 잠시 남편이 뭐 잠시 쉬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업주부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정말 전문적인 자기 능력 없이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안...

- 면접자 2(여, 만27세)

육아와 관련해서는 남성도 여성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면접자 2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후 다른 남성 면접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겠지만,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남성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출산은 당연한 여성의 몫이며 육아 역시 여성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 이후 과정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친구가 스물다섯 살인가 스물네 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학교 늦게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투덜투덜거렸는데 참 너 때가 좋을 때라고, 혼자서 공부할 때가 좋을 때라고 하면서 결혼에 회의감을 보이길래 저도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이 그렇게 환상적인 좋은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집 자체가 워낙 부모님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이길래 저는 빨리 집을 어떻게 떠나서 결혼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하면 그런 게 진짜, 아무 사람이라도 일단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실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 그렇게 결혼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 결혼을, 저보다 뭐 많이 뭐 경제력이 좋고 직업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저 자신이 일단 경제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일단 첫 번째는 경제력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이가 스물여덟 살이지만, 보통 스물여덟 살에 결혼을 많이, 주위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일정한 직업을 갖는, 서른한 살 쯤 정도 돼서 그때 되면, 뭐 예전에는 정말 정말 헤어지면 안 될 정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제 삶을 제대로 잘 행복하게 해나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한 위치의 사람과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경제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게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면접자 2(여, 만27세)

면접자2는 주변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 결혼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경제력이나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본인의 능력과 경제력을 높인 다음, 그에 걸맞는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생활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은 취업 역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 는 사실이다.

특히 결혼 이후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집안일을 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남편이 어느 정도의 가사일을 분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며, 본인이 좋은 직업을 가질수록 남편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가사일에 대한 차이도 발생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커리어에 대한 욕망을 갖은 여성면접자들은 맞벌이를 함으로써 가족 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직업을 통해 획득된 소득과 사회적 지위는 가족생활에서 의사결정권을 높이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섭력으로 기능하는 것이다(전경아, 2003).

면접자 2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결혼생활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결혼을 해도 제가 직장일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저희 집도, 제가 봐온 삶도 그렇고 한국 사회 자체도 그렇고 여자가 너무 가사 노동이 많잖아요. 지금 그게 좀 변화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딱 반반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반반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뭐 일주일, 주말 같은 경우는 설거지, 방청소 이 정도 같이 해주는, 뭐 밥을 차려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30 정도의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가사 분담 자체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두 분 다 일을 하시는데, 똑같이 뭐 아버지가 더 늦게 들어오시고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같이 일한다고 하면 전혀 아버지는 집안 일 전혀 안하셨어요. 어머니가 다 하셨는데 그걸 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까진 바라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사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집을 보지도 않고도 저한테 그게 좀 안 좋게 그게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결혼이란 걸 생각하는 데 아버지가 남자로서 집안일을 하는, 부담하는 정도가, 그것 또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 분담, 경제력, 경제력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엄청 행복하는, 행복한 그런 집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은, 않아 보이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불화가 가사 분담도 어느 정도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결혼에 대해서 스물일곱 살, 예전, 결혼을 결심하는 몇 년 전, 이렇게 전까지 결심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 그 뒤로 의논을 했던 그 선생님의 집은 되게 달랐거든요 저희 집하고 많이 달랐고, 그 선생님의 다른 아는 분들의 집안 얘기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집의 가정환경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그건 어느 정도 저희 집이 이렇게 많이, 지금은 엄청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지만 어렸을 땐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경제력과 좋은 직업의 그런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의논을 했던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경제력을 좀 갖추고 결혼을 하면 그런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직업이 좋은 상태라면 배우자도 저의

직업,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를 존중해주고 가사 분담에서도, 만약에 제가 경쟁력이 없고 그냥 결혼했다면 집에서 전업 주부인데 집안일을 안 했을 경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못 표현할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을 갖추거나 하고 경제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을 때에 가사 분담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면접자 2(여, 만27세)

가사노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했던 면접자2는 나이가 들면서 주위 사람들을 삶을 참조하면서 협상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 가운데 ‘경제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성의 경제력은 가정 내에서 일종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는 여성이 그러한 물질 조건을 획득했을 때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환기를 통해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협상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면접자 4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명절과 같은 때에 여성들이 해야 하는 가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도 장남을 피하고 싶다면, 가능한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면 어쨌든 새로운 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하고 만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봐와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가정하고 그 쪽 가족한테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챙겨야 되기도 하고, 그럴려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배우고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좀 **시에는 조금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때는 그렇다고 좀 어중간하게 그냥 *** 바로 결혼을 해버리는 것도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쪽 가족한테도 좀 충실하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결혼에 대한 조금 책임감적인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옆집에 살고 저희 아버지가 장님이셔 가지고, 약간 흔히 말하는 제사라든지 우리 엄마가 챙길 것도 워낙에 많았고, 저는 어릴 때는 못 느꼈는데, 커가면서 조금 약간 힘들어하시는 거를 보아서요. (A : 어머님께서요?) 예.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 그래서 어머님도 바로 빨리 결혼하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고.

희안하게 제 주변에 다들 사촌들이 다 남자밖에 없어서, 특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다 남자가 저 혼자 여자였거든요. 그니까 저희 숙모랑 저희 어머니랑 여자는 저희 할머니, 저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됐어서, 약간 할아버지 집에 명절 때나 큰집에 갔을 때 막 가족들 모여서 재미나단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면 그냥 손님 오면 계속 뭐 저는 그냥 부엌에 있어야 했고, 부엌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과 잘은 지내야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준비 안됐을 때 가면 너무 힘들 거 같아요. 아예 이렇게 말을 딱 했을 때, 생각이 같았을 때, 그런, 결혼하면은, 저도 그런 경험도 많아서 조금 더 약간 여자는 일을 해야 되는, 자기 일을 가지고 있지만, 부엌 밑에 가서 정말 밑 거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기왕에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장남이 아니라든지, 그쪽, 서로 너무 뭐 가깝지 않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겪으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 싶었던 거는 좀 피하게 될 거 같아요. 약간 저한테 책임이 좀 많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면접자 4(여, 만24세)

면접자4의 경우에는 결혼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답변을 해주었는데, 요약하자면 결혼 이후 독립적인 생활이 아닌 시부모님과 남편에 의해 간섭받는 삶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엄마, 며느리, 아내로서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 보다는 좋은 엄마, 착한 며느리, 현명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떨쳐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집안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반반의 집안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남성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이 부분은 결국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가사노동을 누가 얼마만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 또한 이러한 점이라고 판단되었다. 예를 들자면, 결혼 이후 남성이 처갓집에 가는 것과 여성이 시댁에 가는 것은 둘 다 불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여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이 처갓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지만, 여성이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잘못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러한 인식 자체가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딸로서의 역할이 지워지고 며느리로서 역할이 강하게 자리잡는 것에는 결혼 이후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여성 면접자들 중에는 결혼 이후에도 부모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A : 만약에 취업을 하시거나 결혼을 하셨을 때에.. 아 일단 취업부터 얘기를 하죠. 취업을 하셨을 때에 지금 부모님과 동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주거적으로나 그런 면에서는 딱히 독립을 하시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B : 결혼 전까지는.

A : 결혼 전까지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서는 어떠세요 그럴 때는 주거독립?

B : 그게 좀 애매한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엄마랑, 아니 주거독립을 하더라도 비슷한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큰집, 정말 큰 집을 합쳐서 같이 살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랑.

A : 아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동의를 하셔야 겠네요.

B : 네. 아 그래도 조율을 해야죠. 그 구체적인 상황을. 딱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A : 만약에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건 안 되겠다. 하신다면?

B : 조... 조율을 최대한...

A : 조율을 어떤 방향으로?

B : 내.. 내가 좀 원하는...

A : 원하는 방향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00:20:30)

B : 같이 살거나. 아니면 비슷... 가까이 살거나.

A : 아 일단 가까운 곳에서.

B : 네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하잖아요. 정서적으로나 약간. 그러니까 뭔가 허드렛일도 하고.

A :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식된 도리로서의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B : 네. 단지 그렇게 되면 육아 부담 같은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지만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아무래도 그런 거 생각하실 거 아니예요, 뭐 봐주고. 그렇게 하면...

아 복잡해지네요. 그쪽까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해서.

- 면접자 6(여, 만25세)

면접자6은 약학 대학원에 진학을 준비 중으로 대학졸업 이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결혼 할 계획이며,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양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성면접자들 중에는 독립적인 경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남편 직계가족 중심의 부모 부양에서 벗어나 자신의 원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여성이 자신의 경제력으로 원부모와의 관계를 남편과 협상하는 것은 최근의 변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경제적 소유권의 처분 주체가 남성이었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면접자 6은 여동생이 있으며, 맏딸로서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자녀의 구성이 여아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결혼 후에도 원가족과 맺는 관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 비록 출가외인으로서 정체성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딸로서 역할을 유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변화에는 가사노동의 공동화를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보조받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에 의해 추동되기도 한다. 면접자 6이 결혼 후에도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데에는 부모 돌봄을 염두 해 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보조받고자하는 전략이 담겨있는 것이다. 즉, 가사노동과 육아를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 여성들은 공동화된 가사노동과 육아를 메우기 위해 친부모와 가깝게 지내며 보조를 받는 방식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 내가 집안일을 다 맡고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냥 뭐 반반씩 하든지 뭐 네, 조금 더 이렇게 타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아까 그 결혼 한국남자랑 하기 싫다라고 한 게 뭐 남자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결혼해서 집안일을 반반씩 부담하면 그게 정말 반반씩 부담해서 같이 하는 것뿐인데 남자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의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정을 꾸리는 건데 같이 하는 건데 만약 애를 낳아도 양육을 해도 같이 하는 건데 그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나 한국 사람들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 하게 되면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게 싫고 저는 조금 가족한테 희생하고 그런 쪽은 생각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조금 부족하고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책임감이나 이런 거를 막 느끼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잘 못 기를 거 같아요. 하나도 못 할 거 같아서.

조금 제 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한다는 부담감이랑 책임감 경제적으로 말구 심적으로. 아무래도 내 생활을 포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내 공간을 아이에게 좀 더 내주고 내 시간을 좀 더 내주고 이런 거잖아요. 애를 기른다는 게 그런 거 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 꺼려져요.

직업이 없다 남자가? 아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니까 직업이 없다는 게 경제적으로 못 별어서 싫다기보다는 직업이 없으면 아무래도 저한테 간섭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싫어요.

전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의 엄마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 자식 인생이 부모 자기 뭐 엄마의 인생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엄마들이 일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전업주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러는 게 그냥 자기 어떤 직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과 동일시시키고 또 남편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자기의 성공이라고 같이 받아들이고 동등한 관계라고 사회적 지위를 그러니까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곧 나의 사회적 지위라고 하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것이 싫거든요.

그냥, 왜 간섭을... 그걸 왜 동일시시키고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자식의 성공의 여부를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시키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많이. 근데 그걸 갖고 엄마한테 제가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는 않는데 엄마한테 그거를 내색하거나 하지는 않죠.

- 면접자 10(여, 만29세)

면접자10은 전업주부로서의 평생을 지내온 어머니의 삶을 참조하며, 타인의 삶을 돌보고 그것의 성취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이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에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 학원 영어강사로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면접자10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전업주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보이고 있었다. 면접자10에게 ‘중산층 전업주부’는 가정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여성을 의미하며, 여성의 자아정체성은 타인의 삶에 의해서 규명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자기 세계의 부재’, ‘자기 삶 없음’, ‘도태’로 의미된다. 따라서 면접자10에게 있어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면접자10은 가정 내 남성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남성이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능력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꺼려지기 보다는, 일상적인 영역에 대한 간섭이 심해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는 자아실현의 가능성으로서 여성이 사회생활이 보장받아야한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면접자10에게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각자의 독립된 영역을 유지하며 친밀성의 공간을 마련할 때 가능한 것이다.

면접자11(여, 만 28세)은 결혼과 출산과 관련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을 때 어른이라고 응답했다. 결혼과 출산 이후 어른이라고 응답한 것에는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은 정말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 또한 정말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저 하나도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부양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은 그냥 연애하고는 또 다르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말 양쪽의 균형을 잘 맞게 챙기면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직은,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조그맣게 생각을 해도 당장 결혼을 하면, 당장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을 어떻게 다해요. 음. 뭐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럴만한 용기도 없지만, 그렇게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 면접자 11(여, 만 28세)

면접자 11처럼 여성들은 가족을 형성하고 출산과 양육을 성인기 이행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거대한 변환의 과정으로서 분절되고 단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안정’을 기대하고 결혼을 자연스러운 통과의례로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새로운 변환으로 생애주기를 설정해야하는 과제로서 결혼을 인식하고 있었다. 면접자 11의 진술처럼 결혼은 여성에게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고 유지해야하고’,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주체’로서 기존 삶의 패턴과 일상을 전면적으로 변환시켜야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3) 친밀성의 욕구와 결혼 지연 사이의 갈등

결혼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남성배우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결혼 이후 가사노동이나 사회생활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들이 취업을 더욱 우선시 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는 반면 여성들은 취업을 결혼을 위한 조건이나 통과 의례로 여기고 있었다.

결혼이란 건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해야 되고 사랑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한순간인 것 같고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고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면... 저는 그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첫 번째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순위고 뭐 두 번째가 종교가 같아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매겨졌었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경제력이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무능하다면 일단은 뭐 이렇게 사랑은 잠시 할 수 있겠지만 결혼, 배우자로서, 결혼 대상자로서는 제외가 될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이가 스물여덟 살이지만, 보통 스물여덟 살에 결혼을 많이, 주위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일정한 직업을 갖는, 서른한 살 쯤 정도 돼서 그때 되면, 뭐 예전에는 정말 정말 헤어지면 안 될 정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제 삶을 제대로 잘 행복하게 해나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저랑 비슷한 위치의 사람과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경제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게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면접자 2(여, 만27세)

그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해선 불행한 것만 봤기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한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도 그렇고요.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뭐 돈이 있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가 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일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아기를 낳으면 그런 육아 문제, 그리고 제가 아기를,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거 되게 많죠. (웃음) 그래가지고 아 아기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낳으면 예쁘겠죠. 그런데 그 아기를 길러야 되고, 기르면서 노심초사하고 막 그

런 게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그리고 딸 낳으면 뉴스 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성폭행 당하고. 벌써부터 걱정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성격이 남달라 가지고 되게 걱정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더 못 하는 것 같기도 해요.

－ 면접자 17(여, 만28세)

여성면접자 2와 여성면접자 17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친밀성에 대한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결혼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면접자2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먼저 선취해야 하는 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의 공동화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은 성인기 이행에서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전략 세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경우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노동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출산과 양육 욕망 자체가 부재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생애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로서 출산과 양육을 인식하지만 한편으로는 친밀성에 대한 욕구와 노후 삶의 연관성에서 이러한 욕망을 갖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커리어와 자기개발을 실천하고픈 여성들의 욕망은 여성의 나이와 조건에 대한 모순된 평가체제를 갖고 있는 결혼시장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제가 고민했던 게 학교 다니면서 아카데미 다니는 게 가능할까를 고민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도 만약에 박사를, 그런데 또 석사하고 박사는 또 다르잖아요. 박사를 가면 이번엔 정말 매진해야 될 텐데 그 에너지를 쏟을 걸,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선뜻.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부모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너는 네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 안 하고 더 공부하려고 공부하려고 하지만 자꾸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결혼 상대로 만난다 뭐 이러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 남자가,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래도 부담스러워 한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가도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뭘 하든 부담을 안 느낄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 면접자 11(여, 만28세)

여성면접자 11의 진술과 같이 학력자본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그러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결혼제도와 협상 가능한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다. ‘너무 많이 배운 여자는 부담스럽다’ 는 사회적인 인식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커리어 욕망과 모순을 이루고 있는데, 면접자31(여, 만27세)와 32(여, 만27세)는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B : 외무고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다른 게 합격을 하면 거의 결혼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A : 아, 합격을 하면?

B : 네. 합격을 하면 듀오에서 등급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애들은 합격하는 순간 고시생일 때보다 그레이드가 꼭 올라가는데 여자같은 경우는 듀오에서 외무고시 합격하는 순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A : 재미있는 얘기네요.

B : 제 친구 같은 경우도 2차까지 되고 3차 준비하면서 막상 그렇게 되니까 막상 이게 됐을 때 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애완동물이나 키우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되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인 고민을 계속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코트라나 (그런 곳)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재가 남자였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고 이런 친구들 보면 오히려 그거에 맞는 남자를 찾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화 수준이 맞는 남자를 찾기 어렵고 그런 남자를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들은 나보다 어린 여자들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더 높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기보다는 그런데 비슷한 사람도 없다는 게 대부분이고. 여자애들은 대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대학원 잘 안가니까.. 여자가 석사까지 했을 경우에는 힘들죠. 그런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 면접자 31(여, 만27세)

B : 일단 아직 공부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나 공부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공부를 좋아할 수 있지, 아무나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고민 다 때려 치고 빨리 취업을 하고. 어른들은 그렇

젊어요. 한 3-4년 돈을 벌어서 박사과정 가라. 근데 그러면 결혼을 포기해야 되요. 막 그렇더라구요. 실제로 주변사람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기는 싫는데 중요한 건 이쪽이니까. 그래서 딱 박사를 가는 거야. 일단 울타리를 만들어놓고 1-2년동안 취업해서 나도 경제활동 하거든요? 나도 마냥 학생만은 아니예요.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용기도 있고.

A : 그럼 지금 그런 계획들을 성별을 바꿔서 내가 남자였으면 다른 계기나 다른 경로를 갔을까 이런 건 없어요?

B : 사실 제가 만약 남자라면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 유학을 가겠어요. 왜냐면 유학을 갔다오면요, 박사 여자들은 정말 점수 낮구요 남자들은 점수가 높아요. 그랬을 때 결혼을 뒤로 미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끊임없이 저의 선택에는 결혼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1,2년 늦춰질수록 가능성이 너무 확 주니까. 심지어 학위 올라갈수록 확확 주니까. 제가 만약 남자라면 어쨌든 더 쉽게 분명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건지 저의 집 경제수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선택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제 정체성..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 면접자 32(여, 만27세)

여성면접자31과 32 같이,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여성의 높은 학력자본은 배우자로서 매력적이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듀오’와 같은 결혼정보회사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 학력, 재산 등을 참조하여 ‘점수화’ 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평가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담론의 영역을 넘어 일상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과 커리어 사이에서 갈등하기보다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성취를 기대하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에게 결혼과 커리어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 둘 중 한 가지는 ‘포기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여성면접자32는 여성들이 처한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면접자32는 나이듦, 높은 학력자본이 저평가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결혼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친구와 선배, 친척 등 주변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거나 듣게 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를 통해 결혼을 생애과정의 일부로 둘 것인지 여부와 결혼 선택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면접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경험으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결혼 이후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책임을 좀 더 미루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지금,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거에 대한, 저 가족은 부부가 행복해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한 대학생 되고 나서부터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안 좋아요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주위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책임져야 하는 부분) 결혼에 대해선 불행한 것만 봤기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한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도 그렇고요. 맛벌이를 한다고 해도 뭐 돈이 있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맛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가 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일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아기를 낳으면 그런 육아 문제, 그리고 제가 아기를,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거 되게 많죠. (웃음) 그래가지고 아 아기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낳으면 예쁘겠죠. 그런데 그 아기를 길러야 되고, 기르면서 노심초사하고 막 그런 게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그리고 딸 낳으면 뉴스 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성폭행 당하고, 벌써부터 걱정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성격이 남달라 가지고 되게 걱정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더 못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역할이라기보다 좀 피해를 당한다 그래야 되나, 이혼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주위에. 그런데 그 이혼이, 얼마 전에 또 예전에 중학교 때 되게 친했던 애랑 네이트온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걔도 결혼을 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걔도 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때려서. 왜 그런 사람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친척 언니도 막 남편이 임신했는데 남편이 때려서 이혼하고. 그리고 또 제 친척, 저랑 동갑인 어떤 애는 남편이 막 변태였어요. 아니 막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다 그러니까. 누군 또 바람을 피는데, 아랫집 아저씨는 막 되게 학자 스타일이었거든요. 공기업의 무슨 이사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도 바람을 뒀는데 약간 변태적으로. 약간 뭐 그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도저히 너무 싫어요, 싫어졌어요.

아기 낳는 것도 되게 아플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거 솔직히 되게 걱정 되거든요.

– 면접자 17(여, 28세)

제가 엄마 아빠를 봐도 그렇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주변에 그런 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 거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거 보다는 그냥 속편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웬지 어른이라고 하면 애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 같은 자식 낳는 것도 두렵고.

– 면접자 21(여, 25세)

여성면접자 17과 여성면접자 21은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것을 부담감을 넘어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도 여기고 있었다.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진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변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서 간접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했다.

면접자24(여, 만26세)는 남성 면접자들과는 달리 남성이 전업주부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이 전업주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남성들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했다. 또한 면접자24는 결혼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혼에 대한 부담이나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족보다는 개인을 생각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누군가에게 간섭받고 구속되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미혼일 때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다 누려보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안 불안해요. 저는 한 서른 둘 쯤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데,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나 어떡하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아,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나이트를 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남자만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남자인 친구들을 못 만나고 사람 많은 모임도 못 나가고 시간에 항상 쫓겨 살아야 되잖아요. 이때는 남편 밥을 줘야 돼, 이때는 남편 뭘 해 줘야 돼, 애기들 올 시간 됐어. 이런 것 해야 되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아이는 없어도 결혼한 친구들은 있는데 친구들은 그런 말까지는 안하는데 보면 느껴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밖에서 볼일을 보실 때 “너희 아빠 오실시간 됐다. 밥 해야지.” 이러면서 들어오시고, 마음 놓고서 하루라는 시간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혼이 힘들구나’ 생각하고. (웃음) 저는 아직은 좀 자유롭고 싶어요.

저도 그런 (육아도우미) 도움을 받고 싶긴 한데 아이가 그걸로 충분하다면 (유치원) 종일 반 갈을 걸 보내든지 그런 것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 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저처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엄마가 그래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만 둘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아이를 잘 보고 제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면 남편이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거부감은 없어요. 제가 돈만 잘 번다면 차라리 제가 돈을 벌고 남편이 애를 봐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 면접자 24(여, 만26세)

면접자25(여, 만25세)의 경우도 면접자24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점에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결혼하면 구속 받잖아요.

희생해야 하고, 그게 싫어요. 제 삶이 좋다? 저는 혼자도 잘 놀러 다니거든요. 혼자서 영화 보러 잘 가고. 그런데 결혼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싫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랑 부모님 가족 세 명밖에 없지만 결혼하면 남편도 있고 남편의 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생기니까 이 사람들 다 케어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제 자신에게 쓰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면접자25(여, 만25세)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젠더차이는 여성이 결혼 이후 가사노동과 여전히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반면,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이었다. 즉, 여성이 결혼을 지연하고 거부하는 데에는 자신의 커리어 개발과 양립하지 못하는 가사노동,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자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부담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결혼을 지연하고자 하는 욕망이 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성과는 다른 이유가 작용하는데 ‘가장’으로서 책임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족의 가치보다는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은 결혼을 지연하고자 하는데 한 몫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본인보다는 가족을 더 신경써야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혼을 미루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응답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만큼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20대를 보여주고 있는 듯 했다.

이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략은 성인기 이행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결혼을 하면 성인이 되는 것 같다고 성인에 대한 정의를 한 만큼 결혼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곧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결혼에 대해 전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여성면접자들 중에는 나이들의 과정에서 돌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친밀성 욕구가 커지면서 결혼에 대해 협상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A : 제가 이번에 라섹수술을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있더라구요. 3일동안 혼자, 아무 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살피주고 돌봐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 달려와 줄 사람이 없을 때 쿨하게 버텨야 되는 게 어른이 되는거야 그 생각에 이틀을 버텼어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래 쿨해졌다. 스물 아홉 살 좋아. 어른이야. 막 그 생각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결국 엄마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어요.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싶고 아주 나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돌아버리겠으니까 나를 데리러 와라. 펑펑 우니까 엄마도 안쓰러운 거예요. 애가 수술해서 누워있는데 밥도 못먹는다고 하는데. 진짜 친척 이모가 심지어 아무도 데리러 갈 사람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애가. 저희 아빠가 그날 저녁에 그것도 밤 아홉시에 간신히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깨끗이 나았죠. 3일만 고생하면 되는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면접자 32(여, 만27세)

여성면접자 32는 결혼에 대한 욕구와 커리어에 대한 욕구 사이에 크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주위에 돌보는 사람이 부재했던 경험을 통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가사노동, 출산 및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며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결혼

지연 전략을 생각하는 여성면접자들은 친밀성 형성의 방안으로서 결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결혼시장에서 불리해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결혼 지연에 대한 불안함을 갖기도 하였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성인기 이행 과정에 있어서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는 성별화된 이행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균등한 문제 개선하고 보다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별 차이는 연구참여자가 현재 성인 이행 과정 중 어떤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대학에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들은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가장 중요한 성인기 이행의 과제로 보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보다 유리한 취업 조건을 마련하기위해 휴학, 졸업 연기,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은 시기적으로 다른 생애 주기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남성의 ‘군입대’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군에 입대함으로써 공식적인 휴지기를 경험하는 남성면접자들 중에는 경쟁적인 노동시장과 단절된 시공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로서 군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의미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로 대학 휴학, 졸업 연기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여성면접자들의 전략은 노동시장과 단절된 시공간이 아닌 계속적인 연결 속에 형성된 것으로서, 이들의 지연 전략은 어학능력 향상, 해외 경험 쌓기 등 자기개발의 목적성을 띤 것으로 수렴되었다. 또한 취업과정에 있는 여성면접자들은 기업의 여성 인력 기피 경향으로 인해 취업 할당에 있어서의 남녀 불균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성들보다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또한 여성 면접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본 결과, 취업과정에서 여성들은 용모중심주의적 담론의 영향을 남성들보다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여성면접자들 중에는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미용성형과 다이어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외모 관리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불리한 위치는 여성면접자들의 결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사노동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성면접자 대부분은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면접자들에게는 가정과 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혼과 여성의 커리어 개발 욕망이 합치되지 않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비롯된다. 또한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높은 학력과 높은 지위에 대한 저평가는 여성들의 친밀성 형성 욕구와 커리어 욕망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남성면접자와 여성면접자 모두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친밀성 형성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시에 이들은 직업을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기개발 욕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결혼과 커리어 욕망은 서로 합치되지 않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결혼을 통해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남성면접자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욕망은 같은 지향점을 갖으며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았다.

또한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관계는 자녀의 독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청년 세대가 현실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맥락 속에서 연구에 참여한 부모 세대는 자녀를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업과 결혼 등 자녀의 생애 과정에 전반에 관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지원은 일방적이거나 전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후 자신의 노년 생활의 안정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청년 세대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부모의 지원을 부담으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부모의 자원을 활용하고자하는 전략 속에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결혼과 출산 이후 부모로부터 가사노동과 육아를 보조받고자하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2. 정책제언

성인기 이행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전의 경험과 준비상황에 따라 이행 방식의 결정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성인에 대한 전제조건은 책임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때의 책임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향해 갖는 책임의식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나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취업을 성취해 낸 이후에 결혼을 통해 출산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에 따른 출산과 육아 및 가사일 그리고 그에 따른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성보다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는 한편, 여성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성별화된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심층인터뷰를 통해 만난 20대 청년 대부분은 이들의 계층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인기 이행 과정 중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그에 따른 정서적 의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그에 따른 정서적 의존은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모가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예측과 정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성인기 이행과정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젠더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성인기 이행단계에 있는 여성 청년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이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와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 청년고용정책 활성화 및 여성 취업지원 강화

(1)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지원

20대 청년이나 부모세대에 대한 인터뷰에서 경제적 독립은 청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고 청년 실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부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동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은 내부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개별기업차원에서 더 이상 인력개발을 담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신규채용보다 경력자 채용을 우선시하는 최근의 기업의 채용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는 미래의 인적자원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분야의 실업보다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산학협력형 일자리를 구축하고 교육-고용연계를 통한 대학의 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청년 대졸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교육-고용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형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간 괴리에 따른 제도적인 장애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성화 학과 선정·운영, 현장실습 학점제 실시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요인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취업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취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과정 신설, 직능단체의 창업 관련 교육기회 제공 등 대학 정규 교육 중 창업 관련 교육 강화는 물론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창업 인턴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취업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하나로 민간 리쿠르팅 업체가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계 퇴직 경력자를 일정 소양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배치해 현장감 높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mismatch)가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청년 대졸 미취업자 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간 공공부문 인턴채용에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임금 수준 상향을 위해 청년 다수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2)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가.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취업이 주요한 과제라는 점은 여성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남성 청년들이 군 입대 기간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긍정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비해 여성 청년들은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더욱이 여성 청년들에게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취업전략에 비해 결혼전략에 여전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선미 등의 연구(2008)에서 여대생이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남학생에 비해 늦고, 취업준비를 위해 겪는 어려움도 남학생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여성 청년만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진로교육과 취업준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대생커리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개발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 개발 지원사업’은 고학력 청년여성의 생애에 걸친 커리어개발 역량 배양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11년 현재 전국 32개 대학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을 통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종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 사업은 노동부의 ‘대학 취업지원기능 강화사업’이 매년 100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대학 내부의 노하우 축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여성 청년을 위한 진로교육과 취업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여성 청년을 위한 직업정보 사이트 운영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년의 직업선택과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 청년을 위한 직업정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성 청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생산·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은 여성 청년들의 진로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도 여대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의 워크넷, 교육과학기술부의 커리어넷, 여성부의 위민넷 등의 직업정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대생의 이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아 여대생의 정보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선미 외, 2008: 170-171). 이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등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진로개발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대학생 대상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체 실습에 관한 정보, 직업 선택에 관한 정보, 고등교육에 관한 통계, 대졸자의 직업세계 이행에 관련된 연구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프랑스 고등교육 정보, 유학, 대학생활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여성 청년을 위한 직업정보 사이트는 여성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청년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규 대졸 여성의 취업 실태, 대졸 여성을 위한 유망 직종에 관한 정보, 여대생 선호 직업에서의 취업 경쟁 정도, 여대생 희망직업별 신규 대졸자의 주요 근로조건(임금, 고용형태, 근무시간 등), 여대생 희망직업에서 신규 대졸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는 직장 유형, 여성 인력에 대한 차별 방지에 적극적인 기업정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의 기대, 여대생들의 희망직업 혹은 희망 직장 유형별로 취업한 선배들의 경험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 일·가정 양립정책의 적극적 추진

이 연구를 통해 여성 청년들에게도 경제적 자립이 성인기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더 이상 지배적인 담론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이인소득자모델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추세에 맞춰 우리 사회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배분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과 남성 모두 생계부양자이면서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성인기로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뒷받침과 인식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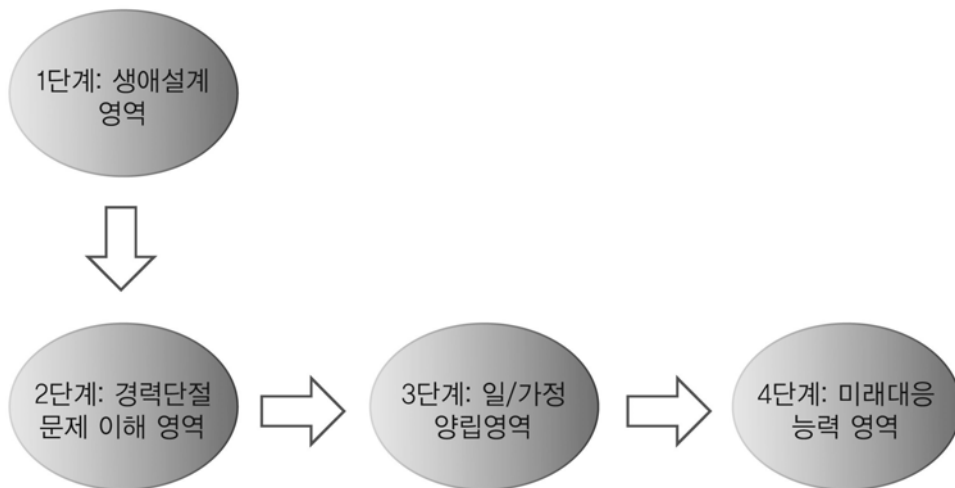
홍승아 등의 연구(2008)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초혼과 출산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현상은 보다 젊은 코호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현재 취업해있다는 사실은 초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이력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혼인·출산과 일자리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사회환경이 미비하여, 청년층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홍승아 외, 2008).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요청된다.

(4) 여성 청년대상 경력단절예방 교육 실시

여성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은 졸업-취업-은퇴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생애주기를 갖는 남성과는 달리, 결혼-출산-양육-취업을 둘러싼 단절과 지속의 다양한 접합과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다(배은경, 2009).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과 L자 커브로 상징되는 낮은 노동시장 재진입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70여개에 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할 경우, 경험과 숙련도의 마모로 인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과 재교육의 비용이 높게 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원래의 직종보다 하향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이 조기에 직장을 퇴직하지 않고 경력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에서 여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예상되는 경력개발 장애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 예로 신선미 등(2009: 888-83)에 의해 개발된 ‘경력단절과 여성의 생애 이해’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1】 경력단절과 여성의 생애 이해 프로그램

신선미 등은 이 프로그램을 1) 생애설계 영역, 2) 경력단절문제 이해 영역, 3) 일과가정의 양립 영역, 4) 미래 대응능력 영역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단계인 ‘생애설계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생애설계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2단계 ‘경력단절 문제 이해 영역’에서는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에 따른 문제 및 실제 여성들의 생애변화 모습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3단계 ‘일과 가정 양립 영역’에서는 관련정보와 함께 주변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4단계 ‘미래 대응 능력 영역’에서는 직업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와 함께 여성들의 장단점에 대한 진단과 보완 내용을 담도록 제안하고 있다.

2) 성별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인기 이행과정을 겪고 있는 20대 여성 청년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은 성인기 이행 시기와 방식을 선택하는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20대 청년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 이후에 결혼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결혼을 성인이 되는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의 의미를 부과하는데 비해, 여성은 결혼을 주요한 생애사건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뚜렷한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도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20대 여성들은 결혼 후 가족생활 유지의 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최대한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성의 결혼 지연이나 비혼 전략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출산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1)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의 제도화

자녀양육을 비롯한 돌봄 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공고하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20대 남성 청년들에게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결혼은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 정도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결혼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돌봄 노동의 책임이 전제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여성 청년들은 결혼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하며, 그도 아니면 이를

전담함으로써 여성에게 배타적인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한 여성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중심으로 노골화되는 성별 역할 분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우선, 남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남녀의 동등한 육아참여와 가족시간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홍승아 외, 2008). 육아휴직 활용에 있어서의 남성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해서 자녀양육은 여성과 남성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예컨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성할당제도는 남성들의 휴가사용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차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춰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남성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2) 성 평등한 가족관련 태도 형성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결혼과 가족생활과 관련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단계에서부터 성 평등한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교육내용을 보면(정해숙 외, 2010), 아직까지도 도덕과나 사회과 등 거의 모든 교과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자는 어머니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과거 교과서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역할로만 묘사되던 것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초·중등교육과정에서조차 여성의 책임영역으로 공고히 남아있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과(기술·가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남녀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실과(기술·가정)는 물론,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등의 전 교과의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남성의 모습 등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남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게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삽화가 많이 등장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교과서 등에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남성의 모습을 등장시켜, 학생들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남성면접자 중에는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를 접함으로써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거리 두며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참여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학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친밀성의 발현으로서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자신의 개발 가능한 삶의 영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여성과 ‘모성 이데올로기’의 친화성을 강조하며 돌봄 노동을 자신과 분리된 영역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 기타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여성학 교육은 산술적인 의미의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친 성찰의 과정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양성평등한 결혼생활을 위한 준비 교육의 실시

이와 더불어 20대에 들어서 성인기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전통적인 성인기 이행 양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선택이 결혼의 지연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며, 선택의 문제라 할지라도,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20대 여성 청년은 자신의 주변에서 결혼생활 실패로 상처받은 사례나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목도하며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굳이 실패한 사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으로 인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부인,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 부담은 여성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드러난 반면, 남성 청년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관심도 이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상의 결혼생활을 둘러싸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준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성인기 이행 중 부모에 대한 경제적 예측 탈피 지원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지원 능력 여부에 따라 자녀의 성인기 이행의 시기에 많은 차이를 보여 계급 재생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예측은 성인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의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지원으로 인해 성인기 이행으로의

의욕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 즉, 학업과 구직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1) 교육비 부담 완화

우선 근본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간 물가상승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율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지출 부담을 지우게 할 뿐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업을 지연하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몰두하게 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연스럽게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체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평균적으로 18세에 독립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환경이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성을 익히고 자신의 생활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준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당국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대학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노력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갈수록 치솟는 대학의 교육비는 성인기에 접어든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결과 졸업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성인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존까지 결과하게 되므로 성인기 이행은 더욱 요원해진다. 등록금이 동결 및 인하되도록 유도하여 성인기 이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 및 비과세소득화

국가근로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등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보조 장학금으로 교내외에서 일한 대가로 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교내는 시급 6,000원, 교외는

시급 8,000원으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문에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2009년 9월 국세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판단서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이라며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가계소득에 합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매월 받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학금을 가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근로장학금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현실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이 많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¹⁾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9월 한 취업포털에서 전국 대학생 1,793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2%는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으며, 새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대학생의 절반 이상(55.2%)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1. 9. 21).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또는 휴학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 임금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 불과하며, 시급 4,320원으로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계약직,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학생 과외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수준에 머물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생활비는 물론 교육비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부모가 해결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1)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부터 5월6일까지 강릉 등 동해안 지역 120곳과 춘천 32곳 등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심 사업장으로 신고됐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강원도내 대학생의 55.9%가 부당 노동 현실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강원일보, 2011. 8. 20).

4)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추진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주거비는 상승함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은 자녀세대가 독립할 나이가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성인기 이행을 더욱 지연시키고 청년세대의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게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주거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기피와 밀접히 관련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이대원, 2010).

(1) 저렴한 청년층 전용 주거공간의 공급²⁾

높은 주택비용은 한국의 청년들의 주거독립과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 중 25-34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 지원,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정책 등 큰 틀에서 봤을 때 25-34세 청년층에 특화된 정책은 없었던 것이다.

청년층을 저소득계층으로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상자에 청년층 역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대부분 기혼자들을 위한 것이라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층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이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나 결혼을 하기 전까지 청년층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위해 20세 전후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년들의 경우 한정된 기숙사 정원과 높은 기숙사 비용으로 인해 도시의 외곽이나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청년임대아파트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 1986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종합계획’에 따라 당시 국고 454억 6,700만원, 지방비 180억 8,400만원, 국민주택기금 524억 6,900만원 등 총 1,160억 2,000만원을 들여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2) 이대원(2010). 10쪽 참조.

사례가 있다. 이 중 820세대는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로 여성노동자들에게 공급되었다. 당시 수출 증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 각 공업단지 내에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한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성장 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쉬거나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2) 여성 청년층에게 안전한 주택의 건립

여성청년의 경우 주택의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주택의 안전문제였다. 부모세대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을 바라지만, 딸 자녀의 독립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안전상의 걱정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사고 및 강력범죄가 등이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면식범의 범죄가 증가하고, 대낮 아파트·주택지역 사건·사고 발생이 많아지면서 일상 주거환경 등의 안전망을 강화·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방안으로 여성안전귀가로 설치, 야간 적정조도 유지, 범죄예방설계(CPTED) 도입 및 범죄 예방 CCTV 설치 등이 설치된 여성청년 전용 주거공간의 보급을 제안한다(장미혜 외, 2009). 범죄 예방을 위해 기존 무음의 CCTV에 스피커폰을 설치해 화면과 함께 소리가 관리실로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은 센서전등 설치와 함께 범죄 취약지역인 지하주차장 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주거공간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안전확보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여성안전귀가로는 야간에 40~60룩스 이상 조도를 유지할 것 등 여성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한 내용들을 권장할 수 있다. 모든 건물에는 가능한 투시형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권장하며, 모든 공간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되, 단지 및 현관 주출입구, 또는 여성친화보도 등 주요시설물의 배치 및 조경식재가 시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듯 여성들에게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장이 매뉴얼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해 여성에게 안전한 주택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김명혜(1997). 여성의 정체성과 삶의 변화. **여성연구**, 제5권, pp.171-206.
- 김은경(2009). 구로구 아파트, 범죄 없는 주거환경 만들기 우선.
<http://www.womennews.co.kr>(2011.6.9.).
- 김현철(2003). 일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pp.127-154.
- 류경희(2011). 기혼자의 ‘결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89-107.
- 류충섭(2011). 유럽 대학, 등록금 실패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2011.6.9).
- 박성재 ·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pp.29-50.
- 박아청(2000). 성인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고찰. **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2호, pp.47-61.
- 박지혜 · 신미숙 · 신영미(1990). 남자 대학생과 성인기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수준과 수행정도 비교. **가정학회지**, 제7권, pp.7-17.
- 배은경(2009). ‘경제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연구**, 제9권 제2호, pp.39-82
- 손봉석(2011). 휴학한 대학생 52%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
<http://news.khan.co.kr>(2011.9.21).
- 신경림(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선미 · 민무숙 · 이지연 · 강혜영(2009). **여대생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개선 및 평가방안**. 서울: 여성부.
- 신선미 · 정경아 · 구정화(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

- 연구원.
- 안선영 · Vuervo, H., Wyn, J.(2010). **우리나라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은진 · 김승연 · 심인선 · 박미연(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서울: 여성부.
- 윤홍식(2006). 부모 · 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223-249.
- 이광엽(2011). 미국 등록금, 저소득층은 부담 없다. <http://www.ytn.co.kr>(2011.6.9).
- 이대원(2010). **청년층 주거문제 현황과 대책**. 서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이미정(1998). 가족 내에서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제32권 제1호, pp.49-54.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pp.95-140.
- 이우경·방희정(2008). 사회, 정서발달 : 성인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자애(慈愛), 심리적 안녕감 및 심리 증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1권 제4호, pp.127-146.
- 이철기(2011). 법적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하라.
<http://www.incheonnews.com>(2011.8.22).
- 임지선(2009). 가난한 대학생 놀리는 근로장학금. <http://h21.hani.co.kr>(2011.8.22).
- 장미혜 · 윤덕경 · 염유식 · 이승훈(2009).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지연 · 호정화(2001).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한국사회학**, 제35집 제4호, pp.159-188.
- 전경아(2003). **전문직 여성의 계급 경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우 · 이나영(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89호, pp.105-145
- 정해숙 · 구정화 · 최윤정(2010).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조은(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6권 제1호, pp.69-95.

- _____(2008). 신자유주의 세계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제24권 제2호, pp.5-37.
- 최임숙(2005).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의 성역할 비전형성과 성인기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 **敎育發展論叢**, 제26권 제2호, pp.265-280.
- 홍승아(2010).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승아 · 이미화 · 김영란 · 유계숙(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하오유엔(郝娟) · 안창현(2007). 대학생 취업 지원의 성별 차이로부터 살펴본 성차별 현상. **젠더와 사회**. 제6권 제2호, pp.185-198.
- 한경혜(1993).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 유형의 변화. **사회와 역사**, 제39권, pp.121-171.
- Arnett, J. J.(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5, pp. 469-480.
- _____(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8 No.2, pp.133-143.
- Billari, F., and Liefbroer, A. C.(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Vol.15, pp.59-75.
- Elder, G. H., and Shanahan, M. J.(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Lerner, R. M.(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pp. 665-715). New York: Wiley.
- CEDEFOP(2010)(김미경 역). **번역자료 2010 06 프랑스의 직업교육과 훈련**.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cedefop.europa.eu/EN/Files/5190_ko.pdf(2011.10.20).
- Cote, J., and Bynner, J. M.(2008).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the UK and Canada: the role of structure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3, pp. 251-268.
- Creswell, J. W. (2010)(조흥식 역). **질적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Gaudet, S.(2007). *Emerging Adulthood: A New Stage in the Life Course. Implication for Policy Development*. Ottawa, ON: Policy Research Initiative.
- Glesne, C., 안혜준 역(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Macmillan, R.(2005). The structure of the life course: Classic issues and current controversie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Vol. 9*, pp. 3-24.
- Mason, J.(김두섭 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사.
- Moen, P.(2010). *From 'Work-Family' to the 'Gendered Life Course' and 'Fit' : Five challenges to the field. Discussion Paper SP I 2010-501*.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WZB).
<http://bibliothek.wzb.eu/pdf/2010/i10-501.pdf> (2011.10.20).
- Oesterle, J. S., Hawkins, D., Hill, K. G. and Bailey, J. A.(2010). Men's and Women's pathways to adulthood and their adolescent precurs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2 No. 5*, pp. 1436-1453.
- Settersten, R. A., and Ray, B.(2010). What's going on with young people today? The long and twisting path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Vol. 20 No.1*, pp. 3-18.
- Seidman, I.(2009)(박혜준 역).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Shanahan, M. J.(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pp. 667-692.
- Widmer, E. D. and Ritschard, G.(2009). The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Are men and women equal?. *Advances in Life Research, Vol. 14*, pp. 28-39.
- Williams, K. and Umberson, D.(2004). Marital status, marital transitions, and health: A gendered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0 No. 1*, pp. 81-98.
- Winkler-Dworak, M. and Toulemon, L.(2007). Gender differences in transition to adulthood in france: Is there convergence over the recent perio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23*, pp. 273-314.

Abstract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 II : Gender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is research sought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utilizing qualitative methodolog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39 selected interviewees, each involving approximately two hours of in-depth interview, with 33 persons (including follow-up interviews) in their 20s and 6 persons in their 40s or 50s.

Rising unemployment and the extrem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has become the reality with the onset of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and the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which had already been characterized by a division of labor by sex, is being re-structured in a new way. In practice, the traditional system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sexes and the preference for individual sexes in specialized jobs is being abandoned or newly structured in the present, where the labor market is increasingly unstable and flexible. Such changes are affecting how women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where women are professionals engaging in emotional and care-oriented employment and are preferred in the culture industry; within this domain,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s becoming more visible. However, within this domain, the value of women's labor is being undervalued and the market is being structured in a way that labor flexibility is becoming extreme. Not only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in the companies even after employment makes it difficult for women to sustain long-term participation in public lif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discern the widespread social perception that it is not possible for women to work for the long term because of factors such as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Within this social structure, instead of assertively challenging the system, women portrayed an adaptiveness, where their expectations regarding their employment prospects were not high, and there were not many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would like to work for a long term after finding employment.

In contrast, men were dissatisfied with having to follow the social trend of 'accumulating specs,' and many were confident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acquire a job that they wanted if they tried. Thus, while women regarded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s barriers for their career life and focused on compromise that they would reach under such circumstances, men saw career and family as compatible and did not view them as an issue of compromise. In short, the movement to change the view of treating women's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s something that inflicts costs to a company's profit to one of 'societal care,' proposes to reevaluate the value of carework, and further, to include men into the domain of care industri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viewed the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s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in order to acquire qualifications that would increase prospects for employ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nd in a flexible labor market where adolescent unemployment on the rise, they used strategic measures such as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postponement of graduation, and entry into graduate school in order to delay entry into the labor market.

In the process of job-search, female participants directly experienced the male-female inequality in the allocation of employment due to the tendency of firms to avoid female labor, and held greater anxiety and pressure regarding 'growing old' in comparison to their male counterparts. When it came to the recruitment process, women were more influenced by discourses of appearance than men. Among the women participants,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women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ir physical appearance from exercise to maintain their bodies, as well as plastic

surgery and diet.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of women within the labor market had a direct impact on female participants' strategies regarding marriage. Because of the burden due to household lab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ere were also many women who sought to delay or avoid marriage. For the female participants, who held the strong belief that it is impossible for family and work to co-exist, this arises from a reality where desires for marriage and women's career development cannot coincide. Moreover, the low valuing of women's high level of education and position in the marriage market creates tension between the intimacy needs of women and their career ambitions.

Key words: transition to adulthood, gender difference in transition to adulthood, gender inequality, policy recommendations for facilitating transition to adulthood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해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소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21-1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81-3

ISBN 978-89-7816-979-0(세트)

